


국립국어원 2014-03-02

국어문화학교 강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제9회 강사연수회 자료집**

일시: 2014. 2. 5.(수) ~ 2. 7.(금)

장소: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에이(A)304호

주최:  국립국어원

주관:  전주대학교 국어문화원



## 강사연수회 목표

1. 국어문화학교 강사로서의 수행할 역할 인식 및 역량 배양
2. 교수법, 교수 전략 학습으로 교수 요원 역량 강화
3. 교육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국어문화학교 교육 발전 방안 토의

### □제9회 강사연수회 일정

제1일 (2월 5일)	등록, 개강식 및 특강
13:30~14:00	등록
14:00~14:30	개강식(진행: 박미영 학예연구사) - 개회사(국립국어원 원장/교육진흥부장) - 환영사(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 회장) - 과정 운영 관계자 및 강사연수회 취지 소개
14:30~16:10 (100분) 16:30~17:30 (60분)	주제 발표 1 - 말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방안-국회 의회 화법을 중심으로 (권순희, 전주교육대학교 교수) 주제 발표 2 - 범국민언어문화개선운동 추진 계획 (김선철,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18:00~20:00	만찬 간담회

제2일 (2월 6일)	강의, 종합 토론
07:30~09:00	아침 식사(숙소 인근 식당)
10:00~10:50 (50분) 11:00~12:00 (60분)	토론회 - 국립국어원 연구·교육 자료 사업 소개 (박미영,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주제 발표 3 - 우리말 다듬기 강의의 이론과 실제 (이대성, 국립국어원 학예연구관)

12:00~13:30	점심 식사(학교 식당)
13:40~15:20 (100분) 15:50~17:30 (100분)	주제 발표 4 - 다듬어야 할 우리말의 모습 (박용찬, 대구대학교 국어교육과 교수) 주제 발표 5 - 방송·신문 언어의 실태와 개선 교육 (정희창, 동덕여자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8:00~19:00	저녁 식사(숙소 인근 식당), 자유 시간

<b>제3일 (2월 7일)</b>	<b>강의, 종합 토론 및 평가회</b>
07:30~09:00	아침 식사(숙소 인근 식당)
10:00~11:00 (60분) 11:10~12:00 (50분)	주제 발표 6 - 표준언어예절 및 청소년 언어 개선 강의 연구 자료 공유 (박주화, 국립국어원 연구원) 정리 및 평가회(연수회 평가, 설문조사) - 국어문화학교 강의 운영 관련 국어문화원 강사 의견 수렴 (박미영, 국립국어원 학예연구사)
12:00~13:00	점심 식사(학교 식당), 해산

## 차 례



## 소 개

1. 국립국어원 소개 .....1
2. 국어문화학교 소개 .....4
3.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소개 .....8

## 교과목

1. 말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방안 -국회 의회 화법을 중심으로-  
권순희 | 전주교육대학교 .....11
2. 범국민언어문화개선운동 추진 계획  
김선철 | 국립국어원 ..... 75
3. 국립국어원 연구·교육 자료 사업 소개  
박미영 | 국립국어원 ..... 77
4. 우리말 다듬기 강의의 이론과 실제  
이대성 | 국립국어원 ..... 98
5. 다듬어야 할 우리말의 모습  
박용찬 | 대구대학교 ..... 0
6. 방송·신문 언어의 실태와 개선 교육  
정희창 | 동덕여자대학교 ..... 2
7. 표준언어예절 및 청소년 언어 개선 강의 연구 자료 공유  
박주화 | 국립국어원 .....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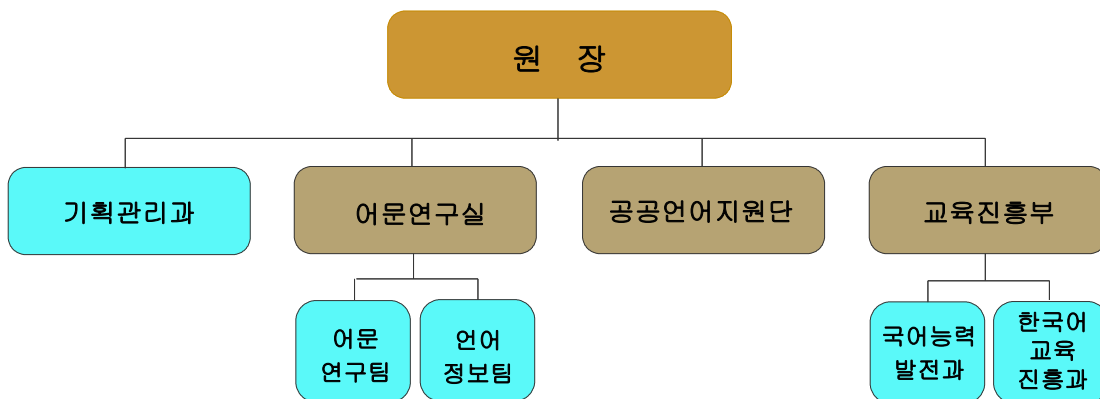


## 국립국어원 소개

### 설립 목적

- ▶ 국어의 발전과 국민의 언어생활 향상을 위한 사업의 추진과 연구 활동을 관장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일을 함.
- 국어·언어 정책과 관련된 법과 제도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 언어와 문자의 정보 자원 구축·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등에 관한 사항
  - 공공 기관의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
  - 국민의 국어 관련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 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
  -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
  - 국어·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
  - 국어·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
  - 한국어 교육 과정, 교재 등의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

### 조직



원 장	기획 관리과	서무, 인사, 예산·회계 및 결산, 청사와 시설 관리, 주요 사업 계획의 수립·조정·분석, 국회 관련 업무, 감사 및 사정 업무 등
	어문 연구실	<p>◆ <b>어문연구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언어 정책 관련 법·제도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li> <li>■ 국어·언어 관련 정책 통계 생성 및 수집</li> <li>■ 언어와 문자, 언어 소외 계층을 위한 특수언어 등에 대한 연구</li> <li>■ 어문 규범 관련 연구 및 영향 평가에 관한 사항</li> <li>■ 국어의 시대적 변천, 국어의 지역적·계층적 변이에 대한 연구 및 사회 구성원 간 의사소통에 대한 연구</li> <li>■ 국어 분야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li> <li>■ 남북 언어 통일 및 동질화를 위한 연구</li> <li>■ 세계 언어 연구 기관 등과의 교류에 관한 사항</li> </ul> <p>◆ <b>언어정보화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와 언어 정보화 관련 연구·실태 조사</li> <li>■ 언어와 문자 관련 정보 자원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li> <li>■ 국어와 관련된 각종 사전의 편찬·발간 등에 관한 사항</li> <li>■ 언어와 문자의 전산 처리 규격, 표준화에 대한 연구</li> <li>■ 자연어 처리 기반의 사전 편찬 및 분류 체계 연구</li> <li>■ 지역어 발굴 및 연구·조사</li> <li>■ 국어·언어·문자 관련 문헌·자료 등의 수집·관리·연구·조사·발간 등에 관한 사항</li> <li>■ 국어 관련 홍보물 등의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li> <li>■ 전산실 및 자료실의 운영</li> <li>■ 언어 정보화 분야의 업무 협력과 지원에 관한 사항</li> </ul>
	공공언어 지원 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공 기관의 언어 감수에 관한 사항</li> <li>■ 신문·방송·인터넷 언어의 공공성 향상에 관한 사항</li> <li>■ 전문 용어 정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국민의 국어 능력·국어 의식·국어 사용 환경 등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li> <li>■ 올바른 국어의 보급 및 언어 순화 활동에 관한 사항</li> <li>■ 국민의 언어생활 상담에 관한 사항</li> </ul>
	교육 진흥부	<p>◆ <b>국어능력발전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어 능력 검정 시험 시행에 관한 사항</li> <li>■ 국어 관련 교육 연수 발전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li> <li>■ 국어문화학교 및 국어 전문 교육 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li> <li>■ 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li> <li>■ 국어책임관 등 국어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li> <li>■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분야 종사자에 대한 국어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li> <li>■ 국어문화원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li> </ul> <p>◆ <b>한국어교육진흥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한국어 교육 자료 개발 사업</li> <li>■ 한국어 관련 교육 연수 계획의 수립 및 교육 연수 과정의 개발</li> <li>■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에 관한 사항</li> <li>■ 한국어 교원 자격 부여, 교육연수에 관한 사항</li> <li>■ 한국어 교육 기관의 교육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li> <li>■ 한국어 교육 과정, 교재 및 자료 등의 개발·보급·운영에 관한 사항</li> <li>■ 한국어 보급 기관 간의 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li> <li>■ 한국어 교원 국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li> </ul>

## 하는 일

### (1) ‘표준국어대사전’ 온라인 검색 서비스 및 국어 관련 정보 제공

-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에서 ‘표준국어대사전’, ‘국어연감’ 등의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국어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어문 규정, 정기 간행물, 연구 보고서, 소장 자료, 국어 논저, 기사, 공개 자료실 등).

### (2) 가나다 전화(1599-9979, 02-771-9909)

- 상담 시간: 월~금, 09:00~18:00, 전화 상담원이 국어 어문 규범을 비롯한 국어 관련 질문에 응답.
- 묻고 답하기: 국립국어원 누리집 게시판에서 국어 관련 상담.

### (3) 국어 정보지 발간·배포

- 계간지 ‘새국어생활’: 국어 생활 전반의 관심거리를 다루어, 국민의 국어에 관한 관심과 이해를 넓히고자 발간·배포함.
- 온라인 소식지 ‘침표, 마침표.’: 국어 관련 소식 제공과 국어원 활동 홍보를 위해 달마다 발간하여 전자 우편으로 발송함.

### (4)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http://www.malteo.net>)

- 국립국어원에서는 1991년 개원 이래 일본어 투 용어, 어려운 한자어, 서양식 외래어 등을 순화해 왔음. 2003년 ‘우리말 순화 자료집(합본)’ 발간 이후, 2004년 7월부터 우리말 다듬기 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 중.

### (5) 디지털 한글 박물관(<http://www.hangeulmuseum.org>)

- 한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한 한글자료 통합 관리 체계.
- 한글문화 유산을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체계화하고 전문가들의 해설을 덧붙인 디지털 전시관(역사관, 조형 예술관, 학술 정보관, 교육 문예관, 미래관, 한글 생활관) 운영.

## ● ..... 국어문화학교 소개 ..... ●

### 개 관

국어기본법 및 그 시행령의 시행(2005. 7. 28.)으로 인하여 국민의 국어 사용 능력에 대한 문제의식이 날로 높아지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국가 기관, 지방 자치 단체, 기업체 등 공공 기관 종사자의 국어 재교육의 필요성 또한 점차 커져가고 있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기존의 국어문화학교를 ‘국어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 수강생의 다양한 학습 목적과 수준 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전국의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의 신청으로 국어 전문 강사가 요청 기관에 찾아가 강의를 진행하는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컴퓨터를 이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수 있도록 사이버 교육 체계를 구축하고, 국어 관련 강좌와 교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 운 영 목 적

국어전문교육과정은 공무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국어 사용 능력을 키워 줌으로써, 의사소통 능력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고,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운 영 현 황

국립국어원에서는 올바른 어문 규범을 보급하여 국민이 아름답고 품위 있는 언어생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1992년부터 국어문화학교를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현재 국어전문교육과정으로 운영 중이며, 국립국어원 원내 국어문화학교 수강 인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여 2001년에는 약 1,300명이었으나 2012년에는 약 3,800명에 이르러, 12년간 약 2만 7천 명이 이 과정을 수료하였다. 이는 국어 사용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국민의 관심과 학습 욕구가 그만큼 커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1992.	국어반과 번역반을 3일간씩 출판인반, 일반인반, 청소년반, 공무원반으로 운영
1999. 8.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공무원 훈련성적평정대상 전문교육과정 5일 35시간 (5점 가산)을 승인
1999. 10.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교사직무연수기관으로 지정. 국어반 (5일간, 35시간), 번역반(3일간, 21시간) 운영
2000.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시작
2005. 10.	서울방송 신입사원 국어 교육(신입기자, 아나운서, 프로듀서 등 20여 명)
2005. 12.	법제처 국어 전문 과정 교육(법제처 공무원 22명)
2006. 2.	전국 국어상담소 상담원 대상 찾아가는 국어 강좌 공동 연수 개최 (전국 10개 국어상담소, 상담원 26명)
2007. 5.	국어전문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직제 개편으로 국어진흥교육팀 신설. 국어문화학교 강의전담 교수 채용
2009. 5.	직제 개편으로 국어능력발전과에서 국어문화학교 관련 업무 수행
2009. 10.	언론·출판인 대상 특별 과정 운영 시작
2009. 11.	공공언어 향상을 위한 공무원 특별 과정 운영 시작
2009. 12.	국어문화학교 강사연수회 운영 시작
2010. 6.	새터민 대상 특별 교육 과정(표준어 교육) 운영 시작
2011.	새터민 대상 표준어 교육 실시 경기도 교육청, 강서 교육청과 업무 협정으로 지역 내 학생 대상 우리말 교실 운영
2012.	대한지적공사, 농촌진흥청과 업무 협정으로 특별 과정 운영 지역아동센터 우리말 교실 운영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 특별 과정 운영 시작
2013.	국어문화시민강좌, 대학 강사 한국어 어문 규정 특별 과정 운영 온라인국어문화학교, 온라인 기획과정 운영 확대 지역아동센터 쏙쏙 국어 교실 운영

국어문화학교 수강자의 연도별 증가 추이

과 정 연 도	국어전문교육과정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개설 횟수	수강 인원	강의 횟수	수강 인원
2001년	19	1,292	123	15,142
2002년	19	1,452	185	16,970
2003년	16	1,486	157	17,890
2004년	17	1,458	176	16,332
2005년	17	1,765	195	15,655
2006년	18	1,921	190	12,926
2007년	22	2,354	253	19,305
2008년	24	2,443	148	10,275
2009년	27	2,733	297	19,062
2010년	35	3,174	316	27,804
2011년	29	2,701	334	28,689
2012년	36	3,841	486	34,347
2013년	25	3,141	504	25,264
합 계	304	29,761	3,364	259,661

## 교육 과정 안내

### (1) 국어전문교육과정(원내 국어문화학교)

#### (가) 공무원 및 일반인반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누리집(<http://www.korean.go.kr>) 참조.
- 신청 자격: 직업·연령 제한 없음.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662, 9729 / 전송 (02)2669-9787
  - \* 공무원의 경우, 교육 시간 35시간 인정.
  - \*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한글 맞춤법, 한글 맞춤법 연습, 띄어쓰기, 띄어쓰기 연습,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공문서 바로 쓰기, 글쓰기 지도, 협력적 의사소통, 우리말 다듬기, 훈민정음의 이해, 시청각 학습 등

#### (나) 교사반

- 교육 기간: 동계, 하계 방학 중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누리집(<http://edu.korean.go.kr>)

- 신청 자격: 초·중·고 교사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662, 9729 / 전송 (02)2669-9787
  - \* 서울특별시 교육청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이 교사 직무 연수 기관으로 지정받음.
  - \* 교육 시간 30시간, 교육 점수 2점 인정, 국립국어원장 명의의 수료증 발급.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이론과 실제, 구별해야 할 말, 띄어쓰기, 문장 부호 사용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 글을 바르게 읽고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학교 독서 교육의 이론과 실제 등
  - 말을 바르게 하기: 학교 화법 교육의 이론과 실제, 협력적 의사소통 등

## (2)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 신청 기간: 수강하고 싶은 달의 전월 15일까지 신청
  - 신청 방법: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누리집(<http://edu.korean.go.kr>)
  - 신청 요건: 공공 기관, 교육 기관, 기업체 등, 수강 인원 30명 이상
  - 신청 가능 지역: 전국 어디나 가능
  - 신청 문의: 전화 (02)2669-9752 / 전송 (02)2669-9787
  - 개설 과목
    - 어문 규범: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 글을 바르게 쓰기: 문장 바로 쓰기, 우리말 다듬기 등
    - 말을 바르게 하기: 표준 발음법, 효과적인 말하기 등
    - 언어와 문화: 언어 예절, 우리말과 국어문화 등
- \*강의료는 국립국어원에서 부담하고 교재도 국립국어원에서 제공함.

## (3) 온라인 국어문화학교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누리집(<http://edu.korean.go.kr>)을 통하여 현재 ‘한글 맞춤법’, ‘공공언어 바르게 쓰기’, ‘훈민정음의 이해’ 등의 강의를 무료로 수강 신청하고 학습할 수 있음.

●.....🔍 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소개 🔍.....●

## 추진 배경

🔍 국민의 정서를 순화하고 소통의 시대를 열 필요

🔍 국어운동 단체를 비롯한 사회 각계의 한국어 정화 요구 증대



## 사업의 비전

누구나 쉽게 소통하는 **한국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한국어**



## 사업 방향



## 추진 체계

쉬운 공공언어, 품격 있는 방송언어, 존중과 배려의 언어문화



## 주진 단위별 역할

<b>문체부</b> [국어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관 부처 협조 체계 구축</li> <li>'우리말 가꿈이' 및 국어문화원 사업 지원</li> </ul>
<b>국립국어원</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 연구, 학술대회 개최 등으로 사업에 대한 이론적 뒷받침</li> <li>바른 언어 사용 기준 마련, 지침서 발간, 참여자 교육, 시민 대상 강좌 개설 및 운영 등 민간 활동 지원</li> </ul>
<b>참여 단체</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리말 사랑 동아리 활동가 모집 및 양성</li> <li>'아름다운 한국어 가꾸기' 사업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li> </ul>
<b>우리말 사랑 동아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변 지역의 언어 환경 조사 및 개선 활동</li> <li>우리말 가꾸기 시민 운동 전개 및 분위기 확산</li> </ul>
<b>개인</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언어 행동 자가 점검 및 실천 항목 작성, 이행</li> <li>가정, 직장 등에 전파하여 우리말 가꾸기 참여 유도</li> </ul>

문화 융성, 행복한 사회

아름다운 한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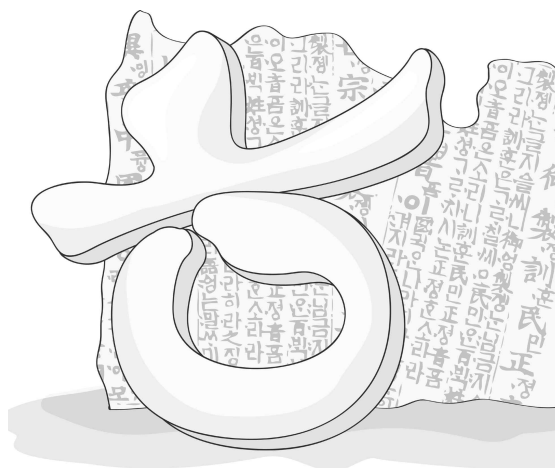
누구나 쉽게 소통하는 한국어 /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한국어

국립국어원, 국어 단체 등의 유기적인 협력  
국민 각자의 자각과 변화 노력



# 말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방안 -국회 의회 화법을 중심으로-

권순희 I 전주교육대학교





## 말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방안<sup>1)</sup> -국회 의회 화법을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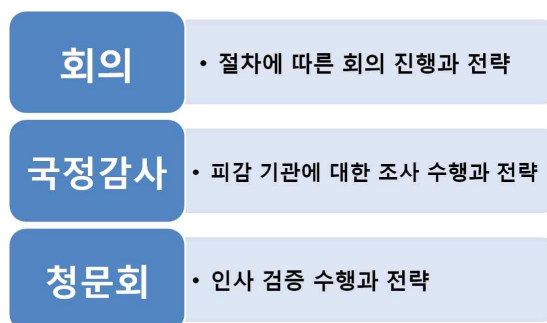
권순희(전주교대)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화법 양상을 관찰 및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이를 통해 화법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언어 활동 분석 및 의회 언어 개념과 향상 방안 등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였다. 왜냐하면 국회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가 모인 곳이고,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집단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담화는 방송 등 매체를 통해 공개 되므로 사회에 그 영향력이 큰 것도 그 중 한 가지 이유이다.

국회 담화는 1년 단위로 비슷한 양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1~2년간의 국회 담화를 분석 대상으로 삼아도 국회 담화의 전모를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7대, 18대 국회 담화에 한정하여 살펴보고, 분석 시 필요하다면 인접 자료도 일부 다루었다. 국회 담화 전사 자료와 녹화 자료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제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회의 모든 회의록을 PDF의 형식으로 저장하여 국민 누구라도 원할 때에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국회 회의록을 열람할 수 있는 ‘국회회의록 시스템’<sup>2)</sup>에서는 국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의의 종류를 본회의, 전원위원회,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국정감사, 국정조사, 소위원회로 제시하고 있으며, 회의록은 회의체(會議體)를 기준으로 본회의회의록, 위원회회의록, 국정감사회의록, 국정조사회회의록, 소위원회회의록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국회의 회의 중에 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되는 국회 담화의 특징과 국회의 원을 중심으로 의회에서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양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초점화하여 살펴 볼 회의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나누었다.



국정감사, 청문회는 모두 회의의 종류에 속하지만 회의의 목적과 주요 기능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나 전략을 분석할 때 주목해야 할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하였다.

1) 연수를 목적으로 국립국어원 2013년도 연구 결과보고서 “분야별 화법 분석 및 향상 방안 연구”에서 발췌한 내용임. 인용할 때에는 결과보고서를 참고할 것.

2) 국회회의록 시스템 홈페이지 주소는 <http://likms.assembly.go.kr/record/index.html> 이다.

## 1. 국회 회의 담화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한 분석적 고찰

### 1. 국회 회의 담화의 개관 및 분석 방향

회의(會議)는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의 참여자들이 모여 의결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진행 규칙이나 결론을 이끌어내는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되는 특징을 지닌다. 회의를 통해 민주적 의사소통의 중요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을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된다.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는 국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를 다루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올바른 공론이 형성되기 위한 나름의 진행 절차와 의사결정 방식을 보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국민 모두가 원한다면 쉽게 회의 장면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사결정의 모범적인 모델로서도 기능해야 할 책임을 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국회 회의가 가지는 공공성과 책무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으로서의 회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하였다.

국회 회의 담화의 분석 대상은 국회 회의 종류를 모두 포함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국회 회의의 규칙에 따른 절차적 진행과 관련한 논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본회의 및 상임 위원회, 소위원회의 회의록의 내용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회의의 절차적 진행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의회 회의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최소한의 조건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절차적 정당성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회의 의사 진행 양상 분석에 초점을 맞추어 회의 담화를 분석하되, 세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는 회의 진행 절차의 측면에서 국회 회의 진행의 순차적 진행 순서를 따라 각 절차가 지니는 의미나 가치가 어떻게 구체적인 회의 상황과 맥락 속에서 활용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둘째로는 회의의 목적에 초점을 두어 문제 이해, 문제 해결, 의사 결정의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의 특성 및 각 단계에서 요구되는 기능이 무엇인지를 분석할 것이다. 셋째로는 회의를 진행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의 관계에 주목하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대인 관계적 화법의 양상을 기술할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 회의는 다른 회의에 비해 다루는 의안의 수가 많고 복잡할 뿐 아니라 위원회에 따라 회의에 참여하는 구성원의 구성과 인원이 다양하여 담화를 분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본고에서는 의사 진행을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의장 혹은 위원장의 발화를 중심으로 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탐색할 것이다.

### 2. 국회 회의 담화 분석의 실제

#### 1) 회의 진행 절차에 따른 분석

회의의 진행 절차는 본회의와 위원회회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림1]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회의 진행 절차



## 2) 회의 목적에 따른 분석

회의 규칙과 절차가 실제 회의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우선 국회 회의의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였다. 첫째는 문제 이해를 위한 회의 진행과 둘째는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진행이다. 토의나 회의는 궁극적 지향점에 따라 ‘문제 이해’, ‘문제 해결’, ‘의사결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국회 담화는 문제 이해를 위해서는 ‘설명’ 또는 ‘보고’를 바탕으로 문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질의·답변’ 등을 통해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가 정확한지를 서로 확인하며 검토해 나간다. 이후 구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초점화되고 쟁점이 도출되면 이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표결’ 등을 거쳐 실질적인 해결안을 도출해내는 ‘문제해결’에 이르게 되고 합의된 의사결정 사항을 ‘선포’, ‘보고’하여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실행할 수 있는 ‘의사결정’을 내리게 된다. 이때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은 거의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굳이 이 두 과정을 분리하지 않고 합해서 ‘문제해결과 의사결정’으로 구분하였다.

### (1) 문제 이해

분석 항목	판단기준
1-1. 주제 안내	회의의 상위 주제와 취지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있는가? 회의 주제가 결가지로 빠지지 않도록 회의의 목적을 회의 중간 중간에 상기시키고 있는가?
1-2. 절차 진행	계획되거나 예정된 발언 시간, 순서를 지켜 진행하고 있는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발언 시간, 순서를 조정하여 진행하고 있는가?

	특정한 요구 사항이 있을 때 이를 반영하여 진행하고 있는가?
1-3. 정보 제공	회의와 관련하여 모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1-4. 정보 탐색	회의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가?
1-5. 의견 제공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자신만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는가?
1-6. 의견 탐색	회의의 진행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가?
1-7. 종합 정리	회의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있는가?

### <분석 사례>

#### 1-1. 주제 안내

판단 기준: 회의의 상위 주제와 취지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안내하고 있는가?

판단 근거: 회의의 일반적인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사회자는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를 먼저 제시하여야 한다. 즉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논의하고자 하는 문제에 관하여 참여자들이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하고, 해결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국회 회의담화에서는 사회자인 의장(위원장)이 상위 주제와 취지를 잘 안내하고 있는지, 하위 주제와 상위 주제를 잘 연결하는지, 회의 목적을 상기시키면서 진행을 하는지가 중요한 판단기준이 된다.

### 바람직한 예

#### ① 상위 주제와 취지에 대한 안내

회의는 여러 사람이 모여 어떤 문제를 해결하거나 논의하기 위하여 의견을 나누는 것으로 목적이 분명한 행위이므로, ‘무엇’을 위해 모인 것인지 그 주제와 취지를 구성원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 다음 사례에서 사회자인 위원장 H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부정행위 사건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와 대책에 대해 보고를 받는다’는 회의의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고 있다. 회의의 참석자들의 경우 회의 주제를 모르고 있는 경우는 적지만, 회의의 시작부에 회의의 주제를 다시 한번 언급함으로써 환기의 효과뿐 아니라 회의의 목적이 해당 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임을 명백하게 알리는 효과가 있다.

○위원장 H: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수능시험부정행위관련보고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11월 17일 시행된 200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발생한 대규모 부정행위 사건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와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총리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서 진솔하고 상세한 보고를 해 주시고 국민들이 이런 부정행위가 재발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소신 있는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1-2. 절차 진행

판단 기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발언 시간, 순서를 조정하여 진행하고 있는가?

판단 근거: 회의규칙은 회의를 공정, 원만,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따라서 회의 사회자는 그가 속한 조직체에 관한 법령, 정관 및 제 규정을 충분히 익히고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 그래야 회의를 적법하고 능률적으로 이끌 수 있

으며 공정하고 원만하며 신속하게 회원들의 의사를 하나로 모을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장이 그 규칙의 적용에 융통성을 보이는 것도 가능하다. 너무 규칙에 얽매어 회의를 진행하면 자칫 회의 분위기를 경색시켜 오히려 회의의 진행이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올바른 판단력과 강력한 추진력 또한 의장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요건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회의의 절차와 관련된 규칙으로는 국회법 제60조 위원의 발언과 제99조 발언의 통지와 허가, 표준규칙 제23조와 106조를 참고할 수 있다. 국회법 제60조에 따르면, 의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횡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 안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시간을 균등하게 정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질의의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국회법 제99조에 따르면,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미리 통지하지 아니한 의원도 회의장에서 발언을 신청하고 그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는 있지만, 미리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에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할 수 있다. 표준규칙은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두지 아니하고 회의장에서 발언을 신청하여 의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는 절차만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적절한 시기를 정하여 허가한다. 의사일정에 올라 있는 안건에 대해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의장은 이 통지를 받은 순서와 그 소속 교섭단체를 고려하여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를 먼저 발언하게 한다.

### 바람직한 예

#### ② 조정된 절차 진행: 시간 조정, 순서 조정, 발언권 유무

국회에서의 회의는 정해진 절차에 의해 진행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의의 시간이나 안건 처리 순서, 발언 순서를 조정하거나 발언권을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 등을 결정하면서 예정된 회의의 절차와 다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사회자는 회의의 목적 달성이라는 커다란 명제 아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시간, 순서, 발언권 등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는 판단기준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정, 원만, 신속’이라는 원칙에 따라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위원장 Y는 오후의 회의 일정이 예상보다 조금 늦어졌기에, ‘병무청 소관 사항’과 ‘군인공제회’ 관련 안건의 시간을 각각 3시 30분과 4시 30분으로 정하여 안내하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질의 응답시간을 조정하여 회의가 조정된 일정에 따라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 Y: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제 방위사업청 현안보고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의 일정이 오전에 계획보다 조금 지연됐기 때문에……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시 30분부터는 병무청 소관 사항

을 했으면 좋겠고 4시 30분부터는 군인공제회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벌써 2시 10분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질의를 신청하셔서 한 7분 정도 하시면 어떤가 싶은데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대강 한 7분 내외로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후는 K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시겠습니다.

### 1-3. 정보 제공

판단 기준: 회의와 관련하여 모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판단 근거: 회의의 사회자는 참석자들의 활발한 논의를 통해 회의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참석자들에게 회의의 안전과 관련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회의의 일정이나 절차에 관한 정보가 있을 시에도 이를 고지하여 회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자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안전’과 관련한 새로운 저보나 ‘일정’과 관련한 안내가 있다.

### 바람직한 예

#### ① ‘안전’과 관련된 정보

N의 업무보고에 대한 J위원의 질의응답이 끝난 후, 질의에서 언급된 유통문제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토론회가 있음을 알리고 있다. 그리고 이어서 신용사업과 경제사업과 관련한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안전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위원장 L: J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셨다시피 유통 문제가 비상한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중략) 그다음에 기왕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 Y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관계가 늘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N의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손익이 경제사업에서 1787억 원의 손실이 났고 신용에서 1조 4363억 원의 이득이 났네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들일 것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신용사업에서 너무 많은 이득을 내는 것 아니냐라고 보는 분도 계시고, 그 이득이 있기 때문에 경제사업이 운영 가능한 것 아니냐, 생산자를 염두에 두는 경제사업이라는 게 이득을 내기가 어려운데 바로 신용사업이 있기 때문에 경제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또 이런 관점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신용사업 자체도 농민에게 이익을 드리는 것이냐 아니냐의 관점이 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 균형을 갖고 지금 접근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 1-4. 정보 탐색

판단 기준: 회의를 위해 보다 구체적인 사실이나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가?

판단 근거: 위원회의 임무는 본회로부터 회부 받은 의안을 조사하고 심의하여 본회에 보고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원장은 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 등에 대한 요구를 통해 의안의 성격을 분명히 하고 참석자들이 의안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또한 참석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회의에 성실하게 참여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 바람직한 예

### ㉔ 태도에 대한 요구

위원장 H는 회의에 참석한 금융위원장에게 위원들의 질문에 대하여 충실히 답변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대답을 회피하거나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질문자가 납득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은 물론 회의의 목적 달성도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태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위원장 H: ○○위원장, 우리 국회 정무위가 열리면 우리은행을 민영화하라는 이야기는 여야 똑같은 목소리로 항상 주장해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번에 산은지주하고 관련해서 오해가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원장이 느닷없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지금 여야 위원들이 많이 그 점에 대해서 금융위원회하고는 의견이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 말 이야. 그래서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가서 설명도 하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엇그제까지 산은지주가 우리은행을 하니, 안 하니 이래 봤다가 어제 와서 또 안 한다 그래요. 이 50%는 그대로 나간다, 이게 뭐……

지금 이 문제를 그렇게 간단히 보지 마시고, 의지만 갖고 관철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여야 위원들한테 충심을 다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그러면서 일을 진척해 나가야지 무리하게 하면 또 큰, 의도한 결과를 가져오지도 못하면서 괜히 파장만 일어나니까 신중히 좀 처신하기 바랍니다.

### 1-5. 의견 제공

판단 기준: 회의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자신만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는가?

판단 근거: 의장은 의안의 심의에 있어서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지닌다. 의장이 찬반 어느 쪽에 기울어져 의사를 진행하면 회원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반영될 수 없다. 따라서 의장은 찬반토론에 참여하여서는 안 되며, 그것이 중립성, 나아가 객관성의 상징이다. 만일 참여하고 싶으면 의장의 직을 다음 순위자에게 넘기고 회원의 한 사람으로 참여해야 하고, 의안이 처리되는 동안 의장석에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RR<sup>3)</sup>: 382/383, 국회법 제107조). 의장이 찬반토론에 참가하여서는 안 되지만, 표결에는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참가할 수 있다. 또한 의장은 회원들로 하여금 공정하고 평등하게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그리고 조직체가 회원들에게 어떤 특전을 부여할 경우 의장은 그 특전도 공정하고 평등하게 부여하여야 한다(김교창, 2005: 85-86). 회의에서의 사회자는 공정한 회의의 진행을

3) 표준회의 진행법인 Robert's Rules of Order의 약자이다.

위해 중립의 의무와 공평의 의무를 지녀야 하므로, 개인적인 견해나 입장을 드러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참여 의원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거나 안전에 대한 이해가 달라 회의 진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는 선에서 자신의 의견을 드러냄으로써 갈등을 조정하고, 안전을 명료화하여 회의를 적절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는 달리 사회자가 안전의 처리 방향에 대한 의도를 드러내거나 유도하거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바람직한 예

#### ① 중립성 유지

위원회나 위원장은 국회의 내부기관에 속하기 때문에 원칙상 기관의 자격으로 외부에 대하여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최근 국회법은 위원회의 이러한 기본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절차적·관행적 사항이거나 신속하고 능률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 또는 위원장에게 기관의 지위에서 외부에 의사를 표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예가 적지 않다(이주성, 2003: 92).

위원장 H는 위원장으로서 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함을 인식하고 이러한 점을 분명히 언급함으로써 위원장으로서의 신뢰감을 확보하고 있다.

○위원장 H: 위원장으로서 여기는 상임위기 때문에 당의 정부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데서 말씀하시는 것이 옳고 여기는 당을 초월해서 국회의원으로 상임위 위원이기 때문에, 그 점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질의를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 바람직하지 않은 예

#### ② 안전 ‘처리’를 위한 의견 제시

위원장 J는 ‘개인 생각입니다마는’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안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드러내며 해당 안전이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란다.’라는 뜻을 드러내고 있다. 위원장이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안전의 성격을 명료화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 외에 안전의 신속한 처리나 자신이 바라는 방향으로 안전이 처리되기를 바라는 의도를 담아서 발언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위원장 J: 또 다른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저도 그런 소문 확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아본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서에서는 예산안, 미디어법 등을 연내에 합의 처리한다는 규정만 있었지 그런 합의문은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우리 당의 원내대표인 H대표와 L수석부대표에게 확인한바 현재 수석대표 간, 6인소위에서 합의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합의된 것을 가지고 우리 문방위에서 처리하도록 이관하겠다고 제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소문은 잘못 와전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원장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저는 ○○○가 언젠가는

광고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등으로 봐서 미디어법  
의  
여야 합의 처리와 동시에 ○○○ 등 TV 수신료 인상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원  
만하게 합의 처리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사 간 계속 그런 방  
향으로 협의하도록 위원장으로서 촉구하겠습니다.

## (2)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분석 항목	판단기준
21방법제시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결 방법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가?
2-2. 평가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공유된 기준에 비추어 평가하고 있는가? 제시된 의견이나 주장을 논거, 이유 등과 서로 연결하여 논리적으로 평가하고 있는가?
2-3. 조정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간의 불일치를 줄이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가?
2-4. 추동	회의에서 결정된 합의 사항을 실천하도록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가?
25의사결정	회의에서 요건을 확인하고 개회를 선언하는가? 회의에서 결정된 합의사항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가? 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가? 회의의 종결을 공식적으로 표명하는가?

### <분석 사례>

#### 2-1. 기준 제시

판단 기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결 방법을 평가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가?

판단 근거: 위원장은 회의가 지연되거나 회의의 진행이 답보 상태를 반복할 때 회의의 효율적 진행을 위해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절차나 조건들을 제시하거나 문제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하고 될 수 있으면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 바람직한 예

#### ①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 제시

KJ위원의 발의안에 대하여 KY위원이 의견수렴 과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의안 심의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고 의견을 표명하자 소위원장은 의견 수렴 과정으로서 공청회를 여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하고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구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KY위원: 법 제정 취지는 사실 반대할 것은 아닌데, KJ의원께서도 지난번에 부탁했는데 이게 제정법이기 때문에 의견수렴 과정이 계속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법안에 대한 토론의 장도 좀 여시고 그리고 여러 분야의 의견을 균형 있게 다 받아서 법안소위 위원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고, 이래서 이것을 좀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는데 KJ의원은 워낙 사람은 좋으신데 당최 그 활동을 안 하셔서, 제정법을 이렇게 쉽게 한다고 할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이게 막대한 재정소요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대선 과정이 워낙 바빠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측면도 좀 있으실 것인데 KJ의원실에서 이것을 대표발의를 하셨으니까 정보를 조금 더 주셔서 몇 번을 좀 비공식적으로 검토를 해 가면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 소위원장 Y: 그래서 각계 의견도 듣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공청회를 하는 것으로, 한번 열어 보는 것으로 해서 의견을 들어 봅시다.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개선돼 나가고 어떻게든지 발달장애인을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제정법으로 해서 도와주느냐—특별법 만들어서—아니면 장애인복지법으로 해서 그렇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도와주는 데 도와주는데 더욱 더……

(중략)

- KY 위원: 예, 내용도 문제고요. 예를 들어서 기금문제라든가 아까 얘기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 다른 장애인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좀 검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몇 달 시간을 두고 검토과정을 거쳐야지 될 것 같아요.
- 소위원장 Y: 예, 공청회도 해 보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다른 장애인의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고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토의하도록 하고……

### 2-3. 조정

판단 기준: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간의 불일치를 줄이며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가?

판단 근거: 모든 갈등 해소의 기본은 당사자 간 직접 협상과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한 조정으로 나눌 수 있다(이선우, 2007:79). 이 중에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에 의해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완충 지대를 찾아 조정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회의 진행에서도 위원장은 중립적 태도를 지닐 것을 요구받기 때문에 양 측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회의 진행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 효율적인 회의를 이끌어갈 필요가 있다.

### 바람직한 예

#### ① 의견 간의 불일치 줄이기

소위원장 J는 이전의 논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합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A위원이 자문위원 구성에 있어서 추가 의견을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자문위원과 관련하여 이견이 있었지만 이를 조정하여 추후 일정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 소위원장 J: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먼저 소위원회 활동기한은 19대 국회 전반기 종료일까지로 하고 그것과 관계해서 금방 P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위원회의 활동내용에 대해서는 각 위원님들과 상임위 활동 또 조세소위 활동을 통해서 정리된 의견들이, 또 단기적인 부분들, 중장기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사항들은 다 입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마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단기적으로 입법화시킬 것 외에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세소위의 의견들을 정리를 하고 나중에 저희가 활동을 마무리할 때 저희 조세개혁소위의 보고서에 그런 내용들을 다 담아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채택해서 국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종료일까지 우리가 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 조세개혁소위원회에서 논

의할 주제와 일정에 대해서는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서 추가적으로 각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셔서 조세개혁소위의 간사이신 A위원님과 H위원님 그리고 저 위원장께 위임하여 주시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앞으로 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 3) 회의 참여자의 관계에 따른 분석

해결해야 할 문제에 초점을 두면 의안의 상정과 의결이 회의의 시작과 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의안을 심사하고 표결하는 주체는 회의 참여자임을 고려하여 회의에서의 대인 관계를 고려한 분위기 조성 역시 분석 틀에 포함하였다.

분석 항목	판단기준
3-1. 발언자에 대한 존중	상대에 대한 배려를 통해 발언자를 존중하고 있는가? 상대 발언에 대해 칭찬을 하여 발언을 존중하고 있는가?
3-2. 긴장 완화	유머, 친화적인 표현으로 경직된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있는가?
3-3. 분위기 전환	의회 언어의 진지함과 품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있는가?

#### <분석 사례>

##### 3-1. 발언자에 대한 존중

판단 기준: 상대 발언에 대해 칭찬을 하여 발언을 존중하고 있는가?

판단 근거: 이효성·이호은(2011)에서는 상임위원회의 국회의원들의 품위 변인과 관련해서 ‘품위가 전혀 없거나’ ‘없다’고 평가된 사례가 10.7%에 달한다고 보고했다. 회의에서 기본적으로 발언자에 대한 존중이 없이는 원만한 진행이 이루어질 수 없다. 상대에 대한 배려를 통해 발언자를 존중하고 또한 발언을 주의 깊게 귀 기울여 듣고 이에 대해 반응함으로써 발전적인 회의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수 있다. 또한 국회법제 145조와 146조의 모욕발언금지 조항<sup>4)</sup>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단체의 명예나 훼손하는 등의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바람직한 예

##### ② 상대 발언에 대해 칭찬하기

소위원장 P는 다음 밑줄 그은 부분에서 나타나듯이 앞서 발언한 위원들의 발언에 대해 칭찬하고 있는데, 이는 경직된 분위기로 진행되기 쉬운 회의를 원만한 분위기로 유도함으로써 회의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도울 수 있다.

○소위원장 P: J위원님과 I위원님께서 예리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이것을 좀더 고민하고 다음에 다시 한 번 논의합시다.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유보하고 소위에 계류시켜

4) [모욕발언금지] 의원이 발언할 때에는 의제와 관련하여 어느 내용이라도 발언할 수 있으나 타인을 모독하는 발언이나 타인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하거나 단체의 명예를 손상하는 등 부당하고 불온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의원이 이상과 같이 타인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을 경우 의장(위원장)은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정도에 따라 경고, 제지, 발언중지, 퇴장 등을 시킬 수 있다(국회법§145, §146, 지방자치법§74).

서 다시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K는 앞서 의사일정 결론부에서 정리를 해주어서 회의를 도운 Y위원의 발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칭찬함으로써 회의 참여자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인다.

○소위원장 K: 예, 잘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Y위원님께서 지금 여러 사안에 다 걸쳐 있기도 하고 또 본 의사일정의 결론이 나는 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장벽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지혜롭게 넘어갈 것인가 하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 3. 국회 회의 담화 분석의 결과 및 시사점

지금까지 국회 회의를 진행 절차와 회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고 바람직한 사례와 바람직하지 않은 예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회의의 진행 절차는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본회의의 경우 의원 전체가 참여하여 국정을 논의하는 것이 기본이지만 회의에 참여하는 인원수가 많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의안의 수가 많아 다소 형식적인 절차를 중시하여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는 반면 위원회 회의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지닌 소수의 위원이 참여하여 해당 의안을 심도 있게 다룬다는 점에서 실용적 회의의 성격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회의의 목적에 따라 크게 문제 이해를 위한 회의 진행과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 진행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회의의 진행이 사회자에 해당하는 의장이 주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장의 발언에 초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 의장은 회의의 주제를 안내하는데 이때 회의의 취지에 대해 공감을 할 수 있는 발언을 하거나 회의 주제가 일관성 있게 진행되도록 중간 중간에 상기시키는 경우를 바람직한 사례로 보았다. 또한 절차 진행에 있어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 못지않게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발언 시간이나 순서를 조정하며 진행하는 능력을 갖춘 경우를 제시하였다. 회의에서 다루는 의제와 관련하여 정보나 의견 등이 오고가는데 이때 회의 참여자들이 과도하게 많은 양의 정보나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로 보고하였다. 또한 의장이 의견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중립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안전을 명료하게 하기 위한 발언들이 필요함을 사례를 통해 제시하였다. 의장의 마무리 발언도 매우 중요한데 회의 내용을 정리하고 회의의 의의를 다시 한번 재평가하며 다음 일정에 대해 안내하는 안정적 모습을 보이는 경우와 시간에 쫓겨 회의를 급작스럽게 마무리하는 경우를 각각 바람직한 사례와 그렇지 않은 사례로 기술하였다.

문제 해결과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 진행의 경우에는 의회 회의의 특성상 표결을 진행하여 문제 해결과 동시에 바로 의사결정이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분석하였다.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직접 문제 해결 방법을 제시하거나 회의에 참여한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근거에 대해 평가하며 근거 자료가 지니는

모순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경우를 바람직한 사례로 보았다. 또한 의안을 두고 찬반양론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갈등이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의견 차를 줄이거나 절충안을 제시하거나 중립적 환경을 조성하려 노력하는 경우를 효과적인 조정 전략이 사용된 사례로 파악했다. 의사결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지니기 위해서 필요한 형식적 조건인 구성 요건을 확인한 개회 선언, 합의 사항 공포, 공식적 산회 선포 등을 화행의 성격이 있는 발언으로 규정하였으며 미합의된 사항에 대해 일방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여 마무리하는 경우를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로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참여자의 관계 면에서는 의장이 지속적으로 발언자나 발언의 내용에 대해 칭찬함으로써 발언자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드러낸 경우를 바람직한 사례로 보았고, 그 외에도 유머나 친화적 표현을 활용하여 회의의 경직된 분위기를 완화하면서도 회의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지하고 품격 있는 언어적 표현을 하도록 격려하는 경우를 회의 진행에 있어 꼭 필요한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국회 회의 담화에 관한 논의를 간단하게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회의의 목적에 따라

### (1) 문제 이해

분석 항목	구분	유형
1-1. 주제 안내	바람직한 예	상위 주제와 취지에 대한 안내/ 회의 목적 상기
1-2. 절차 진행	바람직한 예	예정된 절차 진행(확인, 안내) 조정된 절차 진행(시간 조정, 순서 조정, 발언권 유무) 태도에 대한 요청
1-3. 정보 제공	바람직한 예	안전과 관련된 정보/ 일정과 관련된 정보
	바람직하지 않은 예	과도하게 많은 양의 정보 제공/ 불필요한 정보 제공
1-4. 정보 탐색	바람직한 예	구체적 사실과 증거의 요구/ 태도에 대한 요구
1-5. 의견 제공	바람직한 예	중립성 유지/ 안전 명료화를 위한 의견 제시
	바람직하지 않은 예	중립성 위반/ 안전 처리를 위한 의견 제시
1-6. 의견 탐색	바람직한 예	발언 유도
1-7. 종합 정리	바람직한 예	회의 내용 정리/ 회의 의의 제시/ 다음 일정에 관한 안내
	바람직하지 않은 예	급작스런 마무리

### (2) 문제해결과 의사결정

분석 항목	구분	유형
2-1. 방법 제시	바람직한 예	문제해결을 위한 방법 제시
2-2. 평가	바람직한 예	공유된 기준에 근거한 평가 근거자료의 부족, 논리적 모순 등을 지적하여 평가
2-3. 조정	바람직한 예	의견 간의 불일치 줄이기/ 절충안 제시하기/ 중립적 환경 조성
2-4. 추동	바람직한 예	당부하기
2-5. 의사 결정	바람직한 예	구성 요건을 확인하고 개회 선언 합의 사항을 공포/ 공식적인 산회 선포
	바람직하지 않은 예	미합의된 사항에 대한 일방적 의사 표시

## 2) 회의 참여자의 관계에 따라

분석 항목	구분	유형
3-1. 발언자에 대한 존중	바람직한 예	발언자지지/ 상대 발언에 대해 칭찬
3-2. 긴장 완화	바람직한 예	유머, 친화적인 표현
3-3. 분위기 전환	바람직한 예	진지하고 품격 있는 표현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회의를 구성하는 참여자들이 참고할 만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민주적 의사결정 방법으로서 회의의 진행과 절차가 지니는 내용적, 형식적 지식을 공유해야 한다. 각 나라 의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회의의 진행과 절차는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한 나름의 이유를 지닌다. 따라서 본회의처럼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향이 강한 회의의 경우에도 회의의 각 단계와 절차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정해진 절차에 종속되어 회의의 본래 목적을 잊은 채 형식적으로 빨리빨리 진행되기에 급급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회의에 임하는 국회의원의 태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회의의 진행 절차가 함의하는 의미나 가치 등을 항상 인식하며 절차나 규칙을 해석하고 이를 실제 문제 해결이 필요한 상황 맥락에 적용하려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둘째, 회의를 진행할 때 공정한 진행과 신속한 진행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동의 의사 결정 과정으로서 회의가 지니는 속성을 반영하여 회의를 잘 진행하기 위해서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중립적이면서도 공정한 진행을 위해서는 참여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도록 시간을 배분하고 될 수 있으면 다양한 의견을 끌고루 들을 수 있도록 발언 기회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의 회의에서는 시간을 무한정 줄 수 없을 뿐 아니라 결정해야 할 의제의 수도 많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 안에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어느 하나 소홀히 다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둘 사이의 균형을 잡아 회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 의식을 명확히 한다. 국회 회의의 경우 사회자에 해당하는 의장이 주도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는 하지만 참여자 모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능동적으로 회의 진행에 기여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인 사회자는 의장이지만 공동의 문제 해결이라는 목표를 공유한 상태에서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가끔 회의록에는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지만 거의 발언을 하지 않거나 문제 해결과는 상관없는 발언을 주로 하는 의원들이 있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의사결정의 권한의 무게를 인식하고 공동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회의에 참여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넷째, 정보화 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준비와 계획을 해야 한다.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면 처리해야 할 의안의 수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쳤다고는 하나 정보화 사회의 특성 상 검토해야 할

사실 정보나 의견 정보의 양은 어마어마하다. 위원회 회의의 경우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이후에 ‘질의·응답’을 하게 되는데 이때 준비된 국회의원과 그렇지 않은 국회의원은 발언의 내용에서 현격한 차이를 드러내게 된다. 즉,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배부된 회의 자료에 대한 이해를 통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파악하거나 발견해야 하는데 회의 중에 즉석에서 떠오르는 질문을 하게 된다면 회의는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또한 본회의의 경우에도 ‘질의/응답’의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또한 본격적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회의의 절차적 의미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구두로 진행되는 쌍방향적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전에 배부되는 자료들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을 치밀하게 계획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 II. 국정 감사에 나타난 정치인의 화법 양상

### 1. 국정 감사의 성격 및 분석 방향

국정감사는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행정부 통제 제도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는 국정운영 전반(특정사안)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하고 시정하며, 입법활동과 예산안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한다. 또한 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입법이나 예산에 반영한다.<sup>5)</sup> 이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과 그 운영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도 충족된다. 이 국정 감사는 매년 어김없이 실시되고, 또 언론에 생중계되며, 국민이 국회에 대한 인상을 가지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피감기관, 그리고 관련된 증인에게 질의를 하게 되며 피감기관의 답변 속에서 더 많은, 그리고 더 심화된 정보를 획득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국정감사를 분석할 때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국정감사에 참여하는 의원들의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일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원들의 질의와 피감기관의 답변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주된 것은 의원들의 질의 양상이며 피감기관의 답변 또한 분석 항목에 따라 분석이 필요할 때는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국정감사에는 서로 다른 이질적인 목적을 가진 집단들이 참여한다.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여당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과 증인이 대표적이다. 여당과 야당은 같은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피감기관의 정보를 획득하고 견제해야 하는 책임을 공유하고 있지만, 정권 획득이라고 하는 최종 목적을 위하여 모든 국면에서 자신의 당에게 유리한 정치적 국면을 조성하려고 경쟁적으로 노력한다. 여당은 정권 재창출을 위하여 대통령의 정책적 결정, 그리고 정부 기관의 운영 상황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방어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위하여 장점을 부각시키고 야당의 공세를 차단한다. 또한 야당(일반적으로 제 1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의 실책을 최대한 드러내고 비판함으로써 장래 집권의 교

5) <http://likms.assembly.go.kr/inspections/index.html> 참조하여 기술

두보로 삼고자 한다. 이러한 상충되는 서로의 목적을 위하여 증인 선정부터 회의의 각 절차마다 치열한 기싸움을 하는 것이 국정감사의 현실이다. 그러나 언제나 여방야공(與防野攻)(최준영 외, 2008)의 형세가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여당 또한 피감기관을 두둔만 하지는 않는다. 여당과 대통령이 정책적으로 갈등을 빚고 있거나, 사안 자체가 불리한 정치적 영향을 미칠 상황에는 여당도 정부와 입장을 달리하여 정부의 정책이나 운영 실태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 또한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이거나, 민감한 정치적 이슈와 거리가 있는 사안일 경우 여당과 야당이 공동으로 협력하는 양상 또한 관찰된다.

또 피감기관의 장들은 지극히 원칙중심적이고 관료적인 대응을 한다. 즉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답변하고, 미리 준비한 자료에서 벗어나지 않는 답변을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는 답변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정확하게 모르는 상황에 대하여 부정확하게 답변할 경우 생기는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대응일 수 있다(박홍민, 2002:114).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국정감사의 목적, 참여자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국정감사의 분석 항목과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그간의 커뮤니케이션과 사회학에서의 사회적 권력 관계 차원의 분석, 국회 담화 참여자 역할 관계 분석의 틀, 그리고 일반적으로 논의되어 온 화법 교육의 담화 진행 및 절차, 발화 내용, 발화 태도 분석의 3차원을 고려하여 만든 것이다.

### 1) 형식 및 절차

국정감사는 엄격히 말하여 국회법 상의 회의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회의 진행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공동의 목적인 국정감사를 원활하게 시작하고 지속하며 마무리 짓기 위하여 국정감사의 진행 절차에 협력하여야 한다. 이에 관련된 분석 항목과 판단 기준을 ‘형식’이라고 하는 상위 범주를 설정하여 제시한다. ‘형식’ 범주에 속하는 세부적인 분석 항목과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분석 항목	판단 기준
의사진행 발언	의사진행 발언이 국정감사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기여하는가?
순서 교대	의사소통의 규약, 관습, 예절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에 발언을 시작함으로써 원활한 진행을 돕는가?
발언 시간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하는가?

### 2) 내용

의원과 피감기관 장 혹은 증인의 질의와 답변의 내용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질의와 응답을 통해 국정감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양상을 ‘내용’이라는 상위 범주로 묶어 분석한다. 이에 해당하는 세부적인 분석 항목과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분석 항목	판단 기준
목적성	국정감사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내용을 구성하여 질의하는가?
정보성	국정감사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양의 정보를 다루는가?
논리성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정당화하는가?
사실성	정확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의거하여 발언하는가?
일관성	선행 화제 및 맥락과 관련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전개하는가?

### 3) 표현 및 태도

이 항목은 위의 두 항목에서 포괄할 수 없었던 측면인 언어, 그리고 준·비언어적 표현의 효과성과 이미 형성되어 국정감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정감사 중에 형성되는, 참여자들의 서로에 대한 태도 측면에 대해서 다룬다. 양자 모두 언어적, 준·비언어적 표현에서 드러난다는 점에서 ‘표현’이라는 범주로 분류하였다. 세부적인 분석 항목과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분석 항목	판단 기준
효과성	언어,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을 전달, 설득, 이미지 관리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
관계적 태도	피감기관 및 상대 정당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언어, 준언어, 비언어적으로 적절하게 드러내는가?

## 2.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정치인 화법 분석의 실제

### 1) 형식 및 절차

분석 항목	구분	양상
1-1. 의사진행 발언	바람직한 예	- 의사진행의 효율성 제고 - 피감기관의 성실한 태도 주문
	바람직하지 않은 예	-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이용한 상대 정당 공격
1-2. 순서 교대	바람직한 예	- 교체 적정 지점에서의 발언 - 발언 순서의 협조적 조정
	바람직하지 않은 예	- 발언 순서에 대한 명시적 규칙의 위반 - 일반적인 순서 교대 원리 위반
1-3. 발언 시간	바람직한 예	- 정확한 발언 시간 준수
	바람직하지 않은 예	- 발언 시간 규칙 위반

## 2) 내용

분석 항목	구분	양상
2-1. 목적성	바람직한 예	-적절한 질의 내용 선정 -질의 내용에 맞는 적절한 응답 -구체적 사례를 이용한 상세화 -문제 상황의 요소에 대한 재질문 -상대방 대답의 모순 탐색
	바람직하지 않은 예	-국정감사와 맞지 않는 질의 내용 선정 -추상적인 내용의 질문 -음박지르는 듯한 내용의 질문 -질문과 동떨어진 내용의 대답
2-2. 정보성	바람직한 예	- 필요한 정보의 단계적 제시 -명확한 개념적 정보 제공 -예비 화행 단계 설정 -구체적인 근거를 수반한 입장 설명
	바람직하지 않은 예	- 군더더기 정보 제공 - 상대방이 요구하는 정보의 누락
2-3. 논리성	바람직한 예	- 더 나은 대체 방안을 내세우는 논증 - 상대방의 가정에 대한 반박 논증 - 상대방의 근거에 대한 반박 논증 - 반대 의견에 대한 고려와 그에 대한 반박 논증
	바람직하지 않은 예	-근거와 무관한 결론 도출 -사람 자체에 대한 공격 -두 가지 질문의 결합 -주장과 무관한 사실의 근거화 -지나친 확대 해석
2-4. 사실성	바람직한 예	- 구체적 규정과 관련한 사실성 확보 -적절한 통계의 사용 -적절한 인용
	바람직하지 않은 예	- 명확치 않은 의혹 제기 - 자료 인용 출처와 맥락의 누락 한정된 출처의 자료 사용
2-5. 일관성	바람직한 예	- 연속적이고 체계적인 질의 내용 선정 적절한 제질의 도입
	바람직하지 않은 예	- 정치적 쟁점으로의 질문 내용 전이 병렬식 화제 도입

## 3) 표현 및 태도

분석 항목	구분	양상
3-1. 효과성	바람직한 예	- 강조적 표현 기법의 효과적 사용 은유를 통한 유추 문답법의 효과적인 사용 품위 있는 언어 사용 주문 적절한 어조와 억양의 변화 실물을 활용한 의미의 구체화
	바람직하지 않은 예	- 불필요한 외국어 사용 정제되지 못한 표현의 사용 부적절한 성량과 속도의 사용 상대방을 자극하는 비언어적 표현 사용
3-2. 관계성	바람직한 예	- 피감사기관의 불성실한 태도에 대한 공동 대응 - 상대방과의 생각의 공통점 부각 - 상대방에 대한 긍정적 평가 피감기관에 대한 치하와 배려
	바람직하지 않은 예	- 공격적 심리 상태를 드러내는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사용 - 위협과 비하 인격 모독과 훈계

## 바람직한 예

## ①문답법의 효과적인 사용

여기서 ‘문답법’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는 수사 기법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계속 질문을 함으로써 진리에 접근해 나가는 방식을 의미한다. 단순히 자신이 준비해 온 원고를 발화하는 것을 넘어 피감기관 책임자 및 다른 청자들과 활발한 상호작용을 전개할 수 있다. 이때 자주 활용되는 것이 바로 청중 및 상대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 R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자, 지금 제가 화면 하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N 수석님, 한번 좀 읽어 보시지요.

○ 수석전문위원 N: RH-네거티브.

○ R 위원: L 위원님 보좌진인 것 같은데 여기 젊은 분, 한번 읽어 보십시오.

(○ H 방청석에서 - RH-마이너스……) 어떤 게 맞습니까? 자, 그런 겁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한, 신체가 부자유스러운 분들한테 ‘장애자’라고 부르는 것과 ‘장애인’이라고 부르는 게 어떤 게 맞습니까, 장관님?

○ K 장관: 글썄요.

○ R 위원: 그분들 ‘장애자’라고 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장애인’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저런 경우에도 저 혈액형 가지고 있는 분에게 ‘RH-마이너스’라고 그러면 마치 장애자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이 굉장히 듣기 싫어합니다. ‘RH-네거티브’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아는 분들이 아마 별로 없

을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잘 들어 보십시오. 이 혈액형 보유자, RH-네거티브 보유자가 전체 인구의 한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1000명 중에 한 몇 명 정도가 RH-마이너스일 것 같습니까?

○ K 장관: 굉장히 적다고는 알고 있지만 몇 %인지까지는 모르겠습니다.

○ R 위원: 1000명 중의 한 3.5명입니다.

○ K 장관: 그렇습니까?

○ R 위원: 예, 0.35%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전국 352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파악해 봤더니, 그러니까 전체 352개 고등학교였으니까 총 30만 946명의 학생이었는데요. 466명, 0.16%만이 RH-네거티브 보유자로 저희 의원실에 보고가 됐어요. (중략)

위 사례에서 R 위원은 ‘RH 네거티브 혈액형 보유 학생의 명단 관리를 교육부에서 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궁극적인 제안을 하기까지 R 위원은 질문과 대답을 중심으로 피감기관 책임자는 물론 다른 청자들과도 활발한 상호작용을 전개하고 있다. 질문의 도입 없이 자신의 제안에 대한 배경 설명을 계속하더라도 궁극적인 제안을 전달하는 데는 상관이 없었을 것이지만 굳이 질문의 형식을 취함으로써 두 가지 효과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문답을 통해 궁극적인 제안에 단계적으로 접근함으로써 설득 효과를 높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방적 설명이 갖는 단조로움에서 벗어나 변화를 꾀함으로써 청중의 몰입 효과를 높이는 것이다.

### 3.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정치인 화법 분석의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국정감사에 나타난 정치인들의 질의나 답변의 양상을 크게 ‘형식 및 절차’, ‘내용’, ‘표현 및 태도’ 측면에서 바람직한 예와 바람직하지 않은 예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국정 감사라고 하는 제도적 영역에서 자신과 자신의 집단의 목적을 경쟁적으로 달성하려고 노력하면서도 큰 틀에서 다른 참여자들과 협력하려 노력하는 참여자들의 행동 양식이 ‘바람직한 예’로 분류되었다. 또 자신과 자신이 속한 집단의 목적을 최우선으로 하여 국정 감사의 제도적이고 관습적인 규칙을 무시하거나, 자신의 발언의 내적 완결성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이들과의 관계를 갈등 일변도로 이끄는 등의 양태를 보이는 사례를 ‘바람직하지 못한 예’로 분류하였다. 자세히 각 분야별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국정감사의 형식 및 절차 측면에서 바람직한 발화 양상을 보이는 참여자들은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만들어진 다양한 규칙을 준수한다. 즉, 자신에게 주어진 발언 시간을 준수하고, 담화 표지를 적절히 활용하여 적정 지점에서 발화 순서가 원활하게 교체되도록 하며,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제거하거나 피감기관의 성실한 태도를 주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사 진행 발언을 활용한다. 반면, 바람직하지 않은 발화 양상을 보이는 참여자들은 발언 시간을 지키지 않고, 순서 교대와 관련한 명시적·암시적 규칙을 위반하여 발화 겹침을 초래하며, 상대 정당을 공격하는 용도로 의사 진행 발언 기회를 활용한다. 이로 인해 국정 감사는 여러 번 파행을 겪었

다.

국정감사의 내용 측면에서 바람직한 발화 양상을 보이는 참여자들은 국정감사 본연의 취지와 목적에 맞는 의사소통이 될 수 있도록 상황과 목적에 적절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질의하고 답변한다. 또한 자신의 발화가 의사소통의 목적에 필요한 만큼의 정보량을 담고 타당한 논증 구조를 갖추 수 있도록 한다. 나아가 규정, 통계, 타인의 발언 내용 등을 사실에 부합하게 언급함으로써 발화의 신뢰성을 높이며, 자신의 개별 발화 안에서뿐만 아니라 전후 발화와의 관계 속에서 담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일관성을 확보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바람직하지 않은 양상을 보이는 참여자들은 국정 감사와 관련성이 떨어지거나 구체적이지 않은 내용을 담아 질의하며 질문과 동떨어진 답변을 한다. 또한 상대방이 요구하는 정보의 제공을 회피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논리적 오류를 범한다. 나아가 사실임을 확신하기에 불충분한 출처에 기반하여 발화하거나 자료의 출처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발화의 신뢰성을 확보하지 못하며, 내용의 구조화에 실패함으로써 담화 내적 일관성과 유기성을 구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인다.

국정감사의 표현 및 태도 측면에서 바람직한 발화 양상을 보이는 참여자는 다양한 언어적 표현 기법과 비언어적·준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상대방에게 품위 있는 표현의 사용을 요청함으로써 의사소통의 의미 전달의 효과를 강화하고 자신의 이미지를 제고한다. 또한 필요한 경우 공조, 동의, 긍정적 평가 등을 드러내는 표현을 통해 상대 정당이나 피감기관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조절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면, 바람직하지 않은 발화 양상을 보이는 참여자는 언어·비언어·준언어적 측면에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전달 효과를 떨어뜨리고 자신의 이미지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며 상대 정당이나 피감기관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등 국정감사의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참고할 만한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소통의 제도적·관습적 규칙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한다. 국정감사의 발언 시간, 발언 기회, 의사진행 발언 등은 명시적 규칙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음운적·통사적·화용적 차원의 상대방의 발화가 완료되는 ‘교체 적정 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규칙은 사회 관습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규칙들은 모두 효율적이고 공평한 의사소통을 통해 공동의 목적을 좀 더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니만큼, 국정감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규칙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의사소통에 참여해야 한다.

둘째, 자신의 발화가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점검하며 발화해야 한다. 구두 의사소통 과정은 다양한 변수에 의해 역동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자칫 본래의 목적과 동떨어진 의사소통으로 이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많은 경우 정략적 발언이나 자신의 위신을 세우기 위한 발언은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과 관련성이 떨어지면서도 시간을 소모하게 만들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셋째, 담화의 내적 완결성을 추구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국정감사는 다양한 참여자들의 수많은 개별 질의와 답변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좁게 보면 한 번의 발언 순서에 산출되는 개별 발화 하나하나가 독립된 담화라고도 할 수 있고, 넓게 보면

한 피감기관에 대한 국정감사 전체가 하나의 담화라고도 볼 수 있다. 담화가 내적 완결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미시적인 차원에서는 의미를 정확하게 나타내면서도 정제되고 품위 있는 표현으로 담화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뜻하고, 거시적인 차원에서는 담화의 각 부분이 형식과 의미 차원에서 유기적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담화의 내적 완결성은 곧 정확하고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통한 담화 목적의 달성으로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국정감사의 참여자들은 자신의 개별 발화 자체가 표현과 구조 차원에서 내적 완결성을 지닐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을 철저히 해야 하며 발화의 중간 과정에서도 자신의 발화 수행을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더 높은 완결성을 지닐 수 있도록 조정하여 발화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국정감사 전체 담화의 내적 완결성을 위해 담화의 목적 및 전후 발화와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발화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한다.

넷째, 의사소통 참여자들 간의 원만한 관계 유지가 의사소통 목적 달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여 발화 내용과 표현을 결정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에 대한 평가나 정치적 주장 등에 지나치게 몰입할 경우 자칫 상대 정당이나 피감기관의 관계를 악화시킬 만한 발화를 하는 경우도 많다. 또한 때로는 그러한 발화를 하는 것이 자신의 주장을 더욱 강하게 드러내 주고 상대의 약점을 부각함으로써 자신이 속한 집단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에서 상대방 간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거나 개선을 도모하는 것은 의사소통의 진행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설득력을 높여 준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정감사에서는 상대 정당이나 피감기관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발화는 최소화하고 원만하게 유지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발화는 최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이런 발화는 자신과 자신의 소속 정당의 이미지를 크게 개선하여 국민의 지지도를 높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말하기뿐만 아니라 듣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발화의 내용과 표현을 세심하게 듣는 것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순서 교대 표지와 같은 담화 표지에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적절한 순서 교대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고, 상대방의 논리적 취약점을 파악함으로써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비판적 발언이 논리적 합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해 준다. 또한 앞뒤 발화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여 전체 의사소통에 자신의 발화를 매끄럽게 연결시킴으로써 담화의 내적 완결성을 높여 준다. 또한 상대방의 발화를 잘 들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자신이 넓은 포용력을 지닌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기회가 되며, 이러한 듣기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자신의 생각과의 공통점을 부각한다든가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는 것은 상대방과의 관계 유지에 많은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이 듣기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은 자신의 발화의 완성도를 높이고 원만한 관계를 확보해 줌으로써 국정감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언어와 인성 측면에서 품격 있는 사람’으로서의 이미지를 남음으로써 자신과 자신의 소속 정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피감기관의 당국자를 압박지른다거나 해서, 국회의원 개인이나 소속 정당의 위신을 세운다고 해서, 상대 정당의 약점을

공격한다고 해서, 말과 몸짓으로 상대방을 불쾌하게 만든다고 해서, 국정운영을 바로잡고자 하는 국정감사의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러한 발화 행동은 의사소통의 원활한 진행과 관계의 원만한 설정을 방해함으로써 국정감사의 목적 달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지지도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국정 운영의 개선이라는 근본적인 목적과 국민의 지지도 제고라는 부차적인 소득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정치 공동체 구성원들의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Ⅲ. 인사청문회의 사례별 담화 양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 1. 인사청문회 개관 및 분석 방향

청문회(Hearing)는 어떤 사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 전의 중간 과정으로서 찬반의 주장이나 근거가 되는 사실들을 청취하는 것을 지칭한다. 재판 절차보다 덜 엄격하지만 어느 정도 형식성을 띠며, 지정된 사안에 대해 증인이 증언하거나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진술과 자료를 검토하는 절차를 말한다(박경미, 2010). 청문회는 입법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과정에서 정부에 대한 감독 기능과 국민에 대한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8년 11월 제5공화국 비리조사를 위한 국회 국정 감사권 발동으로 청문회를 연 것이 그 시초이다. 청문회는 증인에게 신문을 한다는 측면에서는 법정에서의 신문을, 그 실황이 방송되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뉴스인터뷰와 비슷한 성격을 지닌다. 청문회는 크게 조사청문회, 입법청문회, 인사청문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청문회 중에서 인사청문회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sup>6)</sup>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sup>7)</sup>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장치로, 공직에 지명된 사람이 자신이 맡을 공직을 수행해 나가는 데 적합한 업무 능력이나 인간적 자질이 있는지를 검증한다. 우리나라의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가 2000년 6월 인사청문회법을 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도입됐다. 인사청문회는 보통 ‘인사청문(임명동의) 요청서 제출 → 인사청문(임명동의) 요청 관련 서류 준비 및 제출 → 인사청문(임명동의) 요청안 제출 → 인사청문회 실시 → 결과 송부 → 인사재가안 결재 및 임명장 수여식’의 진행 과정을 거친다. 국회의 인사 검증 과정은 국회법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 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인사청문회에 대한 연구는 주로 특정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의원들의 질문 전략, 논쟁 전

6) 이는 인사청문회가 대통령의 인사권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 과정을 강화하는 민주적 절차를 보여주고, 정치 담화 중에서도 극명하게 다양한 공방 상황이 드러나기(박미영, 2010) 때문이다.

7) 인사청문회의 대상이 되는 고위 공직자란 헌법에 의해 임명되는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말하는 것으로서 국회의 임명 동의를 요하는 자 또는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를 말한다. 그 외에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검찰총장, 경찰총장, 국무위원 등도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치나 임명동의 표결은 하지 않는다.

략, 공격과 방어 전략 등을 추출하고 이것이 언어 행위 이면에 고도의 형식적이고도 정치적 맥락이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으나(이원표 1998, 2006; 박병석 2006a, 2006b; 손병권, 2010; 박미영, 2010 등), 최근에는 국회가 방대한 속기록 및 영상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인사청문회는 물론 국회 의사소통의 전모를 점검하는 연구들로 점차 확장되고 있다. 사실 그동안 정치 담화를 국어 교육의 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주로 토론이나 설득 화법 분야에서 정치 담화에 등장하는 토론이나 연설을 예시로 담화 분석과 화법 교육에 활용하는 차원으로 접근하였다(민병곤, 2001; 박재현, 2004; 박종훈, 2008 등). 그런데 국어 교육이 갖는 사회적 의미를 강조하며, 김종철(2004)에서는 국어교육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로 국민 개개인이 능동적인 언어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주요한 의제나 관심 있는 의제에 참여하거나 가치 있는 정보의 소통에 참여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꼽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어야 단순히 정부에 의한 계몽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표현의 주체로서 설 수 있는 국민을 위한 국어교육을 하는 것으로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인사청문회와 같은 정치 담화도 국어교육적 시각에서 새로이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의 담화 양상을 살피기에 앞서 분석 관점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사청문회를 하나의 담화 장르로서 규정하고, 인사청문회 담화가 세 가지 담화적 특성과 가치가 있다고 규정한다.

첫째, 인사청문회는 ‘공직 담화’로서의 특징이 있다. 인사청문회 담화는 공직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공식적 제도에서 주고받는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이때 공식적 제도라는 틀은 모종의 절차적 틀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인사청문회는 ‘정치 담화’<sup>8)</sup>로서의 특징이 있다. 인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의 전문적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목적 아래 청문 위원인 국회의원과 후보자 간의 질의 답변으로 이루어지는 담화이다. 특히 인사청문회는 공직자의 정책적 식견이나 사안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과정이면서 동시에 여론이라는 국민 시각을 의식하고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작동되는 담화라는 특징이 있다. 셋째, 인사청문회는 ‘공동체 언어’로서의 가치가 있다. 공직 상황이라는 점, 특히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하는 인사청문회 담화에서는 참여자가 민주주의 사회의 본이 되어야 할 의사소통 방식과 그 언어를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본 연구는 인사청문회가 갖는 공직 담화로서의 절차, 정치 담화로서의 질의 답변 양상, 공동체 언어로서의 관계 태도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사례별로 담화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이에 인사청문회 담화 분석을 위한 기본 틀은 다음 표와 같이 ‘형식 및 절차’, ‘내용’, ‘표현 및 태도’의 세 차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형식 분석 차원에서 담화 진행 및 절차를 분석하고, 내용 분석 차원에서 질의 답변으로서의 발화 내용을 분석하고, 관계 분석 차원에서 발화 태도 및 참여자 간 상호작용의 양상을 분석한다.

8)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정치 담화의 개념은 모든 담화를 정치적으로 보는 광의의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행위자에 의해, 정부의 안팎에서, 정치적 문제에 관해 의사소통하면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일어나는(Graber, 1981) 담화이다. 홍윤기(2011)에 따르면 정치 언어란,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행위들에 투입된 텍스트를 구성하는 말과 글로서, 본래부터 오직 정치 행위를 위하여 특정된 언어 체계나 언어 어휘는 존재하지 않으며, “정치적인 것”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생활 세계 전반에서 활성화되는 각종 언어 표현체와 담화 행위들로 채택되어 “정치적 언어로 변형되는 과정” 즉 “정치언어화”의 소산들이다.

	구분	분석 항목	판단 기준
형식 및 절차	질의/ 답변	① 의사 진행 발언	의사 진행 발언이 청문회 목적에 부합하고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이끄는 데 기여하는가?
		② 순서 교대	의사소통의 규약, 관습, 예절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에 발언을 시작함으로써 원활한 진행을 돕는가?
		③ 발언 시간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하는가?
내용	질의	④ 목적성	도덕성 및 능력 자질을 평가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질의를 초점화하여 제기하는가?
		⑤ 정보성	인사 검증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지나치게 많거나 빈약하지 않은) 양의 정보를 다루는가?
		⑥ 일관성	연속된 질의 과정에서 일관된 논점을 유지하는가?
	답변	⑦ 연관성	질의에서 요구하는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고 있는가?
		⑧ 정보성	질의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표현 및 태도	질의/ 답변	⑨ 효과성	언어,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을 설득, 정보 전달, 이미지 제고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
		⑩ 관계적 태도	질의자와 답변자로서 상대방 입장과 국민의 시각을 고려하여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온당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인사청문회는 해당 인사의 검증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적 담화로서 인사 청문을 수행하는 위원장 및 위원들과 인사 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 후보자로 구성된다. 청문특위에 포함된 위원들은 해당 공직 후보자의 검증을 위해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사전에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직 후보자의 능력과 도덕성을 판단하기 위한 질의를 하게 된다. 또 공직 후보자는 자신이 해당 직에 적합한 사람임을 검증받기 위해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요구받는다. 이 과정은 기본적으로 ‘질의-답변’이라는 대화 연속체로 나타나지만, 공적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형식적 담화라는 측면에서 그에 준하는 절차와 규칙에 제약을 받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사청문회가 공적 상황에 맞는 형식적 제약 아래 담화 목적을 달성하는 방향에서 참여자들의 역할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보고, 인사청문회 담화를 형식적 차원, 담화 내용 차원, 표현 및 태도 차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이는 기존의 청문회 연구들이 정파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비판적 논의(최준영 외, 2008; 최준영, 2008; 손병권, 2010 등)를 벗어나, 담화-의사소통 차원에서 인사청문회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17, 18대<sup>9)</sup> 국회 회의록을 주된 분석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국회 회의록은 이전에는 책자로 인쇄하여 보급하였으나, 2000년 이후에는 국회회의록시스템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속기록은 물론 영상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sup>10)</sup> 본 연구는 회의 속기록과 영상을 동시에 고려하여 담화 분석을 수행하고, 다만 향후 담화 자료를 제시하는 데 민감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구체적 회의 제목, 날짜, 참여자에 대해서는 생략하거나 영문 머릿자로 대체하여 표시하고자 한다.

9) 현재 진행 중인 19대를 제외하고 최근 17대(2004. 5. 30.~2008. 5.29.), 18대(2008. 5.30.~2012. 5.29.) 시기 국회에서 산출된 회의록을 대상으로 한다.

10) 국회 영상 회의록은 회의 속기록과 함께 국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http://w3.assembly.go.kr/>).

## 2. 인사청문회 분석의 실제

본 연구에서는 인사청문회의 의사소통 양상을 잘 포착할 수 있는 분석 항목을 추출하고 그 판단 기준에 따라 적절한 예와 그렇지 않은 예를 유형화하고 이를 사례별로 제시하고자 한다.<sup>11)</sup>

### 1) 형식 및 절차

- 분석 항목: ① 의사 진행 발언
- 판단 기준: 의사 진행 발언이 청문회 목적에 부합하고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이끄는 데 기여하는가?
- 판단 근거: 의회 용어 사전에 따르면, 의사 진행 발언은 회의 진행 과정에서 회의 진행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자기 의견을 개진하기 위한 발언이다. 이는 회의 운영의 실제에서 생긴 것으로서 그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할 수는 없으나 그 발언을 허가하지 않으면 의사를 진행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소위 「규칙 발언」이라 하여 의안 또는 동의나 발언 기타 의사 진행이 회의에 관한 법규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발언과 의장에 대한 질의, 주의 또는 희망을 말하거나 선결동의를 하기 위한 발언 등이 있다. 의사 진행에 관한 발언으로서 의제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등 즉각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다른 발언 통지에 우선하여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발언을 허가하는 시기를 의장이 정한다. 이와 같이 의사 진행에 관한 발언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의사 진행의 발언을 빙자하여 다른 발언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의사 진행에 관한 발언은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태에 대하여 실기(失期)를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미리 통지가 없을 경우라도 의장은 발언을 허가하기 전에 발언 취지를 물어서 무슨 발언인가를 확인하여 발언 허가 시기를 정하여도 무방하다. 의사 진행의 발언은 동의가 아니므로 찬성자가 필요 없으며 표결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발언에 대하여는 의장은 필요에 따라서 답변을 하거나 적당한 조치를 취하면 된다. 의사 진행의 발언이 선결 동의를 하기 위한 것이거나 동의를 성립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1인 이상의 찬성자가 있는가를 물어서 동의가 성립되면 의제로 하여야 한다.

- 바람직한 예

#### ①-1. 일정 촉진

의장이 의사 진행을 적시에 적절하게 주재하지 못할 때, 회원은 의장에게 규칙 발언, 일정 촉진, 특청 등 의사 진행을 적시에 적절하게 주재할 것을 촉구하는 의사 진행 발언을 하여야 한다(김교창, 2012). 의장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지 못할 때 회원은 의장에게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할 수 있다.

11) 분석의 타당성을 위해서는 앞뒤 맥락을 충분히 살필 수 있을 만큼의 텍스트를 제공해야 하나 지면 관계상 일부 사례와 텍스트는 생략하거나 축소하여 제시하고 부족한 부분은 상황 설명으로 대신한다.

### 안전: 18대 ○○ 인사청문회

○ A위원: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법사위에 배속된 지 이틀밖에 안 돼서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료 요구를 의사 진행 발언을 얻어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공중파 TV가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이 공중파 TV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그런 생각이라든가 또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해서 청문회에 임하는가를 보여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 요구 때문에 오전 시간 내에 우리 법사 위원 모두가 1회를 다 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요청은 서면으로 받아서 위원장님께서 판단 하셔서 일괄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식으로 진행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의사 진행 발언은 비교적 적절한 시기에 회의 진행 촉구를 위원장에게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의사 진행 발언의 한 가지 유효한 기능으로 작용한다. B위원 등 여러 위원이 연속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를 요구하며 의사 진행 발언을 행사하면서 청문회가 오래간 공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A위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여러 위원의 지속적인 자료 요구로 정작 뒤의 질의자들이 질의 시간을 확보하지 못함을 지적하고 위원장에게 효율적인 회의 진행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 ①-2. 정회(停會) 청구 (사례 생략)

정회란 의안의 심의 중에 잠시 회의를 중단하는 것이다. 정회를 할 상황으로 다음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정회의 사유에 대하여 국회법은 “회의 중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한 때(국회법 제73조 제3항)”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 유지가 곤란한 경우(국회법 제145조 제3항)”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안전에 대한 이견 조정·휴식·답변 준비·식사 시간의 확보 등의 경우에 정회한다.

청문회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른 상태에서 여당 위원들이 많이 배석하지 않고 야당 위원들이 질의 시간을 요구하자, B위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정회를 청구하고 있다. 이러한 의사 진행 발언은 의안 심의 중 회의가 상당히 진행되어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향후 청문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간사 협의를 위한 시간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 • 바람직하지 않은 예

#### ①-3. 후보자 기선 제압 (사례 생략)

이 의사 진행 발언은 회의 진행 촉구와 무관하게 후보자의 기선을 제압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A위원은 청문회 시작 전부터 후보자의 이전 행적에 대한 사과를 우선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는 청문회 본래의 질의 목적과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전 행적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은 청문회 진행 과정 중에 질의를 통해 그 문제를 거론하면서 후보자의 능력을 판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사과를 우선적으로 요청함으로써 후보자의 기선 제압을 의도한 바가 크다. 이러한 의사 진행 발언에 대해 위원장 및 다른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위원은 재차 사과를 요구하는 의사 진행 발언을 제기함으로써 회의 진행을 전반적으로 더디게 하고 있다.

## ①-4. 상대 당 발언 방해 및 저지

안건: 17대 ○○ 인사청문회

- A위원: 의사 진행 발언을 여러 번 하셨잖아요, C 위원님은.
- B위원: 아, 그러니까 의사 진행 발언 나도 하기로……
- A위원: 내가 요구하고 있는데 왜 중간에 끼어들어요?

이 의사 진행 발언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쓰이기보다는 상대 당 발언을 저지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다. 여당 A위원의 ‘제가 한 번도 의사 진행 발언을 안 했는데요.’ 발언처럼 의사 진행 발언을 회의 진행과 무관하게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해 필요 시 쓸 수 있는 발언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야당 B위원도 ‘그러면 저도 의사 진행 발언 또 하겠습니다.’로 상대 당 위원을 공략하기 위한 방어 전술로 사용할 의도를 비치고 있다. 보통 회의의 의사 진행은 위원장에게 일임하는데, 청문회의 특성상 각 당이 회의 진행에서의 우선권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의사 진행 발언을 과도하게 사용함으로써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고 있다.

## ①-5. 정해진 발언 시간 외에 발언 기회 확보 (사례 생략)

- 분석 항목: ② 순서 교대
- 판단 기준: 의사소통의 규약, 관습, 예절에 비추어 적절한 시점에 발언을 시작함으로써 원활한 진행을 돕는가?
- 판단 근거: ‘순서 교대의 원리’에 의하면 일상 대화에서 발화 순서의 교체는 이른바 ‘교체 적정 지점(Transition Relevance Place)’에서 일어난다. Ford & Thompson(1995)에 의하면 교체 적정 지점은 대화에서 완전한 절 등을 경계로 하는 통사적 완결, 음향적인 음조의 형(pitch pattern)이 하나의 운곽을 가지며 현저한 휴지가 나타나는 단위를 경계로 하는 억양적 완결, 내용적으로 한 화자의 발화가 완결되는 화용적 완결 등이 일어나는 지점이다(양영하, 2007: 24-25 재인용). 이에 비해 회의와 같은 공적 담화에서 발화 순서의 교체는 일상 대화보다 더 엄격하게, 사전 정의된 규칙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김교창(2012: 107)에 따르면, 발언이란 회의에서 구두로 의견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회원에게는 고유권으로서 회의에서 발언할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 일반 회의 규칙은 회원들이 골고루 원만하게 발언권을 행사하도록, 발언권의 신청과 허가라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국회법 99조) 이런 절차가 없으면 회원들이 앞 다투어 발언하려 할 때에 이를 제어할 수 없다.

일단 허락을 얻어 발언을 시작한 사람의 발언은 도중에 중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국회법 100조). 누구든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발언을 시작하는 것은 규칙 위반이다. 그렇게 발언을 시작하려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장이 즉시 발언의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그래도 중지하지 아니하면 퇴장을 명하여야 한다.(상법 제 366조의 2제3항). 중지와 퇴장을 명하는 것은 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이다.

- 바람직한 예

### ②-1. 담화 표지 및 완결 표현으로 순서 교대 표시 (사례 생략)

질의자 A위원은 질문의 시작과 끝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과 같은 명확한 담화 표지를 사용하거나, 매 발언 시 본격적인 질의는 억양적·통사적·화용적 완결성을 띠는 표현을 마지막에 위치시켜 답변자가 정확히 질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게 돕고 있다. 이러한 질의자의 발언 양상은 상대 참여자로 하여금 정확한 발화 교체 지점을 인식하게 하여 발언 간 중복을 막고 순서 교대를 원활하게 이끌 수 있게 한다.

- 바람직하지 않은 예

### ②-2. 발언 진행 방해 (사례 생략)

### ②-3. 질의·답변 중 끼어들기

안건: 17대 ○○ 인사청문회

- A위원: 제가 이것을 누가 작성했는지도 알겠어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 B 후보자: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
- A위원: 적어도 먼저 질문을 들어야 답변을 하실 것 아닙니까?
- B 후보자: 그러니까 그 경위가 어떻게 해서 그리 된 것이냐……
- A위원: 후보자님, 잠깐만요. 제가 답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 C 위원장: 후보자!
- B 후보자: 예.
- C 위원장: 위원님 질의가 다 끝나면, 답변하시라고 그러면 그때 답변하세요.

사실 청문회는 시간 제한을 두고 신문 형태의 질의·답변이 오고 가므로 충분히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시간을 갖기 어렵다. 특히 답변자는 다소 일방적으로 질의자의 시간 배분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더욱 충분히 해명할 시간을 갖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참여자 상호간 충분히 발화를 듣지 않고 질의·답변을 성급히 하려하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답변자 B 후보는 질의자의 발언이 모두 끝나기 전에 답변 발언을 여러 차례 시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순서 교대가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자 C 위원장이 나서서 중재하고 있다.

- 분석 항목: ③ 발언 시간

- 판단 기준: 허용된 범위 내에서 시간을 준수하여 발언하는가?

• 판단 근거: 김교창(2012: 109)과 국회법에 따르면, 회원은 하나의 의안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국회법 제 103조). 단 제안설명, 질의와 정보 요구, 이에 대한 답변 및 의사 진행 발언은 위 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국회의 경우 발언을 원하는 위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15분의 범위 안에서 각 위원의 첫 번째 발언 시간을 균등하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국회법 제50조). 회의장에서 의원에게 발언을 허가하는 경우에도 발언 시간을 무제한으로 허용할 수는 없으며, 시간상의 범위를 정하여 발언이 허용된다. 국회법은 일반 안전에 대한 의원의 발언 시간은 원칙적으로 1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국회법 제104조 제1항) 발언의 성질이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발언 시간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① 의사 진행 발언·신상발언 또는 보충발언 시간은 5분을 초과할 수 없다(국회법 제104조 제1항 단서).

②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론 발언 시간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국회법 제104조 제1항 단서).

의원이 발언이 그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계속될 경우 의장은 의사정리권에 근거하여 그 발언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국회법 제145조 제2항), 의원이 시간 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국회법 제104조 제6항).

발언 시간은 일반적으로 전자자동 ‘타이머’에 의해서 측정하며 시간이 모두 경과하면 타이머에 의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진다.

• 바람직한 예

③-1. 발언 시간 준수 및 효율적 사용 (사례 생략)

이 청문회 진행을 위한 질의 시간은 오전 질의와 오후 질의는 각각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이후의 보충질의는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질의 시간만 5분의 범위 내에서 한 번 허용하되 추가로 필요한 경우 간사 간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했다. 보통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이 초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도록 되어 있다.

질의자 A위원은 한정된 청문회 진행 시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처음에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발화로 질의 횟수를 답변자에게 알리고, 그에 맞추어 적절한 시간을 안내하여 질의하고 있으며 답변자에게도 필요한 정도의 적절한 답변 시간을 제공하고 있다. 답변자의 답변이 길어질 경우에는 적절히 조정하여 답변에 필요한 정보만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간 안내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질의와 답변을 중간중간 요약하여 질의·답변의 초점이 흐려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또한 A위원은 정해진 질의 시간을 정확히 지켜 예고한 횟수의 질의를 마치고 있으며, 이후 부족한 질의와 답변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때 질의할 것을 마지막 발언에서 정확히 밝히고 있다.

• 바람직하지 않은 예

③-2. 발언 시간 초과 및 답변 기회 미제공 (사례 생략)

③-3. 의사 진행 발언으로 시간 지연 (사례 생략)

## 2) 내용

• 분석 항목: ④ 목적성

• 판단 기준: 도덕성 및 능력 자질을 평가하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질의를 초점화하여 제기하는가?

• 판단 근거: <인사청문회법> 제5조 1항

• 바람직한 예

④-1. 후보자의 능력 자질을 중심으로 질의하기 (사례 생략)

④-2.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질의하기 (사례 생략)

- 바람직하지 않은 예

#### ④-3. 자질 검증과 무관한 내용을 질의하기

후보자의 인사 검증을 위해서는 사실에 입각한 자료를 바탕으로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질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검증 목적에 부합하는 질의 대신 과거 행적에 대한 질의자의 문책성 발언은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를 떨어뜨리므로 자제해야 한다.

안건: 18대 ○○ 인사청문회

- A위원: B후보자가 특임장관이 되면 오히려 여야 소통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 B후보자 : 저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A위원: 언론악법 날치기에 앞장선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할 용의는 없습니까?

A위원은 후보자의 도덕성 및 능력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에서 과거 후보자의 잘못된 행적을 계속적으로 추궁하면서 장관직을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으며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후보자의 능력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질의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추궁하는 식의 질의는 인사 검증 질의로 바람직하지 않다.

#### ④-4. 후보자를 편파적으로 지원하면서 질의하기 (사례 생략)

- 분석 항목: ⑤ 정보성
- 판단 기준: 인사 검증 목적에 비추어 적절한 (지나치게 많거나 빈약하지 않은) 양의 정보를 다루는가?
- 판단 근거: 그라이스(Grice)의 대화 협력 원리(양의 격률을 위반하지 않고 대화에 협력하는가?)에 따르면, 의사소통할 때에는 상호 간 필요한 만큼의 정보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상대방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제한된 시간 안에 다량의 정보를 한꺼번에 제시하는 것은 전달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청자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법 제7조 4항에 따르면, “위원회에서의 질의는 1문1답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일괄 질의 등 다른 방식으로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의 질문에는 하나의 답변을 요구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인사 검증에 필요한 정보의 양은 사전 정보에 대해 상대방의 이해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이면서 점진적으로 질의하거나 후보자가 답변하는 데 반드시 알아야 할 개념을 포함하여 질의하는 경우로 한정하여 분석하였다.

- 바람직한 예

#### ⑤-1. 후보자의 사전 이해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질의하기 (사례 생략)

인사 검증을 위한 질의를 할 때, 시간적인 제약 안에서 원하는 대답을 얻을 수 있는 방향에서 질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질의자는 후보자에게 사전에 동의를 구해야 할 일이 있거나 답변과 관련하여 미리 이해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질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A위원은 대법관 후보자에게 한미FTA에서 ISD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나라 사법권 침해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 있다. 예민한 사안인 만큼 후보자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한미 FTA의 법적 효력 이해’, ‘헌법 101조 1항 내용 확인’, ‘앞서 언급한 사례의 위헌 가능성’ 등에 대해 단계적으로 질문하고 있다. 이 같은 방식은 한미 FTA 조약에 따른 우리나라 사법권 침해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 방식으로 적절하다.

#### ⑤-2. 답변에 필요한 사전 정보를 제시하면서 질의하기 (사례 생략)

질의자가 알고 있는 사실이나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후보자의 답변을 듣게 되면, 결국 후보자를 질타하거나 답변에 대해 반박하는 시간이 길어진다. 이럴 경우, 제한된 시간 안에 필요한 질의를 할 수 없게 되어 결국 효율적인 인사 검증이 어려워진다. 따라서 질의자는 사전에 알고 있는 사실이나 정보를 답변자와 공유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질의하는 것이 적절하다.

A위원은 후보자의 재산 증식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먼저 재산 목록 현황 작성 시기를 확인한 뒤, 자신이 조사한 기준 시가에 대한 정보를 이야기하면서 후보자의 재산 신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 신고의 문제를 곧바로 지적하지 않고, 사실 확인 및 사전에 조사한 내용을 언급해 주는 것은 질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 • 바람직하지 않은 예

#### ⑤-3. 질의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일반적 견해를 장황하게 제시하기 (사례 생략)

#### ⑤-4. 맥락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나 비유를 장황하게 제시하기 (사례 생략)

#### ⑤-5. 한꺼번에 많은 답변을 요구하기 (사례 생략)

후보자에게 명확한 답변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질의 역시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 분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같은 의도에서 묻는 질의라 할지라도 한꺼번에 여러 개의 질의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A위원은 민법 개정으로 인해 자신의 성씨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성씨 개정’ 문제와 관련하여 후보자에게 ‘이혼 가정의 자녀들만을 지나치게 배려한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질의와 종중의 문제들이 있다는 점을 동시에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있는지를 묻고 있다. ‘성씨 자율 개정’으로 인해 빚어지는 문제점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문과 이러한 문제와 관련하여 연구가 진행되었는지를 동시에 질의함으로써 답변자가 질의자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재질의 하는 상황이 나타났다. 이처럼 한꺼번에 두 가지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 방식은 질의 의도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답변자의 이해를 저해하므로 적절하지 않다.

#### • 분석 항목: ⑥ 일관성

#### • 판단 기준: 연속된 질의 과정에서 일관된 논점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질의하는가?

• 판단 근거: 인사청문회는 단번의 질의-답변 구조라기보다, 하나의 화제를 가지고 연속적인 질의 과정이 나타나므로 연속된 질의 과정 속에서 논점이 일관되는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때 연속된 질의는 동일한 사람이 여러 질문을 연속적으로 질의하는 방식일 수도 있

고,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자 간의 일관성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대화 분석의 일관성을 논의한 이론적 논의들에 터한다.<sup>12)</sup> 담화에 대한 이해는 의사소통 참여자들이 일관성을 성취하기 위해 공유된 의미를 사용하는 하나의 실용적 행위라고 본다. 여기서는 이러한 관점에 터하여 질의자의 발화가 하나의 목적 아래 연속성을 가지는지와 질의자 간의 발화가 선행 화제와 일관성을 가지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바람직한 예

**⑥-1. 일관된 논점에서 질의하기 (사례 생략)**

인사 검증 질의 과정은 하나의 질문과 하나의 답변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의 목적 아래 질의 연속체들이 이어지기도 하고, 답변자의 답변에 따라 새로운 질의가 구성되기도 한다. 이때 질의자는 자신의 애초 목적에 입각하여 질의 논점이 일관되도록 질의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시간 제약으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한 경우, 보충 질의 시간에 이전 발화 내용을 요약하고, 내용을 초점화하여 재질의할 수 있어야 한다.

**⑥-2. 질의자들이 동일 화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기 (사례 생략)**

질의자들은 질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간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사 검증에 필요한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질의 순서에 대한 협조는 물론 앞선 질의자가 얻은 정보를 활용하고 이어가는 공동 질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인사청문회가 시간 제약 속에서 인사 검증을 철저히 해야 하므로, 질의자들이 동일한 질의를 반복하기보다는 앞선 질의자의 질의와 후보자의 답변 내용을 토대로 질의가 심도 깊게 집중적으로 개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바람직하지 않은 예

**⑥-3. 질의의 논점 이탈 (사례 생략)**

**⑥-4. 동일 화제에 대한 상반된 논점 제시 (사례 생략)**

- 분석 항목: ⑦ 연관성

- 판단 기준: 질의에서 요구하는 목적과 의도에 부합하는 답변을 하고 있는가?

- 판단 근거: 대화의 협력 원리, 관련성의 원리

- 바람직한 예

**⑦-1. 질의 목적에 관련 있는 내용 제공 (사례 생략)**

- 바람직하지 않은 예

**⑦-2. 질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불투명하고 부정확한 답변 제공**

12) 리틀존, 포스/김흥규 역, <대화 분석-일관성에 대한 실용적 접근>-커뮤니케이션 이론, pp246-250 참조.

안건: 17대 ○○ 인사청문회

- A위원: 79년 12.12사태나 5월 광주민주화운동을 어떻게 보십니까?
- B후보자 : 광주민주화 항쟁사건은 제가 당시에 목포지청에 근무하면서 경험을 해서 알고 있습니다.
- A위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질의자 A위원은 역사적 사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고 있는데, 답변자 B는 질의 목적이나 의도와 맞지 않게 표면적인 사실 정보만으로 답변하고 있다. 이러한 답변을 하다 보니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처럼 질의자가 불필요하게 재차 그 견해를 묻는 후속 질의를 하게 되어 전체적으로 답변을 통해 후보자의 견해나 능력을 확인하는 데 이르지 못하고 있다.

- 분석 항목: ⑧ 정보성
- 판단 기준: 질의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 판단 근거: 대화의 협력 원리, 관련성의 원리
- 바람직한 예

#### ⑧-1. 연속적 질의에도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답변 제공 (사례 생략)

- 바람직하지 않은 예

#### ⑧-2. 정보성이 떨어지는 의례적 답변 제공 (사례 생략)

답변자는 상대 당 위원의 질의에 공손하게 답변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답변은 질문에 대한 정보성이 부족하다. 즉 제도나 정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부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럼 의례적인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고 정치 철학을 살피고자 하는 청문회의 원래 목적에 기여하지 못한다.

#### ⑧-3. 답변 회피 (사례 생략)

답변자는 질의에서 요구하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A위원의 공격적이고 집요한 질문에 제대로 된 답변을 하고 않고 발뻘식 발화를 지속하고 있다. 즉, ‘그거 제가 잘 모르는데……’, ‘그런 것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 운인데요.’ 등과 같이 불투명하고 비논리적인 답변으로 질의에 대해 대응함으로써 청문회의 질의 공격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 ⑧-4. 답변 유보

안건: 제18대 ○○ 인사청문회

- A후보자 : 제가 그것은 좀 구체적인 맥락을 잘 몰라서 지금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 A후보자: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A후보자: 제가 아직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검토해 보지 못해 가지고 지금 즉석 대답을 드리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상대 당 위원인 B위원으로부터 곤란한 질의에 대체로 즉답을 피하고 답변자는 ‘연구하겠다’, ‘고민해보겠다’ 정도로 답변을 유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사전선거운동이다 이렇게 규정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수도권 과밀을 막아야 된다는 것에는 다 공감대가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등처럼 오히려 질의자에게 반문을 함으로써 정확한 답변을 피하면서 질의 공격을 벗어나려 하고 있다.

#### ⑧-5.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 제공 (사례 생략)

#### 3) 표현 및 태도

- 분석 항목: ⑨ 효과성
- 판단 기준: 언어, 준언어, 비언어적 표현을 설득, 정보 전달, 이미지 제고 등의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는가?
- 판단 근거
- 바람직한 예

#### ⑨-1. 질문 의도와 관련된 비유적 사례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질의하기 (사례 생략)

#### ⑨-2. 자료를 활용하면서 효과적으로 질의하기 (사례 생략)

제한된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질의하기 위해서는 시청각 자료를 활용하는 것도 적절한 하나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주로 고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견해를 얻기 위해 질의하거나 후보자의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엄청난 양의 자료에 입각하여 질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사안에 관련된 사실이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거나 관련 증거 자료를 직접 보여주는 것은 질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A위원은 후보자의 재산 증식에 대한 의혹을 검증하기 위해 수입지출현황표와 예금증감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표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시간 흐름에 따른 복잡한 수치의 변화를 정리하여 보여줌으로써 재산 의혹 부문에 대한 질의가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다.

#### ⑨-3. 질의의 핵심 정보를 구조화하여 답변하기 (사례 생략)

효과적인 답변을 위해서도 그에 맞는 전략이 활용될 수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요구하는 효과적인 답변이란 질의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여 질의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답변자는 먼저 질의자가 질문하는 이유, 질의 요점, 질의 방식을 살펴면서 질의자의 정확한 의도를 살펴야 하고, 그에 맞춰 일목요연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한다.

A위원이 후보자에게 사법부에서 가장 시급하게 개혁해야 할 대상에 대해 질의하자, 후보자는 자신이 생각하는 개혁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제시한 뒤, 규정한 개념에 따라 가장 시급하게 개혁해야 할 부분이 ‘국민을 위해 사법부의 통로를 여는 것’이라는 핵심 정보를 제공한다. 이 같은 답변은 질의자가 묻고자 한 내용을 정확하고 짜임새 있게 전달함으로써 정보 전달의 효과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 ● 바람직하지 않은 예

##### ⑨-4. 외래어 및 전문어의 남용 (사례 생략)

언어적 표현 차원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주로 외래어와 전문어를 남용하는 사례에서 찾을 수 있다. 전문어의 경우, 영어 약자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해당 용어의 글자를 따서 축약어로 진술하게 되면, 해당 분야를 잘 알지 못하는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 내용을 설명할 때 한국어로 표현하지 않고 외래어를 그대로 남발하는 것은 국가 고위직을 겸증하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표현 태도라 할 수 있다.

##### ⑨-5. 바람직하지 않은 비언어적 표현 사용 (사례 생략)

이 같은 유형은 질의에 활용하기 위해 준비한 자료를 질의자가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하고 원고를 읽거나 턱을 고이고 질의하거나 후보자에게 손가락질을 하면서 질의하는 등의 비언어적 행동에서 발견된다. 질의에 필요한 정보가 많더라도 해당 정보를 효과적으로 압축하여 설명하지 못한다면, 후보자에게 무슨 내용을 질의하려는지 의도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무의식적으로라도 질의 중에 턱을 고이는 행동은 보는 이로 하여금 성의 없고 불성실한 태도로 비춰질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손가락을 가리키는 행위 등은 질의자의 거만하면서도 공격적인 태도를 드러내는 것으로써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비언어적 태도들은 공격적인 담화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 ● 분석 항목: ⑩ 관계적 태도

- 판단 기준: 질의자와 답변자로서 상대방 입장과 국민의 시각을 고려하여 서로 존중하는 태도를 온당한 방식으로 드러내고 있는가?

- 판단 근거: 발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 규정은 모든 의사소통 상호 작용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때 관계적 의사소통은 대개 상호 간의 권위와 친밀도라는 두 영역을 통해 정의된다. 인사청문회가 공적 상황에서 질의-답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담화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청문회에서는 참여자 간의 친밀도보다는 권위를 통해 관계적 태도를 규정지을 수 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드러나는 질의자의 권위는 인사 검증을 평가하는 역할에서 비롯된 것이어서 답변자의 권위보다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인사 청문회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규정된 역할에 따른 권위라는 것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즉, 질의자는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답변자 역시 인사 검증을 위해 성실하게 답변함으로써 해당 직무에 합당한 자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아울러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자는 인사 검증이라는 담화의 목적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답변자의 체면을 손상시키게 된다. Brown & Levinson(1990)에 따르면, 사람들은 의사소통 중에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언어적 기제를 활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공손성을 표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바람직한 예

⑩-1. 상대의 체면위협행위를 보상해 주면서 질의하기 (사례 생략)

A위원은 질의에 앞서 후보자의 경력을 들어 B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서 충분한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발언한 뒤, 국민을 대표해서 질의를 하겠다고 표명하였다. 이 같은 표현은 질의를 통해 답변자의 체면을 위협하게 되는 상황에서 질의자가 상대방의 적극적 체면(인정받고 싶은 욕구)을 보상해 주는 언어적 기제를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국민을 대표해서’라는 표현을 통해 자신의 질의가 인사 검증이라는 공적 목적에 따른 역할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는 청문회라는 담화 특성에 맞는 관계적 상호작용을 의식한 진술이라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⑩-2. 질의자로서의 예의를 갖추면서 질의하기 (사례 생략)

⑩-3. 질의자의 새로운 정보에 대해 존중하며 답변하기 (사례 생략)

• 바람직하지 않은 예

⑩-4. 상대방 발언을 비꼬는 듯한 태도

인사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청문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권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는 관계적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 예컨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나 행적에 대해 직설적으로 비난하거나 비꼬는 발언을 하는 질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안건: 18대 ○○ 인사청문회

- A위원: B후보자께서 오늘은 우왕청심환을 많이 드시고 오셨나 봅니다. (생략)  
이것은 저는 오만의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국민 앞에 사과하기를 촉구 드립니다.
- B후보자 : 지금 A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제가 무슨 그것이 잘했다 잘났다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만해서가…… (생략)
- C위원: ◇◇당 C 위원입니다. 오늘은 우왕청심환 안 드시고 오셨습니까?

A위원은 “오늘은 우왕청심환을 많이 드시고 오셨나 봅니다.”, “이것은 저는 오만의 극치라고 생각을 합니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또 C위원은 질의하는 과정에서 ‘우왕청심환을 안 드셨느냐’, ‘날치기 처리’와 같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후보자를 ‘비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 같은 표현은 공적 상황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⑩-5. 경어를 사용하지 않고, 훈계식으로 비난하는 발언 태도 (사례 생략)

인사 검증을 목적으로 하는 청문회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권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의 체면을 위협하는 행위는 관계적 차원에서 적절하지 않다. 예컨대, 후보자에게 경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답변에 대해 공격적이고 훈계하는 식의 질의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⑩-6. 답변 기회를 주려 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질문만 늘어놓기 (사례 생략)

청문회 상황에서는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후보자의 도덕성과 능력에

대한 자질을 평가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질의자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는 질의를 제시해야 한다. 상대방의 답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질문만 늘어놓는 것은 청문회 담화 목적에 어긋나는 소통 방식이자 후보자에 대한 무례한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질의자는 자신의 질의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들으면서 후보자를 검증해야 하는데, 제한된 시간을 운운하며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 더욱이 발언 기회를 요구하는 태도 이를 거절하고 연속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인사청문회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⑩-7. 직설적으로 비판하면서 질의하기 (사례 생략)

### 3. 인사청문회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인사청문회를 ‘형식 및 절차’, ‘내용’, ‘표현 및 태도’의 세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적절한 예와 그렇지 않은 예로 추출된 양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형식 및 절차의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별 양상이 유형화되어 나타난다.

분석 항목		구분	양상
질의·답변	① 의사 진행 발언	적절한 예	- 일정 촉진 - 정회(停會) 청구
		적절하지 않은 예	- 후보자 기선 제압 - 상대 당 발언 방해 및 저지 - 정해진 발언 시간 외에 발언 기회 확보
	② 순서 교대	적절한 예	- 담화 표지 및 완결 표현으로 순서 교대 표시
		적절하지 않은 예	- 발언 진행 방해 - 질의·답변 중 끼어들기
	③ 발언 시간	적절한 예	- 발언 시간 준수 및 효율적 사용
		적절하지 않은 예	- 발언 시간 초과 및 답변 기회 미제공 - 의사 진행 발언으로 시간 지연

둘째, 내용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별 양상이 유형화되어 나타난다.

분석 항목		구분	양상
질의	④ 목적성	적절한 예	- 후보자의 능력 자질을 중심으로 질의하기 -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을 위해 질의하기
		적절하지 않은 예	- 자질 검증과 무관한 내용을 질의하기 - 후보자를 편파적으로 지원하면서 질의하기
	⑤ 정보성	적절한 예	- 후보자의 사전 이해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질의하기 - 답변에 필요한 사전 정보를 제시하면서 질의하기
		적절하지 않은 예	- 질의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일반적 견해를 장황하게 제시하기 - 맥락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나 비유를 장황하게 제시하기 - 한꺼번에 많은 답변을 요구하기
	⑥ 일관성	적절한 예	- 일관된 논점에서 질의하기 - 질의자들이 동일 화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기
		적절하지 않은 예	- 질의의 논점 이탈 - 동일 화제에 대한 상반된 논점 제시
답변	⑦ 연관성	적절한 예	- 질의 목적에 관련 있는 내용 제공
		적절하지 않은 예	- 질의 목적에 맞지 않는 불투명하고 부정확한 답변 제공
	⑧ 정보성	적절한 예	- 연속적 질의에도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답변 제공
		적절하지 않은 예	- 정보성이 떨어지는 의례적 답변 제공 - 답변 회피 - 답변 유보 -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답변제공

셋째, 표현 및 태도의 차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별 양상이 유형화되어 나타난다.

분석 항목		구분	양상
질의답변	⑨ 효과성	적절한 예	- 질문 의도와 관련된 비유적 사례를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질의하기 - 자료를 활용하면서 효과적으로 질의하기 - 질의의 핵심 정보를 구조화하여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은 예	- 외래어 및 전문어를 남용 - 바람직하지 않은 비언어적 표현 사용
	⑩ 관계적 태도	적절한 예	- 상대의 체면위협행위를 보상해 주면서 질의하는 경우 - 질의자로서의 예의를 갖추면서 질의한 경우 - 질의자의 새로운 정보에 대해 존중하며 답변하는 경우
		적절하지 않은 예	- 상대방 발언을 비꼬는 듯한 태도 - 경어를 사용하지 않고, 훈계식으로 비난하는 발언 태도 - 답변 기회를 주려 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질문만 늘어놓기 - 직설적으로 비판하면서 질의하기

청문회의 ‘형식 및 절차’ 측면에서 적절한 질의·답변 양상은 발언 시간을 준수하며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답화 표지나 완결된 질의·답변 표현으로 순서 교대를 명확히 표시한다. 이와 함께 의사 진행 발언을 일정 촉진이나 정회 청구 등과 같이 회의 진행을 원활히 하는 데 사용한다. 반면, 적절하지 않은 질의·답변 양상은 다른 이의 발언 진행을 방해하고 질의·답변 중 끼어들기하며,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여 답변자에게 답변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질의를 던지거나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의사 진행 발언으로 시간을 지연하기도 한다. 의사 진행 발언도 원래의 목적과 달리 상대 당과 후보자를 기선 제압하거나 상대 당 발언을 방해하거나 저지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나아가 정해진 발언 시간 외에 질의 기회를 확보하려는 잘못된 양상도 보인다.

청문회의 ‘내용’ 측면에서 적절한 ‘질의’ 양상은 청문회 원래 목적대로 후보자의 능력 자질·도덕성을 중심으로 질의하는 경우, 후보자의 사전 이해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질의하거나 답변에 필요한 사전 정보를 제시하면서 질의하는 경우, 일관된 논점에서 질의하거나 두 명 이상의 질의자들이 동일 화제에 대해 심도 있게 질의하는 경우 등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적절하지 않은 질의 양상은 자질 검증과 무관한 내용을 질의하거나 후보자를 편파적으로 지원하면서 질의하는 경우, 질의와 직접적인 관련 없는 일반적 견해나 맥락에 부합하지 않은 사례나 비유를 장황하게 제시한 경우, 한꺼번에 많은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청문회의 ‘내용’ 측면에서 적절한 ‘답변’ 양상은 질의 목적에 관련 있는 내용을 피하지 않고 제공하고 연속적 질의에도 핵심 정보를 중심으로 명료하게 답변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와 비교하여 적절하지 않은 답변 양상은 원래 질의 목적에 맞지 않게 불투명하고 부정확하게 답변하는 경우, 정보성이 떨어지는 의례적 답변만 하거나 아예 답변을 회피·유보하는 경우,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답변한 경우 등이 두드러진다.

청문회의 ‘표현 및 태도’ 측면에서 적절한 질의·답변 양상은 질문 의도와 관련된 비유적 사례나 자료 등을 사용하여 효과적으로 질의한 경우, 질의의 핵심 정보를 구조화하여 답변하는 경우 등은 발화의 효과적인 면에서 유용하다. 또한 상대의 체면을 살리면서 질의하는 경우, 질의자로서의 예의를 갖추면서 질의한 경우, 질의자의 새로운 정보에 대해 존중하며 답변하는 경우 등은 관계적 태도 면에서 적절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적절하지 않은 질의·답변 양상은 외래어 및 전문어를 남용하거나 비언어적 표현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 효과적이지 않다. 이와 더불어 상대방 발언을 비꼬는 듯한 태도, 경어를 사용하지 않고 훈계식으로 비난하는 발언 태도, 답변 기회를 주려 하지 않고 연속적으로 질문만 늘어놓는 경우, 직설적으로 비판하면서 질의하는 경우 등은 적절하지 않은 발화 태도라 할 수 있다.

적절한 예와 그렇지 않은 예는 각 분석 항목의 판단 기준에 따른 것으로 전체적인 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때는 그 평가가 달라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하나의 분석 기준에서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은 발화는 다른 측면에서도 유사한 평가를 받는다.

그런데 적절하지 않은 예는 청문회와 같이 정쟁이 오고가는 회의에서 정략적 측면에서는 유용한 전술로 활용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즉, 질의자 입장에서는 막말과 고성조차도 상대 당 위원과 후보자들을 기선 제압하며 자신의 입장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편이고, 답변자 입장에서는 답변 회피와 유보도 당장의 곤혹스러운 상황을 넘길 수 있는 방편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정략적 선택이 일시적 효과는 있을 수 있으나 다수의 국민 눈과 장기적 방향은 아니라는 점이다. 국회의 의사소통 기본을 지키지 않는 방식은 국회 구성원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제해야 한다.

국회 담화는 단순히 국회 구성원을 위한 의사소통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국회 담화는 정치에 가담한 구성원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아래 있는 구성원에게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적절한 담화 양상은 인사청문회의 의사소통 문화를 형성하는 하나의 본이 될 수 있어야 하고 참여자는 이를 기본으로 준수하면서 자신이 목표로 하는 전략적 강구를 모색할 수 있는 것이다.

## Ⅶ. 결론

우리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화법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국회 회의, 국정 감사, 청문회로 유형화하여 분석하고 이를 통해 국회 담화의 바람직한 화법의 지침을 도출하였다. 분야별 화법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국회 담화를 살펴본 까닭은 국회라는 곳이 현대 사회의 복잡한 현안 문제를 가장 민주적인 토론 방법을 통해 해결해야 할 집단이고 대한민국의 각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 지도자가 모인 집단이기 때문이다. 또한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담화는 방송 등 매체를 통해 공개되므로 사회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국회 담화는 단순히 국회 구성원을 위한 담화 공동체로서의 위상을 뛰어넘는다. 국회 담화는 정치에 가담한 구성원뿐만 아니라 정치적 영향력 아래 살아야 하는 구성원에게도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국회 담화 공동체는 정치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구성원 간의 상호 적응 및 신뢰 속에 이루어져야 할 역동적인 정치 담화 공동체로서의 위상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회 담화 유형 세 가지를 화법 및 담화 분석 이론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국회 담화로서 바람직한 양상과 그렇지 않은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바람직한 양상은 국회 담화의 위상에 기여하는 사례이므로 바람직한 국회 담화(언어) 문화를 형성하는 본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바람직하지 않은 양상들은 국회 담화 및 구성원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에서 새로운 소통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회 담화는 특정 목적 아래 이루어지는 공식 담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회 담화의 맥락으로 작용하는 바, 맥락에 부합하는 방향에서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회의 회의는 공정한 진행과 함께 신속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이중의 부담을 안고 있다. 따라서 회의 참여자는 회의의 규칙과 절차를 준수하고 의장의 진행에 따라 논의를 지속해 나가게 된다. 이때 의장은 회의의 주제와 취지를 효과적으로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될 수 있으면 예정된 발언 순서와 시간을 지키도록 하되 상황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회의는 정보의 집적이라 불릴 정도로 많은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회의 시작 전에 회의와 관련하여 모두가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한 정보의 공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정보 제공에 대해서는 의장이 조율하되 공정한 진행을 위해 의장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중립성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회의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발언자들을 격려하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합의된 지점을 분명히 제시하여 발전적 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진행의 입장에서 회의가 지연되거나 답보 상태를 반복하는 경우 문제 해결의 방법이 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합의를 거쳐 객관적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도할 필

요가 있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피감기관의 행정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하며 입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제한된 시간 내에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예컨대 주어진 발언 시간을 준수하고, 담화 표지를 활용하여 발화 순서가 원활하게 교체되도록 하며,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피감기관의 성실한 태도를 요구하기 위해 의사 진행 발언을 활용한다. 또한 상황과 목적에 알맞은 내용을 담아 질의하고 답변하고, 자신의 발화가 적절한 정보량을 담고 타당한 논증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규정, 통계, 타인의 발언 내용 등을 언급함으로써 발화의 신뢰성을 높이며, 담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 나아가 다양한 언어적, 비언어적, 준언어적 표현을 적절하게 활용하여 전달 효과를 높이고, 필요한 경우 공조, 동의, 긍정적 평가 등을 드러내는 표현을 통해 상대 정당이나 피감기관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조절하는 모습을 보인다.

인사 청문회는 인사 검증을 목적으로 일정한 형식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연속적인 질의-답변 형식의 담화인 점을 감안하여, 시간 안에 효과적이면서도 공정한 인사 검증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질의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사전에 구조화하여 순차적 방식으로 질의하도록 하며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를 장황하게 제시하거나 한꺼번에 여러 답변을 요구하여 자기 과시 또는 편파적 검증이라는 비판을 듣지 않도록 유의한다. 더불어 질의-답변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질의의 논점이 변질되거나 피상적 수준에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질의자 간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다. 또한 인사 청문회 참여자들은 자신의 의도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명료한 표현 방식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상황에 적절한 비유를 활용하거나, 묻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구조화하는 방식 소통의 이해를 도울 뿐만 아니라 명료한 답변을 얻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더불어 외래어나 지나친 전문어, 축약어를 남발하지 않도록 하고, 상대방의 체면을 깎는 비하 발언 등은 상대방은 물론 국회 구성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자제하도록 한다.

국회 담화는 미시적으로 국회 내에서 여당과 야당이라는 권력 구조 속에서 각각의 공동체를 이룬다. 예를 들면, 국정감사, 청문회에서 여당과 야당의 질의는 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반집권당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기 마련이다. 국정감사, 청문회 등에 임하기 전에 당내에서 전략을 찾고 이를 실행하려는 계획을 세우기도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전체 국회 담화는 거시적으로 또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국민이 바라보는 국회 담화 공동체로서의 역할은 커다란 정치 구조로 인식된다. 국민은 국회 담화를 여당 담화 공동체와 야당 담화 공동체로 인식하기도 하지만 국회 담화 전체를 하나의 언어 공동체로 인식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의 갈등이 심화되어 극단적 사태까지 이른 상황을 보고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나타내거나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표출하기도 한다.

단기적으로는 여당 담화 공동체와 야당 담화 공동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하는 것이 당의 이익과 존속을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화 공동체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게 임할 때 국민으로부터 정치적 신뢰를 받으며 상생하는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화법론 및 화법 교육 전문 영역, 담화론 및 담화 분석 전문 영역, 실제 음

성 및 영상 자료 처리 전문 영역 간의 통합적 연구 내용을 다루고 있다.

둘째, 논제, 목적, 참여자, 관계 등을 기준으로 국회 담화 유형을 회의, 국정감사, 청문회 등으로 나누고 화법의 형식 및 절차, 내용, 표현 및 태도 측면에 따른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바람직한 화법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이론과 실재를 제공할 것이다.

셋째, 화법의 형식 및 절차, 내용, 표현 및 태도 측면에서의 국회 담화 분석은 화법 교육의 지식, 기능, 태도의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데 도움을 주어 화법 교육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특히 사회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다양한 화법 전략을 구안하여 바람직한 화법 교육의 확장을 모색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넷째, 담화 분석의 틀에서 표지, 순서 교대 등의 분석으로 문어 담화와 차별화된 구어 담화의 특징을 밝혀 화법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특히 실제 음성 및 영상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비언어적, 준언어적 요소에 대한 교육 내용을 추출하였다.

다섯째, 국회 담화의 형식과 내용을 분석하여 국회 담화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주요 정보를 추출하여 국회 담화의 효율적인 수행 방향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국회 담화 분석을 통해 다양한 국회 담화의 실현 맥락을 살핌으로써 향후 국회 담화에서 활용될 수 있는 화법 전략 실행 방안을 제안하였다.

일곱째, 화법 및 담화 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정치 담화 및 의회 참여자 화법에 나타나는 형식적·내용적 특수성을 밝힐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국회 담화 유형의 전형을 제시하였다.

여덟째, 구축한 담화 분석 자료의 목록을 활용하여 거시적으로 각 국회 담화의 소통의 문제를 파악하였으며, 미시적으로는 참여자의 화법의 문제점을 진단하였다. 이는 향후 지속되는 전문 분야의 화법 평가, 지표, 연구에 도움을 줄 것이다.

본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의원 화법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모니터링은 자신의 화법의 문제점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구체적인 양상을 알지 못하던 사람에게도 구체적인 문제점과 개선 방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화법 개선에 도움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모니터링은 각 국회의원이 개인적으로 자신의 화법에 대해 수행할 수도 있고,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도 있으며, 국회 사무처 차원에서 전체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모니터링을 할 때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틀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모니터링 결과는 정량적으로 분석하거나 정성적으로 기술하여 국회의원들에게 피드백함으로써 국회의원 스스로가 자신의 화법을 돌아보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국회에서의 공식적인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국가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화법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운용할 필요가 있다.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은 정보 소통, 설득, 관계 운용 등과 관련된 의사소통의 일반적 원리와 국회 등 공적인 자리에서 일어나는 의사소통에서 고려할 화법의 원리 등으로 구성하는 것이 국회 화법의 전반적인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 초선 의원의 오리엔테이션이나 국회의원 연찬회 등의 기회를 활용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 그밖의 국가 기관에서도 고위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체 연수 프로그램에 화법에 대한 연수 프로그램을 필수적으로 포함시키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산출물 중 하나인 ‘국회 화법 개선을 위한 안내 자료’도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연수의 질을 더욱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회 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영상 회의록과 문자 회의록을 적

절히 활용한 멀티미디어 교재의 개발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다. 단, 교재 개발에 활용될 회의록에 담긴 구체적 내용은 정치적으로 민감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교재는 국회 차원에서 여야 의원들도 공동으로 참여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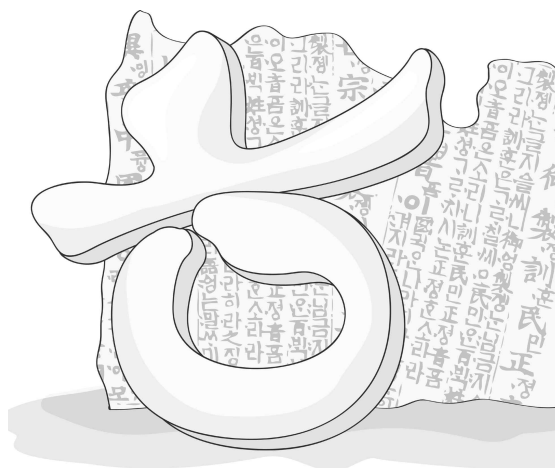
셋째, 국회 화법과 관련하여 국회 구성원들 간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 의사 규칙을 제정하여 어느 정도의 강제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회 의사 규칙만을 따로 모아 놓은 법규는 없고, 국회법에는 의사 규칙과 관련된 내용이 산재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법에 포함되어 있는 의사 규칙 관련 내용만으로는 국회 담화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효과적이며 품격 있는 의사소통을 유도해 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2009년 5월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현행 국회법 체계를 기준으로 마련한 ‘국회의사규칙(권고안)’과 ‘국회의원 윤리규칙(권고안)’은 본 연구의 문제 의식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18대 국회에서 마련한 이 권고안은 19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사실상 폐기된 상태이다. 따라서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이 권고안을 되살려 국회에서의 각종 회의에 적용하거나 별도의 준법규적인 의사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분야별 화법 분석 및 향상 방안 연구에 대한 향후 연구 과제로 방송인의 담화 분석이 필요하다. 대중 매체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국민에게 파급력과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다. 화법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지식의 대중화 및 공유를 통해 국민 언어 순화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이다. 일반인 대상 말하기, 듣기의 국어 능력 향상 교육과정을 평생교육 차원과 사회적 소통 차원에서 구안하고 범국민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구안하는 작업이 연속 사업으로 필요하다.



#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추진 계획

김선철 I 국립국어원





#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계기 범국민 언어문화개선운동 추진 계획

김선철(국립국어원 공공언어지원단)

## 목 차

- I. 추진 배경
  - II. 목표 및 전략
  - III. 분야별 추진 과제
    - 1. 공공언어
    - 2. 방송·인터넷 언어
    - 3. 청소년 언어
  - IV. 대국민 공감 전략
  - V. 토론 과제
    - [붙임 1] 부처별 협조 사항
    - [붙임 2] 바른 언어 사용 관련 법적 근거
    - [붙임 3] 국어책임관 및 국어문화원 개요
    - [붙임 4] 해외 사례(자국어 보호 및 쉬운 언어 운동)
- ※시연 동영상: -시-, -실게요, 청소년 언어 3편 등 총 5편

## I 추진 배경

### □ 우리 고유의 말글은 문화융성의 토대

- 말글은 생각과 혼을 담는 그릇으로 겨레 정체성의 근간이며, 고유의 말글로 문화를 창조하고 전승·발전시키므로 창조경제·문화융성의 토대

\* 한글(훈민정음 해례본)은 국보 70호이며 유네스코 지정(1993년) 세계기록문화유산

- “말이 오르면 나라가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가 내린다” <한글학자, 주시경>
- “인간은 자신의 모국어를 사용할 때 가장 창조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2008년 제18차 세계언어학자대회>

### □ 우리 말글의 대내외 환경 변화

- 한류 확산에 힘입어 해외에서의 한국어 학습 열기는 높아지는 반면,

\* 세종학당 개설 현황 : 2007년 3개국 13개소 → 2013년 51개국 117개소

- 국내에서는 어려운 공공언어 사용, 축약·변형 등 국어의 오·남용과 외계어 사용 증가로 국민의 국어의식과 언어생활이 점차 빈곤화

\* 한글날 공휴일 제외(1991~2012), 세계화의 물결로 한글·한국어 정체성 약화

- 방송 및 인터넷을 통한 무분별한 비속어, 저속어 및 폭력적 언어가 확산되고 있어 청소년 언어생활이 위협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음.

### □ 범국민적인 언어문화개선운동 추진 필요

- 규범과 일본어투 용어 청산 중심의 정화(순화)운동을 넘어, 언어의 유희적 속성과 문화창조력, 디지털 언중의 감성을 고려한 ‘언어문화운동’ 추진

- (규범) 문법 및 어법 파괴, 외래어·외국어 남용 ▶ ▶ 바른 언어
- (문학) 거친 욕설, 비속어·저속어 ▶ ▶ 고운 언어
- (맥락) 과잉 존대, 축약 및 변형, 외계어 ▶ ▶ 품격 있는 언어

- 언어는 사회의 얼굴이므로 사회 전 부문의 협업으로 다양한 담

론 형성과 자율적 수렴과정을 통해 우리 말글을 스스로 가꾸는 노력으로 승화

## 【 우리 시대 언어의 자화상 】

### ❖ 어려운 외래어·외국어로 가득한 공공언어

- 공공부문에서 어려운 전문용어, 외국어·외래어 사용으로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 및 수용도가 낮음.

#### [어려운 용어 사례]

- \* (정책 용어) 레인보우 스쿨(→무지개 학교), 농촌 어메니티 체험(→쾌적한 농촌체험), 클린교차로(→안전교차로), U턴 기업(→국내 복귀 기업), Fast Track 제도(→신속처리제도), Barrier Free(→무장애, 장애 없는)
- \* (공공기관명) 한국잡월드(Job World), 코레일(KORAIL), 코스콤, LH, NH, SH, 케이워터(K-Water)

### ❖ 저품격 언어가 난무하는 방송·인터넷 언어

- 자막 표기 오류 및 불필요한 외국어 남용 등 부적절한 방송언어 심각
  - 지적(권고) 건수: '12년 1,267건 → '13년 8월 4,825건

#### [부적절 사례]

- \* (비속어 및 폭력적 표현) 쪽팔려, 꼴통, 장땡, 죽일 거다
- \* (외국어 남용) 캄 다운, 애플힙, 에이스 퍼펙트 가이 등

### ❖ 욕설이 일상화된 청소년 언어

- 청소년이 욕설을 처음 사용하는 시기는 초등학교 고학년(58.2%)이 가장 많으며, 청소년의 94.6%가 욕설을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
  - (욕설 사용 이유) ①습관이 되어서, ②남들이 사용하니까, ③말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④친구끼리 친근감을 나

타내기 위해서

- (욕설 사용 양상) 욕에 대한 거부감이 높지 않으며, 학년이 높아질수록 비속어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더 거친 표현이 자주 등장
- \* (청소년 사용 욕의 빈도 순위) 씨발> 병신> 개새끼> 미친놈> 존나> 지랄 등

## Ⅱ 목표 및 전략



### Ⅲ 분야별 추진 과제

#### 1 공공언어

- ◆ 쉬운 언어는 인권이다 \*영국(1979), 스웨덴(1982), 미국(1998)
- ◆ 공공기관의 의무로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정부 주도의 쉬운 언어 쓰기 운동을 추진하고 지역·민간 부문의 확산 지원

#### □ 법·제도적 기반 강화

- (국어기본법 개정) 공문서의 쉬운 언어쓰기를 강조하고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국어전문관'을 둘 수 있도록 법령 개정
- (쉬운 공공언어 인증제 도입) 각종 문서 및 서식이 쉬운 언어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특별표지(마크)'를 부착
- (전문용어 표준화 본격 추진) 중앙행정기관은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구성하여 각 분야의 전문용어 표준화를 추진·보급

#### □ 국어책임관·문화원 제도 활성화를 통한 지역·민간부문 확산

- (국어책임관 제도 활성화)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국어전문관 제도를 도입하여 국어발전계획 수립 및 직원의 국어 능력 강화활동 지원
- (국어문화원 중심의 지역 확산) 전문 인력 및 시설을 갖춘 전국 18개의 국어문화원이 지역 내 언어문화운동의 거점이 되도록 지원·육성
- (민간부문 확산) 방송언어, 은행·보험·증권 등의 약관, 해설서·설명서, 홍보포스터, 광고문, 거리 간판·현수막 등의 언어 개선 지원

## □ 공공언어 상시 감수 및 개선 활동 지원

- (상시 감수 및 점검) 국립국어원의 전문 감수위원이 상시 감수 및 점검을 실시하고, 우수 기관 격려
- (맞춤형 교육 지원)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의 '쉬운 공공언어 쓰기' 및 '찾아가는 공공언어 개선 교육' 운영 강화

## 2 방송·인터넷 언어

- ◆ 인터넷, 디지털 기반 시대 언어의 공공성과 책임성 증가
- ◆ 책임 의식 기반 품격 있는 언어 사용으로 흥미를 넘는 언어 의식 개선 운동 추진

## □ 품격 있는 언어 사용을 위한 자율 점검 체계 마련

- (방송 언어 지침 마련·준수) 지상파·종합편성채널의 분야별(드라마, 오락, 시사 등) 방송언어 지침 마련 및 준수 권고
  - \* 지상파 3개 방송사 자체 심의규정 운영 중(SBS '예능 프로그램 제작 가이드라인' 등)
- (방송언어 평가 시상) 방통위 방송대상에서 '바른 방송언어상' 시상을 통해 품격 있는 언어 사용 프로그램 격려
- (질의응답 시스템 구축) 바른 언어에 대한 맞춤형 질의응답 시스템 구축 및 비속어 등을 대체할 수 있는 어휘자료 발굴, 제공
  - \* 실시간 검색이 용이하고 접근이 쉬운 모바일 웹 개발 등과 연계
- (인터넷 댓글문화 개선)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선플운동 등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운동 전개

## □ 언어 의식 개선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언어 순화 자막고지 홍보물을 제작·방영하고 방송·인터넷에서의 언어생활 자가 점검 프로

### 그램을 개발, 보급

- \* 시청자 평가(옴부즈맨)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는 2~3분 내외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
- (방송·언론 관계자 교육) 교양, 오락 등 분야별 의식 개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기자, 방송작가, 방송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공
- \* 기존 한글맞춤법 등 표기 차원의 교육을 넘어 화법 등 실무 밀착형 교육 추진
- (인터넷 언어 사용 교육) 청소년·학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인터넷 언어 사용 교육을 통해 건전한 인터넷 언어문화 확산

### □ 언어 개선을 위한 점검 기능의 활성화

- 막말·선정성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강화 등 방송심의 실효성 제고
- ‘방송언어 사용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 3 청소년 언어

- ◆ ‘문제’ 중심의 해결에서 사회적 협업을 통한 ‘문화’ 치유
- ◆ 성숙한 언어 환경(가족, 학교, 사회) 조성과 배려의 언어 가치 교육을 기반으로 즐거운 언어문화 운동 추진

### □ 바른 언어 교육 기반 강화

- (교육과정 연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부터 단계적으로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교육 강화

【초】 바른 언어습관  
형성 교육



【중】 긍정적 상호존중  
언어 사용 교육



【고】 의사소통 및  
갈등 해결 신장 교육

- \* 실제 생활 속에서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언어 교육 실시

- (자유학기제 반영) 언어생활에 관한 교육이 집중적·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를 활용한 언어교육

## 강화

- \*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언어문화교육 집중 프로그램 개발·보급
- **(언어습관 진단)** 언어습관 교정을 위한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언어습관 자가진단표 개발·보급\* 및 대상별 맞춤형 교육 강화
- \* 욕설사용지표, 욕설태도지수 등 대상별 언어습관실태에 관한 지표 개발
- **(청소년 바른 언어 수련)** 청소년 수련시설의 ‘언어순화’ 프로그램 보완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의 바른 언어 사용에 대한 인식 제고
- \* (현행) 봉사·협력정신, 직업능력, 나라사랑 등 → ‘언어순화’ 분야 포함 운영

## □ 언어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 **(언어 치유 문화 활동)** 시 창작, 연극 활동 등 언어생활 치유 목적의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보급
- **(학생·청소년 참여)** 학교·학급·동아리 단위에서 학생들이 주도하는 바른 언어 사용 운동 전개
- \* ‘욕설 퇴치 아이디어 공모전’, UCC 공모전, 욕설 없는 날, 존대어 사용의 날 등
- **(한글날 교육 주간)** 한글주간 또는 학기 초에 우리말의 중요성과 자신의 언어습관을 되돌아보는 특별교육주간 및 프로그램 운영

## □ 대상별 언어 예절 교육 전문화

- **(학생 대상)** 방송사와 함께하는 ‘학교로 찾아가는 바른 우리말 선생님’ 프로그램(200개교) 운영·지원 확대
- **(교원 대상)** 바른 언어 사용 관련 교사용 **훈화자료\*** 및 교사와 학생 간의 대화법 자료 개발·보급
- \* 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예화, 글귀, 삽화 등을 담은 자료 개발
- **학교장·교원 대상** 연수를 강화하고 언어폭력예방 및 언어문화개선 분야 **전문강사 집중 육성**
- \* 언어 교육 우수 사례 중심의 원격 연수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교장·교감·교원 자격연수 등을 통한 언어문화 개선 연수 강화

- **(학부모 대상)** 가정에서의 바람직한 언어사용과 자녀와의 대화를 위한 학부모 교육 강화
  - \* 자녀와의 대화법 지침(매뉴얼) 개발·보급, 직장으로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언어 캠프 운영 등
- **(가정 내 의사소통 교육)** 자녀의 생애주기 발달에 따른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교육 및 단계별 부부간 관계향상 교육 실시
  - \* 전국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자녀의 생애주기(영유아기-아동기-청소년기)에 따른 부모 의사소통 교육 및 부부 단계별(신혼기-중년기-노년기) 가족 교육 실시
- **(청소년 문제 상황에서의 언어 교육)** 인터넷 중독, 학교폭력, 가출 등 청소년·부모 대상 상담 및 교육 운영 시 언어예절 교육
  - \* 집단상담, 가족치유학교, 가족캠프를 통한 언어예절 교육 실시

## □ 단위 학교 중심 프로그램 강화

- **(학급 단위)** 언어문화 개선 학급 프로그램 공모, 교실벽·복도 등에 언어 순화 문구 게시, 언어순화게임 전개, 칭찬 릴레이, 존댓말 쓰기 등
- **(학교 단위)** 아름다운 언어 편지쓰기, 아름다운 시 낭송, 건전 언어 CM송 제작·발표, 우리말 겨루기, 시화전 및 언어문화개선 캠프 등 개최
  - \* 관련 프로그램, 롤모델 적극 발굴, 시상 등을 통한 즐거운 언어문화 분위기 조성

## IV 대국민 공감 전략

### ◇ 기본방향 ◇

- **[추진방향]** 사용자의 국어 의식을 일깨우고 다양한 담론에서 국민 스스로 바람직한 언어문화를 선택하도록 지원하는 ‘문화운동’으로 추진
  - \* 병리적 관점에서 규제·처벌적 해결 방식 지양
- **[대외명칭]** 사용자 중심의 가치편익을 담은 대중적인 명칭 사용
  - \* 국어사랑 문화운동, 한글아 놀자 등
- **[추진주체]**
  - 공공부문은 문체부 중심의 전 부처 협력체계 구축·추진
  - 민간부문은 문화융성위원회와 연계하여 국어, 방송언론, 문화예술, 교육, 시민단체로 구성된 범국민연합 발족(‘14년 1월) 및 운영
    - \* 범국민연합 주도로 각 부문별 다양한 사업의 공동기획·공모사업 추진
- **[추진관리]** 반기별 추진계획 및 성과 보고(문체부 주관)

### □ 단계별 추진 전략

- ▶ 1단계: 11월부터 ‘14년 9월까지 1단계 운동 추진
- ▶ 2단계: 한글날 계기로 전년도 운동성과 평가 및 단계 전환(이후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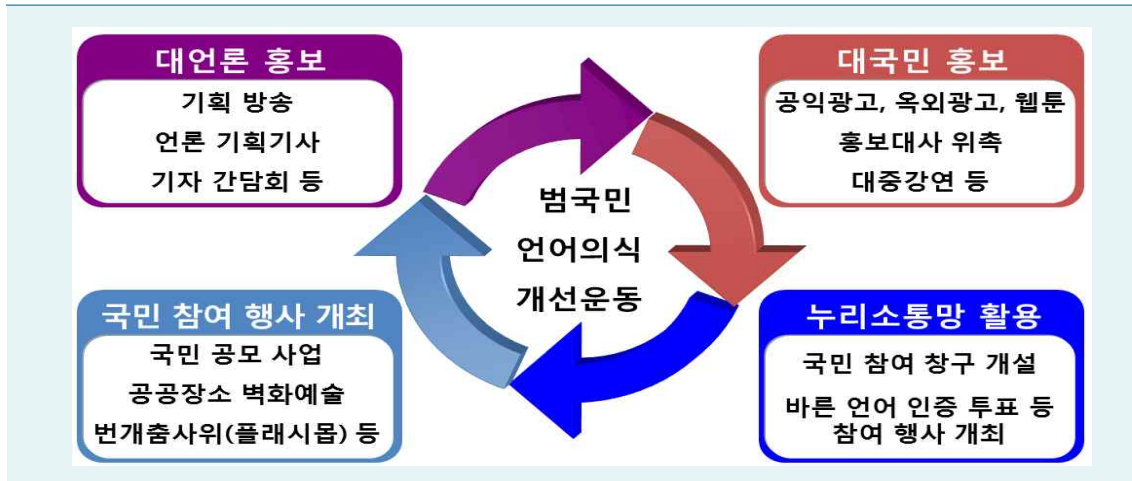
○ **(문제 제기)** 국민의 언어 인식 설문조사 실시 및 발표(11월 ~ 12월)

○ **(문제 확산)** 분야별 토론회범국민연합 구성 및 발족(12월 ~ ‘14년 1월)

- \* 토론회(안): ▶ 한국사회 언어문화, 진단과 대책 ▶사이버 언어폭력, 표현의 자유인가, 방종인가 ▶잔존하는 차별적 표현, 이대로 좋은가 ▶청소년의 욕설 남용, 교화의 대상인가 ▶방송언어 개선, 표현 자유의 제한인가, 방송의 책무인가 ▶약어와 외계어의 남용, 언어의 다양성인가 언어의 파괴인가 ▶국민의 언어적 권리, 현 주소는

- (공감대 형성) 공익광고, 기획 보도, 기획사업 및 공모 추진('14년 1월 ~ 3월)
- (공감대 확산) 분야별 사업 추진, 공익광고웹툰 전국 배포('14년 3월 ~ 9월)

## □ 대상별 추진 방향



- **대언론 홍보**
  - 언론 기고 및 기획보도(해외 사례, 국내 언어 실태 및 진단)
  - 방송사별 특별 기획 방송 제작 지원(유명 프로그램 연계 등)
- **대국민 홍보**
  - 공익광고(영상 및 웹툰) 제작하여 극장, 학교, 지하철 등에서 상영
  - 국어·언어·인문학 유명인사의 대중강연 기획·운영
  - 홍보대사 위촉, 홍보캐릭터·포스터·공익가요 제작, 옥외광고
- **누리소통망(SNS) 활용 등 온라인 홍보**
  - 누리소통망 운영기반(플랫폼), 모바일 웹사이트 구축 및 콘텐츠 운영
  - 페이스북 및 블로그 등을 활용한 참여 행사 개최
    - \* 아름다운 시·문장 나눔 대회, 아름다운 말, 위로하는 말 등 긍정적인 말(문장) 만들기, 세종대왕에게 쪽지글 보내기 등

## ○ 국민 참여 문화 행사

- 화제 창출 행사 및 참여 예술 기획
  - \* (예) ▶대한민국 언어 오염 지도 만들기 ▶‘사색하는 의자’를 도심 곳곳에 설치 ▶지하철역이나 길거리 벽 등에 한글을 이용한 (벽화)예술 설치 ▶이동식 한글 놀이터 버스 운영
- 범국민연합 주도의 분야별 다양한 공모사업 추진
- 바른 언어 인증 프로그램, 아름다운 방송상 시상에 투표 참여
- 한글날 홍보를 위한 계기(세종대왕탄신기념일, 한글날 전) 행사

## 붙임 1 중앙 행정부처별 사업안

추진 과제	소관부처
<b>1. 공공언어</b>	
1-1. 국어기본법 개정	문체부
1-2. 쉬운 공공언어 인증제 도입	문체부
1-3. 전문용어 표준화 본격 추진	전 부처
1-4. 국어책임관 제도 활성화(국어전문관 제도 도입 등)	전 부처
1-5. 국어문화원 중심의 지역 확산	문체부
1-6. 민간부문 확산	전 부처
1-7. 공공언어 상시 감수 및 점검	문체부
1-8. 공공언어 관련 맞춤형 교육 지원	전 부처
<b>2. 방송·인터넷 언어</b>	
2-1. 방송 언어 지침 마련·준수	방통위
2-2. 방송 언어 평가 시상	방통위
2-3. 질의응답 시스템 구축	문체부
2-4. 인터넷 댓글문화 개선	방통위
2-5. 교육 프로그램 개발	문체부
2-6. 방송·언론 관계자 교육	문체부
2-7. 인터넷 언어 사용 교육	미래부, 교육부
2-8. 방송심의 실효성 제고	방통위
2-9. 방송언어 사용 실태 조사	방통위
<b>3. 청소년 언어</b>	
3-1. 교육과정과 연계 교육	교육부
3-2. 자유학기제 반영	교육부, 문체부
3-3. 언어습관 진단	교육부
3-4. 청소년 바른 언어 수련	여가부
3-5. 언어 치유 문화활동	교육부, 문체부, 여가부
3-6. 바른 언어 사용 운동 학생·청소년 참여	교육부, 여가부
3-7. 한글날 교육 주간	교육부, 문체부
3-8. 대상별 언어예절 교육 (학생 대상)	교육부, 문체부
3-9. 대상별 언어예절 교육 (교원·학부모 대상)	교육부
3-10. 가정 내 의사소통 교육	여가부
3-11. 청소년 문제상황에서의 언어교육	여가부
3-12. 단위 학교 중심 프로그램 강화 (학급·학교 단위)	교육부

## 붙임 2 바른 언어 사용 관련 법적 근거

### ☐ (공문서의 작성과 한글사용) 국어기본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1조

공공기관 등의 공문서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

- \* 1.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2.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 ☐ (전문용어의 표준화) 국어기본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2조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 ☐ (국어책임관 지정) 국어기본법 제10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 ☐ (국어문화의 확산) 국어기본법 제15조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심의규정) 방송법 제6조 및 제33조

방송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0. 언어순화에 관한 사항

### ☐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12조

광고물 등의 종류·모양·크기·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 및 기간 등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併記)하여야 한다

### 붙임 3 국어책임관 및 국어문화원 개요

#### □ 국어책임관 개요

- (근거) 국어기본법 제10조 1항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
- (지정 대상)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기관의 홍보담당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 지정 현황

계	중앙행정기관 (부·처·청·위원회)	중앙행정기관 소속기관	광역시 지방자치단체	기초 지방자치단체
508(명)	43	219	17	229

- (임무 및 역할) 쉽고 바른 국어사용 장려, 공무원 국어능력 향상을 교육,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문화 환경 개선 추진
- (제도 개선안) 국어책임관을 보좌하는 국어전문관을 둘 수 있도록 법령 개정, 기관별 국어발전 및 직원의 국어능력 강화 활동 지원

#### □ 국어문화원 개요

- (근거) 국어기본법 제24조 및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9조
- (지정 대상)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대학교의 부설기관 등을 지정

\* 지정 현황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	제주
18 (개소)	3	1	1	1	1	1	1	1	3	2	2	1

- (임무 및 역할) 국어상담 사업, 한국어 및 한국문화 교육사업, 공공언어 개선사업, 지역언어 실태조사, 언어 환경 개선사업 등
- (지원 확대) 개소당 2천만 원(총 4억) 지원을 '14년도에는 3천만 원(총 6억) 증액

## **붙임 4**    **해외사례(자국어 보호 및 쉬운 언어 쓰기 운동)**

### **□ 자국어 보호 정책**

국가	주요 내용
프랑스	○ 프랑스어 사용관련법 ‘바-로리올법 제정(’75), 투봉법 제정(’94)’ - 제화, 제품 또는 용역의 명칭, 송장, 영수증 등에 프랑스어 의 무적 사용
폴란드	○ 폴란드어에 관한 법령(’00) - 상품과 서비스 명칭 등에 폴란드어 번역문을 갖추지 않고 외국어로만 표기할 경우 벌금 부과
러시아	○ 러시아어 지위 향상 및 확산을 위한 법률 제정(’12) - ‘러시아어의 날(6월 6일)’ 지위 향상 및 영향력 확산에 관한 법률 ○ 고유어 지키기 운동 추진 - 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학생들의 직접적인 참여 유도
헝가리	○ 헝가리어 보호법 제정(’01) - 상업적 광고 문구와 선전 구호, 옥외 간판 안내문 등은 헝가리어로 써야 함 - 법 위반 시 소비자보호원이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옥외 광고물 등 철거

### **□ 쉬운 언어 쓰기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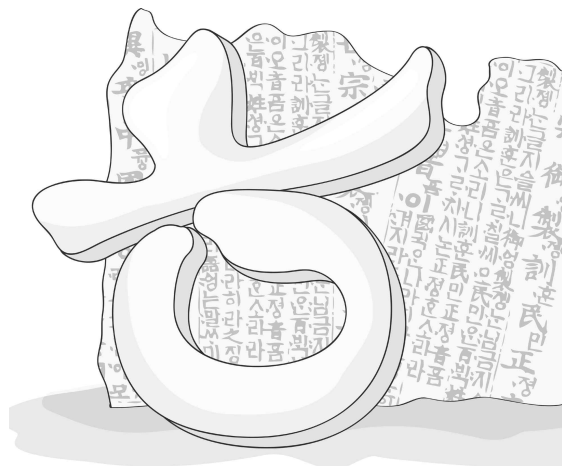
국가	주요 내용
영국 (민간)	‘쉬운 영어 쓰기 운동’(Plain English Campaign) ○ 영세민이 난방비 신청서식을 이해 못해 열어 죽은 사건 계기로 시작(’79) ○ (주요 사업 및 성과) 공문서 → 정치, 경제, 의료 등 전 분야로 확산 → 소비자 보호운동, 민주화 운동
미국 (정부)	쉬운 언어는 시민의 권리, 행정의 효율성 실현 수단 ○ (관령 법령) 쉬운 영어 사용규정(’98), 2010 쉬운 글쓰기 법(’10), 연방 쉬운 언어 지침(’11) ○ (추진 조직) ‘쉬운 글쓰기 행동 및 정보 네트워크’(PLAIN)
스웨덴 (정부)	언어전문가 양성,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 최대화 ○ ‘쉬운 언어 장려’를 법제화, 쉬운 언어 사용 분야를 지속적 확대 - 법령문과 판결문(’82, 정부 관료의 의무에 관한 법령) → 모든 정부 공문서(’95, 정부조직과 기관 법) → 공공분야(’09, 언어법) ○ 언어전문가 적극 고용(’76~, 법무부), 스톡홀름 대학 등에 특별교육과정운영





## 국립국어원 연구·교육 자료 사업 소개

박미영 I 국립국어원





## 국립국어원 연구·교육 자료 사업 소개

박미영(국립국어원)

### <국어능력발전과>

#### 1. 국어문화학교 운영

##### ○ 국어전문교육과정

- 운영 현황: 매년 14회 개설

번호	분야	강좌명	1강좌당 시간수	강좌수	비고
1	어문 규범 익히기	한글 맞춤법(I, II)	180	6	강좌 정비
2		띄어쓰기	90	3	강좌 정비
3		표준어 규정	90	3	
4		표준 발음법	90	3	
5		외래어 표기법	90	3	
6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90	3	
7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올바른 국어 능력 키우기	공문서 바로쓰기(I)	90	3	강좌 확대
8		공문서 바로쓰기(II)	90	3	
9		우리말 다듬기	90	3	
10		생활 글쓰기	90	3	
11		글쓰기(작문)	90	3	
12		말하기(의사소통)	90	3	
13		쉬운 언어 쓰기	50	1	신규 개설
14		국어정보활용법(합반)	50	1	
15	우리말 상식 넓히기	훈민정음의 이해	90	3	
16		특강(합반)	90	1	

#####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 운영 현황: 신청 현황에 따라 매월 30회 이내 개설 예정

- 2014년 개설 과목 확대: ‘쉬운 공공언어 쓰기’ 강좌 추가

※3월 이후,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교재 개정판에 ‘쉬운 공공언어 쓰기’ 포함, 배포

##### ○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독서 특별 과정

- 운영 현황: 8월, 10월 개설/ 총 4회 운영(2012년~2013년)/ 232명 수료

강좌명(강사)	강사	내용
21세기 독서의 의미	노명완(고려대)	현대의 국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하여 독서의 의미를 되새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읽기 방안	옥현진(이화여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업무 수행을 위한 읽기 능력과 하이퍼텍스트 읽기의 방향을 제시함.
미래 세대를 위한 독서 교육	이순영(고려대)	자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독서와 바른 읽기 교육 방안을 제시함.
독서와 표현 능력	김성수(연세대)	독서 활동을 통해 쓰기의 중요성과 쓰기 능력 향상 방안을 살펴봄.
문학으로 여는 세상	문홍술(서울여대)	다양한 읽기 텍스트를 통해, 사회 문화의 의미를 재해석해 봄.
나를 찾는 독서	고정욱(작가)	독서를 통해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창조적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치유 독서의 유용함을 안내함.
의미를 찾는 읽기와 쓰기	이가령(경희대)	책을 가까이 하며 좀 더 책을 즐겁게 읽고, 읽으면서 든 자신의 생각을 아주 쉽게 글로 정리해 봄. -읽기 자료 ‘빈칸의 비밀’ (파멜라 헤넬 지음.)
독서 토론의 방법	김주환(안동대)	교육생 모집에서 독서 자료를 안내하고, 개별 독서 활동 후, 토론을 통한 소통의 자리를 마련토록 함. - 읽기 자료 ‘개미와 베짚이’ (서머셋 모음 지음.)
국어 정보 활용법	권미영(국립국어원)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의 다양한 정보를 안내함.

#### ○ 국어 문화 시민 강좌

- 운영 현황: 10월 한글날 기념 개설/ 총 1기 4일 운영(2013년)/ 520여명 참여
- 운영 내용: ‘한국어, 시대를 열다’ / 문화역 서울284 / 강연과 공연의 조화

강연	공연
현재- 한국어 문화의 시대를 열다(강연자: 권영민 명예교수)	(퓨전국악) 가야토리, 비화랑
과거- 한글, 한국어의 시대를 열다(강연자: 이상혁 교수)	(대중음악) 김도향
미래- 한국어 융성의 길을 열다(강연자: 고은 시인)	(해금연주) 강은일
한국어의 위기를 넘어 희망을 열다(강연자: 민현식 원장)	(아카펠라) 연세 쏘리스트

#### ○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쑥쑥! 국어 교실(지역아동센터 초등학생 대상)

- 운영 현황: 2012. 9. ~ 2013. 11./총 3기 운영/ 20여개소 지원/ 250여명 교육
- 운영 내용:
- 운영 기간: 2014. 4월 ~ 6월(상반기)/ 2014. 9월 ~ 11월(하반기)
- 대상: 지역아동센터 상·하반기 각 7개소 예정/ 초등 저학년(2~3학년), 초등 고학년(4~5학년) 각 10명 내외

**※지역 국어문화원 강사 중 관심 있는 지역아동센터 선정 협의 가능**

- 선정 조건
  - 글쓰기 수업이 가능한 장소가 있는가?
  - 적절한 대상 아동(저학년군-초등 2~3학년 10명 내외, 고학년군-초등 4~5학년 10명 내외)들이 있는가?
- 운영 규모: 7개 지역아동센터 주 1회 2시간 8주 과정, 2개 학년군(저학년군·고학년군) 총 16회 운영 예정
- 강좌 내용: ‘국어사전 활용하기’, ‘바르게 쓰기’ 등 8개 주제
- 교재: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쑥쑥 국어 교실’ 저학년용·고학년용 지역아동센터별 배포
- 운영 방식
  - 지역아동센터에서 강의 희망 날짜, 시간 등을 결정하여 신청
  - 중앙지원단에서 국어원 추천 지역당 2개 센터 추천, 국어원에서 현장 방문 및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해 7개 센터 선정(2월 하순~3월 중순)
  - 강의 일시는 국립국어원과 선정된 지역아동센터의 강의 일정을 고려, 협의하여 결정
- 참고1: (고학년용)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쑥쑥! 국어 교실’ 내용

주제 번호	강좌명	주요 내용
1	국어사전 살펴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춤법에 맞게 글을 써야 하는 이유를 실제 예를 들어 설명하고 맞춤법 준수 의식을 신장시킴.</li> <li>• 국어사전의 구성, 국어사전 사용 방법(낱말 분리하기, 순서대로 찾기), 국어사전 만들기 활동을 통한 국어사전 활용법 능력을 향상시킴.</li> <li>• 국어사전 사용법은 어휘 학습 단계와 연계하여 국어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 증대와 연계 학습을 통한 어휘력 향상에 도움을 줌.</li> </ul>
2	바르게 쓰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글 맞춤법의 정의와 맞춤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실제 사례와 관련 활동을 통해 이해시킴.</li> <li>• 이후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서 선별한 자주 틀리는 맞춤법의 예를 제시하고, 제시된 예를 기반으로 한 맞춤법 바르게 쓰기 활동을 통해 맞춤법 능력을 신장시킴.</li> <li>• 아울러 문장 부호의 개념과 사용법, 단위성 명사와 띄어쓰기를 추가로 학습하여 맞춤법 능력을 향상시킴.</li> </ul>
3	바르게 쓰기(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르게 쓰기 (1)’ 과 연계하여 외래어 표기법과 로마자 표기법에 대한 이해 및 실제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표기법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킴.</li> <li>• 먼저 ‘외래어 표기법’ 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외래어의 찾기, 외래어 표기해 보기, 외래어 바르게 고쳐 쓰기, 우리말로 바꾸어 보기 활동 등을 통해 외래어에 대한 정확한 인식, 올바른 표기 방식, 외래어 오남용에 대한 경계를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함. 아울러 초등학교 고학년 수준에서 꼭 알아야 할 자주 틀리는 외래어 목록을 제시하여 실용성 있는 외래어 표기법 학습이 되게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로마자 표기법’은 사용 목적을 먼저 이해하게 한 후 학습자 스스로 로마자를 표기해 보는 과정을 통해 표기 방식을 습득하게 함.</li> </ul>
4	글쓰기 기초 다지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단원은 어휘 학습 단계와 글쓰기 학습 단계의 중간 지점으로, 학습자들의 글쓰기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글쓰기 준비 단계로 설정되었음.</li> <li>• 먼저 어휘 연상하기 놀이, 연상한 어휘 조합하여 문장 만들기 등을 통해 단문 형성 학습을 진행하고 유의어 교체, 부사 활용 활동을 통해 단문의 난이도를 높이는 학습을 진행함.</li> <li>• 이후 접속부사 활용하기, 문장 잇기, 제목 짓기 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글쓰기 단계를 위한 과정을 습득시킴.</li> </ul>
5	열린 생각을 이용한 글쓰기(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단원은 열린 생각(브레인스토밍)을 기반으로 특정 주제에 대한 순차적 글쓰기를 함으로써 글쓰기 능력을 신장시킴.</li> <li>• 도입부에서는 연상을 통해 산출해 낸 어휘를 중요도에 따라 분류한 후 글을 쓰게 하고, 이후 주제별로 어휘 재조직한 후 글쓰기, 항목에 따른 어휘 연상 후 글쓰기 같은 난이도별 글쓰기 활동을 진행함. 이때 글쓰기를 수필, 편지, 광고라는 세 유형으로 진행함으로써 어휘 연상을 통한 글쓰기 학습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글쓰기를 접하게 함.</li> </ul>
6	설명하는 글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단원은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을 학습자에게 제시하되 여러 가지 상황(청자 존대 상황 등), 글쓰기 유형을 추가로 두어 학습자가 복합적으로 설명하는 글쓰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함.</li> <li>• 먼저 제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할아버지’께 길을 설명하는 글쓰기, ‘외국인 친구’에게 길을 설명하는 글쓰기라는 과정을 통해 정보 분석과 상황에 따른 글쓰기를 단계적 과정을 통해 완성할 수 있도록 함.</li> <li>• 이후 유형을 달리하여 ‘동생’을 대상으로 ‘슈퍼마켓 다녀오는 과정 설명하기’라는 상황을 제시하여 단계별 간략 설명하기를 학습하게 함.</li> <li>• 마지막으로 긴 지문을 ‘할아버지와 할머니’께 간략하고 쉽게 요약하여 설명하는 글쓰기 학습을 진행함으로써 대상, 상황, 글쓰기 유형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글쓰기 학습을 시킴.</li> </ul>
7	상상하기와 글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단원은 상상을 통한 자유로운 글쓰기를 진행함으로써 학습자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기르고 아울러 글쓰기에 대한 흥미를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음.</li> <li>• 먼저 ‘나’의 모습을 자유롭게 상상하여 바꾼 후 바뀐 모습을 글로 쓰는 것을 시작으로 ‘교실 편하게 바꾸기’, ‘상상해서 설명하기’, ‘상상의 동물 만들기’라는 흥미로운 주제를 단계적 글쓰기 과정을 통해 학습함.</li> </ul>
8	내 의견 글로 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단원은 주장과 근거의 개념을 명확히 이해하고 올바른 ‘주장하는 글쓰기’의 전형과 실제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li> <li>• 먼저 ‘주장-근거 찾기’, ‘근거 올바르게 고치기’, ‘주장 쓰기’, ‘근거 쓰기’를 통해 주장하는 글쓰기의 요소들을 탐색한 후, ‘설문지 활용하기’를 통해 근거를 획득하는 방법을 학습함. 이후 사전 학습 내용을 단계적으로 구성하여 연설문 쓰기를 진행함.</li> </ul>
9	쑹쑹! 함께하는 특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 단원은 학습자의 어휘 학습 능력은 물론 학습에 대한 흥미를 돋우기 위한 것임. 이 단원은 ‘오감을 통한 자유롭게 표현하기, 새로운 의성/의태어 쓰기’로 구성되어 있음.</li> </ul>

· 참고2: (고학년용) ‘국립국어원과 함께하는 쑹쑹! 국어 교실’ 내용

주제 번호	강좌명	주요 내용
1	재미있는 국어 사전과 쑹쑹! 날말 놀이(1) (1)재미있는 국 어사전 찾기 (2)쑹쑹! 즐거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국어사전의 구성, 국어사전 사용 방법(날말 분리하기, 순서대로 찾기), 국어사전 만들기 활동을 통한 국어사전 활용법 능력을 향상시킴.</li> <li>• 국어사전 사용법은 어휘 학습 단계와 연계하여 국어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 증대와 연계 학습을 통한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됨.</li> <li>• (2): 동물과 관련된 어휘 쓰기, 범주별 분류하기, 관찰/묘사하기, 동물 관련 합성/파생어 학습 등을 통해 동물과 관련된 어휘 능력을 키움.</li> </ul>

	동물원	
2	쭉쭉! 즐거운 날말 놀이(2) (1)쭉쭉! 편리한 탈것 (2)쭉쭉! 다양한 직업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탈것과 관련된 어휘 쓰기, 범주별 분류하기, 관찰/묘사하기, 탈것 관련 합성/파생어 학습 등을 통해 탈것과 관련된 어휘 능력을 키움.</li> <li>• (2):우리 문화와 관련된 어휘 학습, 범주별 분류하기, 관찰/묘사하기, 문화 관련 합성/파생어 학습 등을 통해 문화와 관련된 어휘 능력을 키움.</li> </ul>
3	쭉쭉! 즐거운 날말 놀이(3) (1)쭉쭉! 대대로 이어온 우리 문화 (2)쭉쭉! 행복한 우리 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가족의 호칭과 관련된 어휘 쓰기, 범주별 분류하기, 관찰/묘사하기, 호칭 관련 합성/파생어 학습 등을 통해 호칭과 관련된 어휘 능력을 키움.</li> <li>• (2):직업과 관련된 어휘 학습, 범주에 따른 분류하기, 관찰/묘사하기, 직업 관련 합성/파생어 학습 등을 통해 직업과 관련된 어휘망 능력을 키움.</li> </ul>
4	쭉쭉! 즐거운 날말 놀이(4) (1)쭉쭉! 우리 나라의 계절 (2)쭉쭉! 흘러 가는 시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계절과 관련된 어휘 쓰기, 범주별 분류하기, 관찰/묘사하기, 계절 관련 합성/파생어 학습 등을 통해 계절과 관련된 어휘 능력을 키움.</li> <li>• (2):시간과 관련된 어휘 쓰기, 범주별 분류하기, 관찰/묘사하기, 시간 관련 합성/파생어 학습 등을 통해 시간과 관련된 어휘 능력을 키움.</li> </ul>
5	쭉쭉! 날말로 문장 만들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어휘 학습 이후 글쓰기 단계에 들어가기 전 단어 수집, 문장 형성, 글쓰기 라는 세 과정을 과정 중심으로 연습하는 단계.</li> <li>• 구성: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관찰 후 날말을 써 보기, 수집한 단어를 구문으로 형성하기, 접속어를 이용한 선후 관계에 따른 글쓰기, 문장 부호의 개념과 실제</li> <li>* 5-7강은 6개의 신체어(손, 발, 머리, 입, 눈, 귀)와 관련된 관용어를 4단계 구성을 통해 학습함. 이를 통해 관용어의 뜻은 물론 은유와 비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고급화된 문장 쓰기 단계의 기초를 다짐. 5강은 신체어 손, 발에 대해 학습.</li> </ul>
6	쭉쭉! 자세히 보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명 만들기, 내 손 관찰하기, 공통점과 차이점 찾기, 수수께끼 만들기’ 등의 활동을 통해 대상에 대한 관찰 능력과 묘사하여 쓰기 능력의 기초를 다짐.</li> <li>• 아울러 ‘이유 쓰기’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상상력과 논리력을 높이고 7-8 강에 대한 준비 과정을 가짐.</li> <li>* 관용어 학습: 신체어(머리, 입)</li> </ul>
7	쭉쭉! 중심 내용을 써 보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육하원칙의 기본적인 구조와 응용 방법을 빠진 부분 채우기, 정보 구성 재 조합하기 등을 통해 이해함.</li> <li>• 이후 육하원칙 상황을 한 편의 글로 작성해 보면서 정보 전달 글쓰기 능력을 습득함.</li> <li>* 관용어 학습: 신체어(눈, 귀)</li> </ul>
8	쭉쭉! 왜 그럴까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후 관계 잇기, 원인-결과 찾기, 원인-결과 조합하기, 원인-결과 글쓰기 등의 활동을 통해 주장문의 개념 이해와 작문 능력을 향상시킴.</li> <li>• 아울러 상대방의 의견-근거 찾기 활동을 통해 상대방의 주장 내용 파악 능력과 의견-근거에 대한 통찰 능력을 향상시킴.</li> </ul>
9	쭉쭉! 특별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활동은 글쓰기 학습에 흥미를 돋우기 본 강의 내용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4항목으로 구성됨.</li> <li>• 구성: 날말 빙고, 날말 잇기, 더 길게 만들기, 색깔로 말해요</li> </ul>

## 2. 연구 사업

## ○ 독서(읽기) 능력 향상 분야

연도	2013년	2014년
주제	독서(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개발	독서(읽기)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 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독서를 위한 문법 필요성 실태 조사</li> <li>•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내용 언어 층위별 상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운·표기, 어휘, 문장, 담화</li> </ul> </li> <li>•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과정 구축</li> <li>• 텍스트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단원 안내→중단원→소단원(학습 내용 안내(상기하기→이해하기→준비하기)→텍스트 제시→학습 문제)→대단원 마무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학, 비문학 텍스트를 포함한 읽기 자료 선정,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인의 흥미, 동기, 능력을 고려한 텍스트의 주제, 내용, 장르의 다양성 확보</li> </ul> </li> <li>• 실제 자료나 그림, 도표 등으로 구조화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문법 내용 제시</li> <li>• 학습 문제 제시</li> </ul>
활용	14년 사업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의 독서 능력 향상을 위한 문법 교육 자료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판 가능한 실용 문법서(교양서 수준) 구성</li> <li>-국어문화학교 독서 특별 과정 교육 자료 활용 가능</li> </ul> </li> </ul>

## ○ 화법(읽기) 능력 향상 분야

연도	2013년	2014년
주제	분야별 화법 분석 및 향상 방안 연구 -국회 의회 화법-	분야별 화법 분석 및 향상 방안 연구 -가정 내 대화 화법-
내용	※‘말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방안’ 강의안 참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 구성 유형에 따른 가정 내 대화 실태 점검</li> <li>• 가족 유형별 대화 분석에 따른 바람직한 의사소통 구조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정 대화 프로그램 수집 및 사례 소개</li> <li>-가정 대화 상담 단체 연구 및 조사 대상 가정의 모범적인 사례 소개</li> </ul> </li> <li>• 가정 내 대화 화법 수행을 위한 올바른 대화 전략 및 화법 개선 방안 제시</li> </ul>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활하고 올바른 질의-응답 사례 제시 및 바르게 수행하는 지침 작성, 홍보</li> <li>• 회의 진행시, 의장(또는 사회자)의 바른 역할 제시 바르게 수행하는 지침 작성, 홍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정에서 지키는 대화법 지침 작성, 홍보</li> </ul>
----	--	--

○ 일반 국어 능력 향상 분야

연도	2014년
주제	문식성 향상을 위한 어휘 능력 신장 연구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별(초·중·고등학생·성인), 텍스트별, 어휘 양상별 문식성 실태 점검</li> <li>• 문식성 향상을 위한 자기주도적 어휘 능력 학습 방안 구축</li> </ul>
활용	-

## &lt;한국어교육진흥과&gt;

## 1. 책자형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발간(출판) 현황(2005년~현재)

구 분			2005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교재명	형태							
국외 학습 자 대상 교재	초급 한국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교재		6개 언어 출판			스페인어, 러시아어 추가 개발	스페인 어, 러시아 어 출판	
		지침 서				읽기/쓰기 개발	읽기/쓰기 발간		
	중급 한국어 1	교재		개발	출판				
		지침 서			개발	발간			
	중급 한국어 2	교재			개발	출판			
		지침 서				개발	발간		
	세종한국어	교재					1,2 개발/발간	3,4 개발/발 간	5~8개발
		지침 서							1~4개발
국내 학습 자 대상 교재	여성결혼이민자와 함께하는 한국어	교재		1,2 개발	1,2 발간/ 3,4 개발	3,4 발간	5,6 개발	5,6 발간	1~6 출판
		지침 서			1,2개발	1,2발간	3,4개발	3,4발간/ 5,6개발	5,6발간
	부부공동학습 교재 알콩달콩 한국어(중,베)	교재		개발	발간				
	다문화 가정 유아를 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학습 지, 교구 등			1단계 개발	1단계 보급/ 2단계 개발	2단계 보급/ 3단계 개발	3단계 보급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표준 한국어1·2 (초등, 중등, 고등학교 과정)	교재						학교급 별 1,2개발	학교급 별 1,2출판
		지침 서							학교급 별 1,2 개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아자아자 한국어	교재			1개발	1발간	2개발	2발간	1,2출판
학습 자 대상 교육자 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한습 사전	사전	출판						
교원 용 자료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1(체계)	사전	출판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용법)	사전	출판						

## 2. 멀티미디어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제작 현황(2007년~현재)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형태	교육 자료명	교재							
멀티미디어	드라마로 배우는 생생한국어 '온리유' 1, 2 (영어/중국어/일본어)		개발/출판						
	멀티미디어 한국어 교육자료 제작 (누리-세종학당 디지털 자료관 탑재용)								개발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DVD 교육자료 (발음편/기초 대화편)								개발
온라인 강좌	한국어 라라라(학습자용)				초급				
	도란도란 한국어(학습자용)				초급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개발	운영	→	→	→
	세종학당 교원 대상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개발	운영	→	→
	누리-세종학당 온라인 강좌(3종)								개발

## 3. 한국어 교육 방송 제작·송출 현황(2007년~현재)

구 분			'07	'08	'09	'10	'11	'12	'13
형태	방송명	교재							
국내 학습자 대상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중급(중/베/러)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중급)	중급	중급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실용 한국어 초급(중/베/필)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1			초급	초급			
	다문화 사회 외국인들 위한 한국어(중/베/필)	방송 매체를 활용한 다문화 가정 한국어(초급)/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2, 3		초급	초급	중급1	중급1/중급2	중급2	중급3
	TV 유치원 파니파니 해바라랑 또나의 글자 놀이1	아름이 다ؤ미와 함께 배우는 한국어 1단계				1단계	1단계/2단계	2단계/3단계	3단계
국외 학습자 대상	두근두근 한국어2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한류 콘텐츠(드라마, K-팝, 오락 프로그램 등) 활용							초급 ~중급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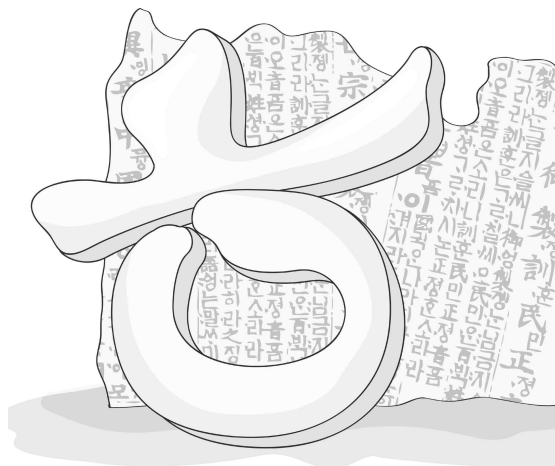
## 4. 국내 한국어 교원 (재)연수 프로그램 운영 현황( '10~)

종류	연도	시기	대상	주제(주요 내용)	비고
한국어 공동 연수회 개최	2010	1차	5년 이상 경력 교원	한국어교수법 특강, 분임별 사례 발표 및 토론	국내 대학 부설 기관 소속 한국어교원 대상
		2차	2년 내외 경력 교원	문법·듣기/읽기 교수법, 사례 발표 및 토론	
	2011	1차	5년 이상 경력 교원	교육과정 설계, 교원 리더십, 분임별 사례 분석 및 토론	
		2차	2년 내외 경력 교원	온라인을 활용한 한국어 강의, 초/중/고급 수업 진행 실제, 현장 사례 발표 및 토론	
	2012	1차	5년 이상 경력 교원	교재 개발 방법, 웹기반 교재 활용 방안, 교육 현장 사례 발표, 분임별 사례 분석 및 토론	
		2차	3년 내외 교원		
	2013	1차	5년 이상 경력 교원	학문 목적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교수법의 실제와 적용(말/듣/읽/쓰기, 자모 및 발음 등 5개 내용의 특강 및 분임 실습으로 운용)	
		2차	신임 교원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 교원 연수회	2012	1차(시범)	법무부 추천	교육 자료 개발	법무부와 업무 협약 체결(MOU)
	2013	1차(5월)		표현 교육(말하기, 쓰기)	
다문화가족 대상 한국어교원 연수	2010	1월~7월	여가부 추천	한국어교원 양성과정(133시간)	여성가족부와 업무 협의로 추진 *한국어 교원 재교육 실시로 변경('13~)
	2011	1월~7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133시간)	
	2012	1월~7월		한국어교원 양성과정(133시간)	
	2013	7월	2년~5년 경력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강사	교재 기반 한국어 표현(말하기, 듣기) 교수 방안, 한국어 교수학습 설계(이론과 실제)	



# 우리말 다듬기 강의의 이론과 실제

이대성 I 국립국어원





# 우리말 다듬기 강의의 이론과 실제

이대성(국립국어원)

## 국어순화와 우리말 다듬기

- 순화(醇化): 잡스러운 것을 걸러서 순수하게 함.
- 순수한 언어는 없다!
- 그러니 그대로 두어야 한다?
- ⇒ 순수한 언어가 아니라, 바른 언어가 목적
- ‘우리말 다듬기’ ≠ ‘국어순화’

## 바른 언어란?

- 쉬운 언어
- 언어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언어
- 합리적인 언어
- 차별과 배제가 없는 언어

⇒ 우리말 다듬기는 언어로써 사회 발전을 도모하는 일

## 쉬운 언어

- 정보 대중화, 공유, 소통의 기본 요건
  - 세종 정신의 계승, 진정한 민주적 가치의 실현
- 공공성 확보의 기초
  - 공공재로서의 언어는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됨
  - 예) 로드맵, 태스크포스, 아젠더, 마스터플랜, 비즈니스 프렌들리
- 굳이 알 필요가 없는 외래어를 알기 위해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낭비
  - 어려운 공공언어 때문에 연간 280억 원 낭비
  - 예) 맘프러너 (Mom Entrepreneur) 창업스쿨?

## 어려운 한자어

- 당해(當該) 사항→해당(該當)/이/그 사항
- 감독 의무를 해태(懈怠)하다→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다
- 개전(改悛)의 정이 현저(顯著)하다→뉘우치는 빛이 뚜렷하다
- 행정처분을 확행(確行)하다→행정처분을 엄격히 시행하다
- 승인을 득(得)한 후→승인을 얻은 다음에
- 익일(翌日)에 고지하다→다음 날 알리다
- 군 복무를 필(畢)한 자→군 복무를 마친 자

## 깊게 고민하고 쉽게 쓰기!

- 플레인 잉글리시 캠페인  
(Plain English Campaign)
- \*"High-quality learning environments are a necessary precondition for facilitation and enhancement of the ongoing learning process(양질의 교육환경은 지속적인 교육과정의 촉진과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 ☞"Children need good schools if they are to learn properly(어린이들이 제대로 배우려면 좋은 학교가 있어야 한다)."

## 깊게 고민하고 쉽게 쓰기!

“네거티브 방식의 경우 향후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중요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규제 조치를 ‘미래 유보’에 규정함으로써 정부의 규제 권한을 포괄적으로 유보할 수 있다.” <외교부 보도자료>

**[기자가 외교부 관계자에게 물어보니]**

“공공분야 등 중요 서비스 분야는 우리 정부가 무엇이든 규제할 권한을 갖는다. 도박 산업 등은 개방에서 예외”라는 뜻이라고 했다.

**[외교부 자료를 보다가 이건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성익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선일보 2011. 11. 5.>

## 언어공동체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언어

- 민족어는 민족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징표
  - ‘어머니’와 ‘Mother’는 동의어가 아니다.
  - 우리가 쓰고 있는 말 구석구석에는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가 스며있다.
- 학문할 수 없는 언어, 생산성을 잃은 언어, 생각을 담아내지 못하는 언어에 미래는 없다.
  - 조기 영어 교육, 대학가 영어 강의 유행의 문제
  - 신어의 절대 다수가 외래어
  - <멀티플레이어>와 <팔방돌이>의 차이

## 언어공동체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언어

- 동짓날 기나긴 밤을 한 허리를 베어내어  
준풍 이불 밑에 서리서리 넣었다가  
얼운 님 오신 날 밤이어든 구비구비 퍼리라
- 절취등지야반강      준풍피리굴번장  
유등무월랑래석      곡곡포서촌촌장
- 나를 닦아 가슴 안에 가득 차 커져 가는 Innocent.  
불꽃은 밝게 타오르게, 마지막으로 찬란한 노을처럼.  
(I'm) waiting for rising sun. Now, burn my eyes. Sun comes up, blowing the fog never lies, to be your mind. Got to be a true.

## 언어공동체의 역사와 문화를 품은 언어

- 외래어 남용의 밑바닥에는 언어사대주의가 있다.
  - 외래어 투성이 방송 제목들
  - ‘부서지다’와 ‘부숴지다’  
‘Wednesday’와 ‘Wendesday’ 중에 뭐가 맞을까?
  - 커플매니저, 파티플래너, 웹디자이너, 컨설턴트  
헤드헌터, 소물리에, 파티세, 바리스타
- 모국어와 외국어는 비교 대상도, 선택의 문제도 아니다.



## 독도는 우리 땅! 우리말은?

- 창씨개명
- 조선어 사용 금지
- 조선어학회 탄압 사건

☞ 일제의 조선어 억압 정책은 민족  
말살 정책의 핵심

## 생활 속의 일본어 찌꺼기

- 가라(空, から)→가짜 / ○ 가오(顔, かお)→체면
- 구사리(腐り, くさり)→핀잔
- 기스(←傷, きず)→흠 / ○ 나라비(竝び, ならび)→줄 서기
- 빼끼(←引き, ひき)→호객(꾼)
- 사라(皿, さら)→접시/그릇
- 엔꼬(えんこ)→바닥 / ○ 잇빠이(一杯)→가득, 한껏
- 쇼부(勝負, しょうぶ)→결판/승부
- 소데나시(袖無し, そでなし)→민소매

## 생활 속의 일본어 찌꺼기

- 와쿠(桜, あく)→틀 / ○ 우와기(上衣, うわぎ)→윗옷/상의
- 유도리(←ゆとり)→유연함/윙통성
- 지라시(散らし, ちらし)→전단지
- 후카시(吹かし, ふかし)→품재기
- 겐세이(牽制, けんせい)→방해/수비
- 다이(臺, だい)→대/판 / ○ 에리(襟, えり)→깃
- 시다바리(←下張り, しただり)→부하
- 분빠이(分配)→노느매기 / ○ 시마이(仕舞い)→마감, 마무리
- 노가다(←土方, どかた)→막노동/공사판 노동자

## 생활 속의 일본어 찌꺼기

- 바케쓰(bucket)→들통/양동이
- 밤바(bumper)→범퍼/완충기
- 밋테리(battery)→건전지/배터리
- 빠꾸(back)→후진/뒤
- 조끼(jug)→잔 / ○ 화이버(fiber)→안전모
- 올드미스(old miss)→노처녀
- 리야카(rear car)→손수레
- 백미러(back mirror)→뒷거울

## 생활 속의 일본어 찌꺼기

- 닭도리탕[-鳥(とり)湯]→닭볶음탕
- 비까번쩍하다(びか----)→번쩍번쩍하다
- 뽀록나다[←襤褸(ぼろ)--]→들통나다
- 왔다리 갔다리(-たり-たり)→왔다갔다
- 곤색[紺(こん)色]→감색/진남색
- 만땅(滿tank)→가득/가득 채움
- 소라색[空(そら)色]→하늘색

## 일본식 한자어(1)

- 공석(空席) → 빈자리      ○ 괘도(掛圖) → 걸그림
- 담합(談合) → 짬짜미      ○ 선착장(船着場) → 나루(터)
- 수취인(受取人) → 받는 이      ○ 절취선(截取線) → 자름선
- 종지부(終止符) → 마침표      ○ 금회(今回) → 이번 회
- 나대지(裸地) → 빈 집터      ○ 매물(賣物) → 팔 것
- 멸실(滅失) → 없어짐      ○ 시건(施鍵) 장치 → 잠금 장치
- 삭도(索道) → 밧줄      ○ 하구언(河口堰) → 강어긋둑
- 사양(仕様) → 설명/설명서/품목

## 일본식 한자어(2)

- 거래선(去來先) → 거래처      ○ 수입선(輸入先) → 수입국
- 제조원(製造元) → 제조사      ○ 공급원(供給元) → 공급처
- 매표구(賣票口) → 표 파는 곳      ○ 비상구(非常口) → 비상문
- 매상고(賣上高) → 판매액      ○ 수확고(收穫高) → 수확량/소출
- 가계약(假契約) → 임시계약      ○ 가처분(假處分) → 임시처분
- 공상자(空箱子) → 빈 상자      ○ 숙박계(宿泊届) → 숙박부

## 합리적인 언어

○ 문법은 사회적 약속을 체계화한 것이므로, 국어 고유의 문법을 지키는 것은 의사소통의 기초

- 의미가 통하지 않는 어휘 사용  
\*자문(諮問)을 구하다    \*쓰레기 분리수거
- 약어의 남용  
\*돌싱    \*버카충    \*FTA    \*LH공사
- 외국어식 문장

## 겉만 국어인 영어식 문장

- 학생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관심이 많습니다. [\*‘about’의 영향]
- 우리 회사는 서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서울에 있습니다. [\*‘be located in’의 영향]
- 진지하고도 솔직한 설명이 있었다.  
→진지하고 솔직하게 설명했다. [\*‘There is...’의 영향]
- 새로운 경제팀에는 유연한 정책 대응 자세가 요구된다.  
→새로운 경제부처들에는 유연한 정책 대응 자세가 필요하다.  
[\*‘요구되다’는 ‘be required of’의 영향]

## 겉만 국어인 일본어식 문장

- 그런 행위는 범죄에 다름 아닙니다.
  - 그런 행위는 범죄와 다름이 없습니다.
- 국기의 게양 및 관리 요령
  - 국기를 달고 관리하는 요령 [\*목적어적 속격 '의'는 일본어식 표현]
- 효과적인 읽기의 방법을 이야기해 보자.(고등 국어 교과서)
  - 효과적으로 읽는 방법을 이야기해 보자. [\*'의'의 남용은 일본어의 영향]
- 지금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다.(고등 국어 교과서)
  -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열심히 일하는 풍토이다.

## 차별과 배제가 없는 언어

- 차별과 배제, 편견과 욕설의 언어문화 개선
- ⇒ 언어는 당대의 사회 문화를 반영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 예) 가정부(家政婦)→가사도우미  
 잡상인(雜商人)→이동상인  
 살색→살구색  
 미망인(未亡人)  
 미모의 명문대 의대생 살해 사건  
 60대 할머니 살해 사건

##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

- 기존의 우리말 다듬기는 대중성과 시의성 및 홍보의 측면에서 두루 부족했음.

\*자외선(紫外線)→넘보라살

\*용적(容積)→담이

- 국립국어원에서 2004년 7월부터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http://malteo.korean.go.kr>)” 개설

\*상향식, 쌍방향식, 언어대중의 자율성 지향

\*선정된 다듬은말의 제안자에게 상품권 지급

## 이렇게 고쳐 써 보세요.

- 웰빙(well being)→**참살이**
- 이모티콘(emoticon)→**그림말**
- 네티즌(netizen)→**누리꾼**
- 포스트잇(post it)→**붙임쪽지**
- 클린센터(clean center)→**청백리마당**
- 블로그(blog)→**누리사랑방**
- 헝그리정신(hungry精神)→**맨주먹정신**
- 투잡(two job)→**겹벌이**
- 메신저(messenger)→**쪽지창**

## 이렇게 고쳐 써 보세요.

- 터프가이(tough guy)→**쾌남아**
- 드레싱(dressing)→**맛깔장**
- 다크서클(dark circle)→**눈그늘**
- 매치업(match up)→**맞대결**
- 타임서비스(time service)→**반짝할인**
- 스카이라운지(sky lounge)→**하늘쉼터**
- 언론플레이(言論play)→**여론몰이**
- 핫팬츠(hot pants)→**한뼘바지**
- 웹서핑(web surfing)→**누리검색**

## 토론 자료(1)

### ○ <국어 순화>(허철구)

“언어는 여러 가지 다른 말이 들어와 섞이기도 하고 또 변하기도 하므로 지금 국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몇몇 학자가 아니라 국어를 쓰는 대중이 국어의 병적인 현상을 못마땅하게 여겨 그 교정을 요구한다면 적어도 이는 국어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남들이 지나치게 국어의 질서를 벗어나는 말을 쓰면 그 잘못을 지적하고 고치려는 욕구가 대중에게 있는 한 국어 순화는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 토론 자료(2)

### ○ <국어 순화는 국어 풍요가 되어야 한다> (이남호)

“첫째는, 우리 것의 순수성에 매이지 말고 더 과감하게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함부로 사용하는 일보다 어법에 맞지 않거나 너저분한 글을 쓰는 일이 훨씬 부끄러운 일이며, 좋은 글을 쓰는 것이 곧 국어 발전에 이바지하는 일이라는 인식을 널리 확산시키는 국어 순화 운동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어 순화의 시야를 단어 차원에서 문장, 단락, 글의 차원으로 넓혀야 한다.”

## 토론 자료(3)

### ○ <국어순화의 문제점과 극복의 길> (김하수)

“한국어의 순화 운동은 넓은 틀에서 언어 발전의 한 과정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 순화 작업은 순수 토착어나의 여부보다는 우리 사회와 역사가 발전하는 데에 언어가 어떤 구실을 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로 전환되는 것이다. 지금 국어학적으로 순화 운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낡은 시각은, 언어 변화는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잘못된 의식과 어휘의 내적 구조는 기본적으로 형태소에서 출발한다는 고정관념, 그리고 어휘의 정당성을 ‘어원’에 지나치게 기대려 하는 자세 등이다.”

## 토론 자료(4)

### ○ <섞임과 스밈>(고종석)

“순수한 고유어를 찾아 사용하자고 캠페인을 벌이는 사람들이야말로 알량한 순혈의 자긍심에 집착하느라 소통의 의지를 접고 있다. 그리고 그 순혈주의의 속살은 아집과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 게다가 섞임과 스밈은 문화적 생물학적 진화의 피할 수 없는 요건이다. ‘순수한 한국어’라는 것 역시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허깨비다. 설령 그런 것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순수한 한국어’만으로 이뤄진 언어체계는 흥측하기 짝이 없는 전체주의의 언어일 것이다. 아름다운 순수어를 고집하는 마음은 아름답지 않다. 아름다움은 섞임과 스밈 속에, 불순함 속에 있다.”

## 토론 자료(5)

### ○ <연암의 중국어 실력과 ‘영어파시즘’>(고미숙)

“심지어 대학에서는 영어로 하는 수업을 늘여갈 작정이란다. ... 대체 뭘 위해서? <열하일기>에 나오는 ‘중국통’들이 그랬듯이, 오직 관광과 영업을 위해서? 솔직히, 작금의 이 영어광풍에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라는 지상과제 외에 어떤 문명적 비전이 있는가? 그런 점에서 이건 분명 파시즘이다. 국가와 자본의 공모하에 전국민을 영어라는 ‘남근’을 향해 질주하도록 몰아붙이는 파시즘! 어떤 유형이건 파시즘의 진군 앞에선 궁극적으로 삶의 다양성과 생명력이 고갈되어 버린다는 것, 반드시 환기해야 할 사항이다.”

## 토론 자료(6)

### ○ <우리는 모두 그리스인이다>(고종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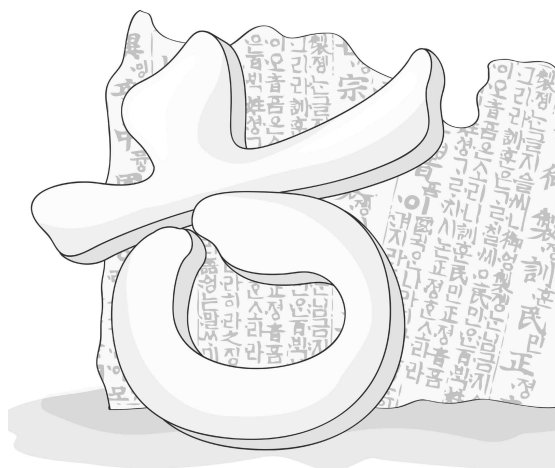
“공용어로서의 영어를 반대한다는 것은, 지식과 정보를 특정집단이 독점하는 걸 허락하겠다는 뜻이다. 라틴어와 한문을 읽고 쓸 수 있었던 중세의 엘리트들이 지식을 독점했듯이 말이다. 지식과 정보는 곧 권력이다. 영어가 공용어가 되든 안 되든, 우리 사회의 지배계층은 자기 자식들에게 영어를 열심히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영어에 익숙해진 그들의 자식들은 영어에 익숙하지 못해 지식과 정보에서 소외된 일반 대중의 자식들 위에 군림할 것이다. 내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는 특정집단에 의한 그런 식의 지식의 독점을 당연시하지 않는다.”

우리말, 우리글  
더욱  
아끼고 사랑합시다



# 다듬어야 할 우리말의 모습

박용찬 I 대구대학교





## 다듬어야 할 우리말의 모습

박용찬(대구대 국어교육과)

### 1. 머리말

국어 순화는 국어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져 온 영역이다. 그리하여 국립국어연구원은 개원 이래 국어 순화를 실천하기 위해 총 27개 전문 분야에 걸쳐 2만여 개 이상의 순화어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순화어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순화어를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순화어 제정에 급급하여 순화어를 적절하게 마련하고 어떻게 널리 보급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 그 결과 대다수의 순화어는 일반 국민에게 널리 보급되지 못한 채 국어사전 속에 사장되다시피 되었다. 앞으로는 순화어를 제대로 마련하여 이를 일반 국민에게 널리 보급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

지금까지의 국어 순화에서는 일본어를 중심으로 한자어, 외래어에 대한 순화어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외래어, 외국어가 사회의 각 분야에서 남용되고 있다. 일본어, 한자어보다는 외래어, 외국어에 대하여 시의 적절하게 순화어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특히, 정보 통신이나 경제 분야의 전문어는 대개 외래어, 외국어라서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는 일반 국민은 그 뜻을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게다가 지금처럼 외래어, 외국어의 무분별한 남용을 방치하게 되면 우리 사회에 우리말을 경시하고 외국어를 중시하는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

말과 국가·민족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말은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말이 오르면 나라도 오르고, 말이 내리면 나라도 내린다.” 라는 주시경 선생의 말을 다시 한번 더 되새겨 볼 때이다. 이것은 말의 흥망성쇠(興亡盛衰)와 국가의 흥망성쇠는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말이 흥(興)하거나 성(盛)하면 국가도 흥하거나 성하고, 말이 망(亡)하거나 쇠(衰)하면 국가도 망하거나 쇠하여진다는 뜻이다. 한때 중원(中原)을 차지하여 중국을 지배하던 만주족이 그들 고유의 언어인 만주어를 잃어버려 결국에 국가뿐만 아니라 민족 자체가 거의 소멸해 버린 것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 2. 일본어(일본어투 용어)

광복 후 꾸준히 펼쳐 온 국어 순화 운동과 국어 교육의 결과로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언어생활에 깊숙하게 침투해 있던 일본어가 많이 사라졌다.

우리말에 침투되어 있는 일본어는 다음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① 순 일본어

이지메(いじめ) → (집단) 괴롭힘

빼끼/히키[ひ(引)き] → ① (손님) 끌기 ② 여리꾼 ③ 호객꾼(呼客-)

찌라시/지라시[ち(散)らし] → ① 선전지(宣傳紙) ② 낱장 광고(-張廣告)

가라[から(空)] → ① 가짜(假-) ② 헛-

나시[な(無)し] → ① 민소매 ② 맨팔(옷)

소데나시[そで な(無)し] → ① 민소매 ② 맨팔(옷)

몸빼[もんぺ] → ① 일 바지 ② 왜 바지(倭--)

땡깡(てんかん) → ① 생떼(生-) ② 투정 ③ 떼쓰기

## ② 일본식 한자어<sup>1)</sup>

고수부지(高水敷地) → ① 둔치 (마당) ② 강터(江-)

망년회(忘年會) → ① 송년 모임(送年--) ② 송년회(送年會)

노견(路肩←shoulder) → 갓길

부락(部落) → 마을

사양(仕様) → ① 설명(說明)/설명서(說明書) ② 품목(品目)

사양서(仕様書) → ① 설명서(說明書) ② 시방서(示方書)

시건장치(施鍵裝置) → 잠금장치(--裝置)

원조 교제(援助交際) → 청소년 성 매매(青少年性賣買)

신년 교례회(新年交禮會) → ① 신년 하례식(新年賀禮式) ② 신년 인사 모임(新年人事--)

## ③ 일본식 발음의 서구 외래어<sup>2)</sup>

쓰레빠(slipper) → 슬리퍼

사라다(salad) → 샐러드

고로케(㉠croquette) → 크로켓

빠구(back) → 백 → ① 뒤로 ② 후진(後進) ③ 퇴짜(←退字)

마후라(muffler) → 머플러 → 소음기(消音器)

남바(number) → 넘버 → 차례표(次例表)

바란스(balance) → 밸런스 → 균형(均衡)

다시(dash) → 대시 → 줄표(-標)

## ④ 일본식 영어

1) 일본식 한자어의 판별은 그리 쉽지 않다. 최근까지도 결혼(結婚), 교포(僑胞) 따위를 일본식 한자어로 보는 사람도 적지 않으나 이는 일본식 한자어로 볼 수 없다. ‘해외(海外)’, ‘입장(立場)’ 따위의 경우에는 이들이 일본식 한자어이므로 ‘국외(國外)’, ‘처지(處地)’ 따위로 바꾸어 써야 한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우리말로 완전히 굳어진 한자어로서 바꾸어 쓰기 힘들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2) 이는 엄밀하게 말한다면 외래어 표기를 바꾼 것에 해당하므로 국어 순화의 예라 하기 어렵다.

올드미스(old miss) → 노처녀(老處女)  
 포볼(four ball) → ① 볼넷(ball-) ② 사구(四球)  
 레지(←register, 회계 담당자) → ① 종업원(從業員) ② 다방 종업원(茶房從業員)  
 리어카(rear car) → 손수레  
 쇼바(←shock absorber) → 완충기(緩衝器)  
 아이스커피(←iced coffee) → 냉커피(冷coffee)  
 골인(goal in) → 득점(得點)  
 마이카(my car) → ① 자가용 (차)(自家用車) ② 자기 차(自己車) ③ 내 차(-車)  
 하이틴(high teen) → ① 십 대(十代) ② 청소년(靑少年)

#### ⑤ 혼합형

만땅(滿tank) → ① 가득 (채움) ② 가득 참  
 가라오케[から(空) オーケストラ(←orchestra)] → ① 녹음 반주(錄音伴奏) ② 노래방(--房)

그러나 건설, 식생활 등 몇몇 전문 분야에서는 아직도 일본어가 널리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당구장에서 사용하는 용어 대부분은 일본어 일색(一色)이어서 혹여기가 일본 땅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이다.

#### ⑥ 건설 분야

신마이[しんまい(←新前)] → ① 신출내기(新出--) ② 신참(新參)  
 구루마[くるま(車)] → ① 수레 ② 달구지  
 단가[たんか(擔架)] → 들것  
 나라시[なら(均)し] → 고르기  
 지나라시[じなら(地均)し] → 땅고르기  
 시키나라시[しきなら(敷均)し] → 펴 고르기  
 시마이[しま(終)い] → ① 끝(마침) ② 끝남 ③ 끝냄 ④ 마감

#### ⑦ 식생활 분야

다시[だ(出)し] → 맛국물  
 덴푸라/뎀뿌라(てんぷら) → 튀김  
 아나고[あなご(穴子)] → ① 봉장어(-長魚) ② 바닷장어(--長魚)  
 와사비[わさび(山葵)] → 고추냉이  
 우동[うどん(饅飩)] → 가락국수  
 쓰키다시[つ(付)き出(だ)し] → 곁들이 안주(---按酒)  
 야키만두[や(焼)き饅頭] → 군만두(-饅頭)  
 오뎅[おでん(御田)] → ① 꼬치 ② 꼬치안주(--按酒)

오방떡[おおばん(大判)-] → ① 폴빵 ② 왕폴빵(王--)  
 센베이[せんべい(煎餅)] → 전병 과자(煎餅)  
 모나카[もなか(最中)] → 팔소 과자(--菓子)  
 모찌떡[もち(餅)-] → ① 떡 ② 참쌀떡  
 찜뽕(ちゃんぽん) → ① 초마면, (얼큰탕) ② 뒤섞기<sup>3)</sup>  
 양꼬(あんこ) → 팔소  
 소바(そば) → 메밀(국수)

#### ⑧ 당구 분야

가쿠[ぎゃく(逆)] → 반대 치기  
 나메/나미[な(嘗)め] → 얹게 치기  
 오시[お(押)し] → 밀어 치기  
 히네리[ひね(捻)り] → 틀어 치기  
 히키[ひ(引)き] → 끌어 치기  
 히카케/시카키[ひっか(引掛)け] → 걸어 치기  
 사가리/픽사리[さ(下)がり] → 헛치기  
 시로/히로[しろ(白)] → 흰 공 맞기  
 기레이[きれい(奇麗)] → 좋아  
 리쿠/니쿠[りく(陸)] → 겹쳐 밀기

다음 예들은 오래 전에 국어에 유입된 말로서 깊은 통찰이 없이는 우리말인지 일본어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

#### ⑨ 우리말로 혼동하기 쉬운 예

뽀록나다[←ぼろ(襤褸)--] → ① 드러나다 ② 들통(이) 나다  
 비까번쩍하다[←ぴかぴか--] → 번쩍번쩍하다  
 닥상이다[たくさん(澤山)--] → ① 충분하다, 넉넉하다 ② 제격이다  
 사바사바하다[さばさば--] → ① 험잡하다 ② 째짜미하다  
 쓰리(すり) → 소매치기  
 이빠이/잇파이(いっぱい) → ① 가득(히) ② 많이  
 후카시하다[ふ(吹)かし--] → 부풀리다  
 텃뽕[てっぱん(鐵板)] → ① 우두머리 ② 두목  
 무텃뽕[むてっぽう(無鐵砲)] → ① 막무가내 ② 무모

3) “맥주에 소주에 양주까지 **찜뽕**으로 마셔 댄 나는 곧 정신을 잃었다.”나 “친구는 소주고 막걸리고 가리지 않고 **찜뽕해서** 마시고 있었다.”처럼 쓰이는 예는 각각 ‘뒤섞기’, ‘뒤섞기하다’로 바꾸어 써야 할 것이다.

### 3. 한자어

우리말의 한자어는 여러 기원(전통 한자어, 한국식 한자어<sup>4)</sup>, 일본식 한자어)을 가지는데 그 가운데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말로 바꾸는 것이다. 한자어는 조어력이 뛰어나 우리말의 어휘를 풍부하게 해 주는 장점이 있지만 일반 국민이 어렵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국어 순화의 대상이 된다. 특히, 앞의 (2)에서 본 바 있는 일본식 한자어에 대한 거부감이 두드러진다.

#### ⑩ 일본식 한자어

수입(手入) → 손질

취소(取消) → ① 말소(抹消, → ① 지움 ② 지워 없앴) ② 무름

취조(取調) → 문초(問招)

#### ⑪ 일본식 한자어로 의심되는 예

가봉(假縫) → ① 시침바느질 ② 시침질

구서(驅鼠) → 쥐 잡기

급사(給仕) → ① 사환(使喚) ② 사동(使童)

매점(買占) → 사재기

할증료(割増料) → ① 웃돈 ② 추가금(追加金)

한자어 가운데 일본어처럼 읽히는 것은 국어 순화의 대상이 되지만 한국 한자음으로 읽히는 것은 그대로 인정되는 말이 있다. 이는 해당 한자어가 일본에서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이전부터 널리 사용돼 온 말이기 때문이다.

#### ⑫ 일본 한자음으로 읽히는 한자어

가꾸목(角木) → ① 목재(木材) ② 각재(角材) \*각목(角木)도 가능

곤색(紺色) → ① 검남색(-藍色) ② 진남색(津藍色) \*감색(紺色)

곤조(根性) → ① 본성(本性) ② 심지(心地) \*근성(根性)도 가능

쇼부(勝負) → ① 흥정 ② 결판(決判) \*승부(勝負)도 가능

우와기(上衣) → ① 윗도리 ② (양복) 저고리 \*상의(上衣)도 가능

전통적으로 써 왔더라도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는 국어 순화의 대상이 된다.

#### ⑬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

4) ‘시택(嫗宅)’, ‘총각(總角)’ 따위는 대표적인 한국식 한자어이다.

비산(飛散)하다 → ① 흩날리다 ② 날리다

양생(養生)하다 → 굳히다

다발(多發)하다 → 잦다

은닉(隱匿)하다 → ① 숨기다 ② 감추다

난색(難色)을 표명(表明)하다 → 어려운 빛을 나타내다/보이다

전력(全力)을 경주(傾注)하다 → 온 힘을 기울이다

#### 4. 서구 외래어

우리말에서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10%를 넘지 않는다. “표준국어대사전” (1999년 국립국어연구원 간행)에 실려 있는 총 440,594개의 주표제어<sup>5)</sup>에서 외래어는 총 24,019개로 전체의 5.4%를 차지하며 외래어가 일부 포함된 것까지 포함하면 총 40,542개로 전체의 9.2%를 차지한다. 그리고 순수 외래어 24,019개 가운데 21,492개 (순수 외래어의 89.5%)가 영어에서 들어온 말이다. 외래어 가운데 열에 아홉은 영어와 관련되는 말인 셈이다. 이는 한자어를 제외하여 말한다면 외국어 가운데 영어가 우리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는 사실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세계화, 국제화 추세로 외국과의 교류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새로이 생성되는 쓰이는 말(신어)에서 외래어가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외래어를 사용하는 것은 얼마간 불가피하다. 외국과의 교류를 통해서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소개되는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말은 모두 외국어라서 그것을 우리말(고유어나 한자어)로 바꿔 쓰지 않는 한 외국어에서 그대로 빌려다 쓰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외래어(특히, 영어)가 우리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훨씬 더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하여 국립국어연구원에서는 1991년 개원 이래 1992년부터 10여 년 동안 꾸준히 외래어를 포함한 한자어, 일본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국어 순화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금까지 총 20,530개의 말을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여 발표하였는데 순화해서 써야 할 말로 전체의 32.1%에 달하는 총 6,582개의 외래어를 선정한 것도 바로 이런 심각성을 절감한 데 따른 것이다.<sup>6)</sup>

외래어는 외국과의 교류로 새로운 사물이나 개념을 받아들이면서 그것과 함께 들어와서 쓰는 말이다. 그리하여 외래어는 ‘웰빙(well-being)’, ‘스크린 도어(screen door)’, ‘올인(all-in)’, ‘모기지 론(mortgage loan)’ 따위처럼 대개 사물이나 개념을 가리키는 명사이다. 동사나 형용사는 어느 언어에서나 기본 어휘에 속하므로 명사와 달리 외국어에서 차용하여 쓰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거나 부자연스럽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는 영어의 동사나 형용사까지도 그대로 가져다 쓰는

5)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부표제어 68,482개를 포함하여 총 509,076개의 표제어가 실려 있다.

6) 특히, 전산기(컴퓨터), 스포츠, 경제, 연극, 의상(패션) 따위의 전문 분야에서 사용하는 용어에서 외래어가 많았다. 그 밖에 구체적인 조사가 없어 단정하긴 힘들지만 영화, 음악 따위의 전문 분야에서도 외래어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이 잦아지고 있다. 해당 고유어나 한자어가 있는데 영어의 동사나 형용사를 가져다 쓰는 것이다. 유행어로 떠도는 정도로 볼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나 최근에는 이런 말이 다량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 우리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영어의 동사나 명사(동명사형 포함)는 우리말에서 ‘-하다’ 나 ‘-되다’를 결합하기만 동사로 쓸 수 있다.<sup>7)</sup> ‘트레이드(trade)하다’, ‘리메이크(remake)하다’, ‘컴백(comeback)하다’, ‘슛(shoot)하다’, ‘블로킹(blocking)하다’, ‘스매싱(sma shing)하다’; ‘업그레이드(upgrade)되다’, ‘매치(match)되다’, ‘클로즈업(close-up)되다’, ‘키핑(keeping)되다’ 따위가 그러한 예들이다. 이는 우리말에서 ‘일하다’, ‘공부(工夫)하다’ 따위처럼 ‘-하다’ 나 ‘-되다’가 고유어나 한자어 명사에 결합하여 손쉽게 동사를 만드는 사실에서 유추해 낸 것이다. 영어의 명사(동명사형 포함)는 ‘그룹화(group化)하다’, ‘브랜드화(brand化)하다’, ‘제로화(zero化)하다’, ‘버블화(bubble化)되다’ 따위처럼 ‘-화(化)’를 결합한 후 거기에 다시 ‘-하다’ 나 ‘-되다’를 결합하여 동사로 쓰기도 한다.

영어 형용사에도 ‘스마트(smart)하다’, ‘슬림(slim)하다’, ‘프레시(fresh)하다’, ‘댄디(dandy)하다’, ‘엑셀런트(excellent)하다’, ‘미니멀(minimal)하다’, ‘샤프(sharp)하다’, ‘스타일리시(stylish)하다’, ‘앤티크(antique)하다’, ‘쿨(cool)하다’, ‘터프(tough)하다’, ‘트렌디(trendy)하다’, ‘빈티지(vintage)하다’, ‘베이직(basic)하다’, ‘원더풀(wonderful)하다’, ‘프로페셔널(professional)하다’, ‘드라마틱(dramatic)하다’, ‘글래머러스(glamorous)하다’, ‘글로벌(global)하다’, ‘보이시(boyish)하다’, ‘비비드(vivid)하다’, ‘센세이셔널(sensational)하다’, ‘에너지틱(energetic)하다’, ‘클래식(classic)하다’, ‘파워풀(powerful)하다’, ‘패셔너블(fashionable)하다’ 따위처럼 우리말에서 ‘-하다’를 덧붙이기만 하면 우리말의 형용사로 둔갑을 해 버린다. 영어의 형용사는 ‘클린화(clean化)하다’/ ‘클린화(clean化)되다’, ‘슬림화(slim化)하다’ 따위처럼 ‘-화(化)’를 결합한 후 거기에 다시 ‘-하다’ 나 ‘-되다’를 결합하면 우리말에서 동사로 쓰일 수 있다.

영어 형용사의 경우, ‘스마트 폭탄(smart爆彈)’(‘smart bomb’의 부분 번역어), ‘슬림형(slim形)’, ‘글로벌 예산(global豫算)’, ‘클린 산업(clean産業)’ 따위처럼 우리말로 완전히 굳어진 형용사처럼 합성어나 구를 구성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즉, 영어 형용사인 ‘스마트(smart)’, ‘슬림(slim)’, ‘글로벌(global)’, ‘클린(clean)’ 따위가 한자어와 결합하여 우리말의 형용사처럼 쓰인다. 최근 널리 쓰이고 있는 ‘롱다리(long--)', ‘숏다리(short--)' 따위의 신조어는 우리말에서 ‘롱(long)하다’, ‘숏/쇼트(short)하다’란 말 자체가 전혀 쓰이지 않는데도 영어 형용사 ‘롱(long)’, ‘숏/쇼트(short)’를 그대로 우리말의 형용사처럼 쓴 예이다.

최근에는 ‘오케이(OK)’, ‘헤이(hey)’, ‘하이(hi)’, ‘와우(wow)’, ‘웁스(oop s)’ 따위와 같은 영어의 감탄사도 젊은이 사이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아직 외래어로 보기 어렵고 외국어로서 유행어 차원이긴 하나 특기할 만하다.

명사 아닌 동사나 형용사를 외국어에서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

7) 외국어의 동사는 우리말의 외래어로 받아들일 때 동사가 아닌 명사로 인식된다. 따라서 영어의 동사도 우리말에서 명사로 재인식된 후 거기에 ‘-하다’나 ‘-되다’가 결합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

거나 부자연스럽다. 특히, 위에서 본 형용사나 감탄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거나 본능적인 놀람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단어의 부류로서 외국어에서 빌려다 쓰는 것은 아주 부자연스러운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이들 대부분은 국어 순화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홈페이지(home page)’, ‘네티즌(netizen)’ 따위처럼 외국어에서 명사와 같은 어휘 형태를 차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데 반해 문법 형태의 차용은 아주 드물다. 이 전에도 간혹 ‘바보틱하다’, ‘유아틱하다’, ‘시골틱하다’ 따위처럼 ‘-tic’과 같은 문법 형태를 차용한 것처럼 보이는 예도 쓰였으나<sup>8)</sup> 이는 유행어 차원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외국어의 문법 형태를 차용하여 생성된 말이 적지 않다.

우선 영어에서 자립성이 없는 문법 형태가 어휘 형태처럼 자립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techno-’, ‘cyber(-)’, ‘multi-’는 영어의 접사인데 우리말에 들어와 비교적 자립적으로 쓰이고 있다. ‘테크노 뽕짝(techno--)', ‘테크노클럽(techno club)’ : ‘사이버 중독자(cyber中毒者)’, ‘사이버 범죄(cyber犯罪)’, ‘사이버 아파트(cyber apart)’ : ‘멀티카페(multi ☉café)’, ‘멀티 세대(multi 世代)’ 따위의 예에서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sup>9)</sup>

그리고 영어 접사 ‘-ism’, ‘-ist’ 따위를 우리말의 접사처럼 활용하여 새로운 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즉, 이들 영어 접사가 ‘귀차니즘(←귀찮다+-ism)’, ‘네타티즘(←네타트+-ism)’ : ‘귀차니스트(←귀찮다+-ist)’, ‘재미니스트(재미+(n)+-ist)’ 따위처럼 우리말의 고유어와 결합하여 쓰이는데 이는 문법 형태가 차용되어 쓰이는 것으로 특이한 예에 속한다.<sup>10)</sup> 또한 영어 접사 ‘-er’를 ‘힙후퍼[hiphopper←hiphoop(←hiphop+hoop)+-er]’, ‘플래시모버(flash mobber←flash mob+(b)+-er)’ 따위에서처럼 외래어에 영어 접사 ‘-er’를 결합하여 새로운 한국식 외래어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sup>11)</sup>

외래어는 외국어에서 직접이든 간접이든 유입되어 쓰이는 말이다.<sup>12)</sup> 그런데 우리말에는 외래어나 외국어를 재료로 하여 우리말 식대로 만들어 낸 자생적인 외래어인 한국식 외래어(대부분은 한국식 영어)가 적지 않다. ‘더치페이(Dutch pay)’,

8) 아마도 ‘에로틱(erotic)’, ‘로맨틱(romantic)’ 따위의 말에서 ‘틱’을, 명사를 형용사로 파생시키는 접사로 파악한 것으로 보이는데 현대 영어에서 ‘-tic’은 생산적인 접사로 볼 수 없다. 또한 ‘erotic’은 명사 ‘ero’에 접사 ‘-tic’이 결합하여 생성된 말이 아니다.

9) 이 가운데 ‘cyber’는 최근 들어 영어권에서 접두사 아닌 명사로 쓰이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다. ‘cyber ☉café’, ‘cyber crime’, ‘cyber sex’ 따위에서처럼 ‘cyber’가 ‘cyberspace’의 준말로 쓰이는 경우이다. ‘cyber crime’을 부분 번역한 말이 ‘사이버 범죄’이다.

10) ‘재미니스트’는 ‘귀차니스트’에 유추하여 만들어 낸 말인데 ‘귀차니스트’를 ‘귀차+-니스트’로 오분석하여 ‘-니스트’를 접사로 인식한 데 따른 것이다.

11) 이와 정반대로 영어의 어휘 형태가 우리말에서 특정 환경에 빈번하게 쓰여 문법 형태처럼 쓰이는 예도 있다. 예를 들어 ‘광고맨(廣告man)’, ‘세계맨(世界man)’, ‘홍보맨(弘報man)’, ‘패밀리맨(family man)’, ‘벤치맨(bench man)’, ‘아이스맨(ice man)’, ‘오버맨(over man)’ 따위의 ‘맨(man)’과, ‘리조트룩(resort look)’, ‘마린룩(marine look)’, ‘페미니티룩(femininity look)’, ‘캐포츠룩(caports look)’, ‘클럽룩(club look)’, ‘페미쿨린룩(femculine look)’ 따위의 ‘룩(look)’은 우리말에서 흡사 접미사처럼 쓰이고 있다.

12) 우리말의 외래어에는 특히, 일본을 통해 간접으로 유입된 말이 많다.

‘러브호텔(love hotel)’, ‘마마보이(mamma’s boy)’, ‘모닝커피(morning coffee)’, ‘백넘버(back number)’, ‘스킨십(skinship)’, ‘아이쇼핑(eye shopping)’, ‘엠티(M.T.←Membership Training)’, ‘올백(all back)’, ‘카센터(car center)’, ‘로틴(low teen)’, ‘핸드폰(hand phone)’, ‘홈뱅킹(home banking)’ 따위는 오래전부터 널리 쓰이고 있는 한국식 외래어의 대표적인 예이다.<sup>13)</sup> 이 가운데에는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 쓴 일본식 외래어가 재차용된 경우가 몇몇 포함된 것으로 보이거나<sup>14)</sup> 현재로서는 한국식 외래어인지 일본식 외래어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

최근에도 ‘룸미러(room mirror)’, ‘버터맨(butter man, 느끼한 남자)’, ‘이슈걸(issue girl)’, ‘이지걸(easy girl)’, ‘펀데이(fun day)’ 따위와 같은 한국식 외래어가 꾸준히 새로이 생성되어 쓰이고 있다. 이러한 한국식 외래어에 대하여 그간 우리말의 외래어 연구에서는 우리말 오용의 하나로 보아 무조건 국어 순화의 대상으로 보아 왔다. 그리하여 야구 용어의 하나인 ‘포볼(four ball)’을 한국식 영어(엄밀히 이야기하면 일본식 영어)라 하여 ‘볼넷(ball-)’, ‘사구(四球)’ 따위로 바꿔 쓰도록 하거나 영어권에서 통용되는 ‘베이스 온 볼(base on balls)’이라는 원어로 대신하려 한 일까지 있었다. ‘핸드폰(hand phone)’을 ‘휴대 전화(携帶電話)’, ‘이동 전화(移動電話)’, ‘손전화(-電話)’ 따위나 ‘셀(룰러)폰(cellular phone)’ / ‘모바일폰(mobile phone)’으로 대신하는 것도 이와 똑같은 이유에서이다.<sup>15)</sup> 그런데 최근 들어 이들도 우리말에서 긍정적, 창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가 일부에서나마 대두되고 있다.

초기의 한국식 영어는 대체적으로 외국어나 외래어를 재료를 하여 한국어의 의미 구조에 맞추어 두 단어를 차례대로 연결하여 쓰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 영어의 준말 가운데 하나인 ‘혼성어·혼효어(blend-word·portmanteau word)’에 유추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한국식 영어를 만들어 낸다.

‘혼성어·혼효어(blend-word·portmanteau word)’는 두 개의 단어가 차례대로 연결된 어구에서 앞 단어의 앞부분과 뒤 단어의 뒷부분을 혼합하여 새로이 만들어 낸 말이다. 영어권에서는 ‘스모그(smog←smoke+fog)’, ‘모텔[motel←motor(ists)+hotel]’, ‘브런치(brunch←breakfast+lunch)’, ‘유라시아(Eurasia←Europe+Asia)’, ‘비트(bit←binary+digit)’, ‘네티즌(netizen←network+citizen)’ 따위를 전통적으로 혼성어·혼효어의 예로 보아 왔으며 최근에도 ‘가비네이터(govinator←governor+Terminator)’, ‘텔리오네르(Dellionaire←Dell+millionaire)’, ‘매니(manny←man+manny)’, ‘머스(murse←man+nurse)’, ‘윈텔(Wintel←Window+Intel)’, ‘팝페라(pope ra←pop+opera)’ 따위와 같은 혼성어·혼효어가 다량으로 새로이 만들어져 쓰이고

13) “나이스 샷(Nice shot! → Good shot!)”, “원샷(One shot! → Chug-a-lug! 또는 Chug!)”, “파이팅(Fighting! → Go! 또는 Way to go!)”, “오라이/올 라이트(All right! → Okay! 또는 All clear!)” 따위처럼 감탄사로 쓰이는 예도 적지 않다.

14) 일본식 외래어로 널리 알려진 것으로는 앞에서 살펴본 ‘리어카(rear car)’, ‘올드미스(old miss)’, ‘골인(goal in)’, ‘마이카(my car)’, ‘하이틴(high teen)’ 따위와 오토바이(←auto bicycle), ‘카스테레오(car stereo)’, ‘홈드라마(home drama)’ 따위를 들 수 있다.

15) ‘핸드폰(hand phone)’을 일본식 영어로 보는 이도 있으나 이는 명확하지 않다.

있다.

이러한 혼성·혼효의 방식이 우리말에서도 단어 조성법의 하나로 점차 정착되어 가고 있다. ‘넷파이(netpy←network+spy)’, ‘댄커스(dancus←dance+circus)’, ‘디지툰(←digi tal+cartoon)’, ‘레캉스[le(i)cance←leisure+㉠vacance]’, ‘로티즌(←lott o+netizen)’, ‘뮤페라(←musical+opera)’, ‘사이쳐(cycher←cyber+teacher)’, ‘샐러던트(saladent←salaried man+student)’, ‘섹티즌(sextizen←sex+netizen)’, ‘슈터링(shootering←shoot+centering)’, ‘아나텔(anatal←analogue+digital)’, ‘카파라치(carparazzi←car+㉡paparazzi)’, ‘캐포츠(caports←casual+sports)’, ‘폰팅[phon(e)ting←phone+meeting]’, ‘폰페이지[phon(e)page←phone+homepage]’ 따위처럼 최근 들어서 다량의 혼성어·혼효어가 생성되어 쓰이고 있는 것을 통해 그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 가운데에서는 본래 영어권에서 생성되어 쓰이다가 우리말에 직접 차용되거나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 쓴 일본식 외래어가 재차용된 말도 더러 있는 것으로 보인다.<sup>16)</sup>

혼성·혼효의 방식이 우리말에서 단어 조성법의 하나로 점차 정착되어 감에 따라 ‘차파라치(←車+㉡paparazzi)/쓰파라치(←쓰레기+㉡paparazzi)/담파라치(←담배+㉡paparazzi)’, ‘여티즌(←女子+netizen)/욕티즌(←辱詆+netizen)/아티즌(←아춤+netizen)’, ‘소개팅(←紹介+meeting)/책팅(←冊+meeting)’, ‘리권(←rhythm+跆拳道)’, ‘세피아(←稅+㉡Mafia)’, ‘태보(taebo←跆拳道+boxing)’ 따위처럼 한자어나 고유어가 포함된 어구에서도 혼성어·혼효어를 생성해 내기도 한다. 급기야 ‘라볶이(←らめん+떡볶이)’, ‘취집(←就職+시(嫗)집)’, ‘갈집살(←갈비+삼겹살)’, ‘화장약품(←化粧品+藥品)’ 따위처럼 서구 외국어나 외래어가 포함되지 않은 어구에서 생성된 혼성어·혼효어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우리말의 외래어에는 둘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어구에서 각 단어의 첫머리에 나오는 글자만을 취하여 형성된 ‘로마자 두문자어(頭文字語, initial word)’가 많다.<sup>17)</sup> 이러한 두문자어는 ‘지피에스(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오에스티(O.S.T./OST←Original Sound Track)’, ‘아이티(IT←Information Technology)’, ‘에스엠에스(SMS←Short Message Service)’, ‘에이치디(HD←High Definition)’, ‘에프에이(FA←Free Agent)’, ‘피디에이(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따위처럼 자모음대로 읽기도 하고 ‘소호(SOHO←Small Office Home Office)’, ‘왓(WAP←Wireless Application Protocol)’, ‘사스(SARS←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따위처럼 음절화하여 읽기도 한다. ‘DIY(←Do It Yourself, 자동차, 주택, 가구 따위를 스스로 제작하거나 수리하여 쓰는 일)’ 처럼 두 가지로 읽히는 어형도 있다. 자모음대로 ‘디아이와이’로 읽기도 하고 음절화하여 ‘다이’로 읽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로마자 두문자어의 독법과 관련해 ‘NEIS’는 2003년 한 해 동

16) 최근 들어 널리 쓰이는 ‘슈터링(shootering←shoot+centering)’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영어권에서 새로이 생성되어 쓰이다가 우리말에 직접 차용된 말로 추정되며 ‘프리터(freeter←free+똥Arbeiter)’는 일본에서 생성되어 우리말에 재차용된 말이다.

17) 로마자 두문자어도 그 기원을 밝히기가 쉽지 않다. 즉, 어떤 로마자 두문자어가 본래 영어권에서 쓰이던 말이 우리말에 직접 차용된 것인지,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 쓴 말이 우리말에 간접 차용된 것인지,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만들어 쓴 것인지 따위를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다.

안 우리나라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야기하였다.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 의 로마자 두문자어인 ‘NEIS’ 를 일부에서 자모음대로 ‘엔이아이에스’ 로 읽은 데 반해 또 다른 일부에서는 음절화하여 ‘나이스/네이스’ 로 읽은 것이다.

이러한 로마자 두문자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들어서 문장에 준하는 어구에서 형성된 두문자어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로마자 두문자어는 대개 로마자 두문자어는 수식, 한정 관계나 동격, 등위 관계로 연결된 어구에서 형성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러한 관계로 볼 수 없는 어구에서도 빈번하게 새로운 로마자 두문자어를 만들어 쓰고 있다. ‘비투비족[B2B(←Back TO Bedroom)族]’,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핼피(PIMFY(←Please In My Front Yard))’, ‘통크족[TONK(←Two Only No Kids)族]’, ‘나토족[NATO(←No Action Talking Only)族]’, ‘듀크족[DEWK(←Dual Employed With Kids)族]’, ‘딘트족[DINT(←Double Income No Time)族]’, ‘싱크족[SINK(←Single Income No Kids)族]’, ‘딩크[DINK(←Double Income No Kids)族]’, ‘오팔족[OPAL(←Old People with Active Life)族]’ 따위가 그러한 예에 속한다.

로마자의 몇몇 자모는 우리말에서 접두사처럼 쓰인다. ‘Electronic’, ‘Mobile’ 을 대신하여 쓰이는 ‘이(E)’, ‘엠(M)’ 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 ‘이커머스[E(←Electronic)+commerce]’, ‘이랜서[E(←Electronic)+freelancer]’, ‘이북[E(←Electronic)+book]’, ‘이비즈니스[E(←Electronic)+business]’, ‘이진[E(←Electronic)+magazine]’, ‘이카드[E(←Electronic)+card]’, ‘이러닝[E(←Electronic)+learning]’, ‘이미팅[E(←Electronic)+meeting]’, ‘이슈퍼[E(←Electronic)+supermarket]’ 따위와 ‘엠티즌[M(←Mobile)+netizen]’, ‘엠비즈니스[M(←Mobile)+business]’, ‘엠커머스[M(←Mobile)+commerce]’ 따위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E)’, ‘엠(M)’ 이 외래어와 결합하여 손쉽게 새로운 말을 생성해 내는 것이다. 최근에는 ‘이국민[E(←Electronic)+國民]’, ‘이기자[E(←Electronic)+記者]’, ‘엠세대[M(←Mobile)+世代]’, ‘엠쪽지[M(←Mobile)+紙]’ 따위처럼 ‘이(E)’, ‘엠(M)’ 이 우리말(한자어나 고유어)과도 자연스럽게 결합하여 새로운 말을 생성해 낸다.

이 밖에 ‘엔세대[N(←Network)+世代]’, ‘엔클론[N(←Network)+clone]’ 따위의 ‘엔(N)’, ‘티커머스[T(←Television)+commerce]’ 의 ‘티(T)’, ‘유커머스[U(←Ubiquitous)+commerce]’ 의 ‘유(U)’ 따위도 이러한 부류에 속하는 로마자로 볼 수 있다. 로마자 ‘엔(N)’, ‘티(T)’, ‘유(U)’ 따위는 각각 ‘Network’, ‘Television’, ‘Ubiquitous’ 따위를 대신하여 쓰이는 말이다.

## 5. 맺음말

지금까지의 국어 순화는 주로 어휘 차원에 한정하여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때 일본어나 외래어를 우리말(고유어, 한자어)로 바꾸나 지나치게 어려운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쓰는 일에만 관심을 가져 왔다. 반면 비속어를 아름다운 말로 바꾸거나 올바르게 못한 말을 바른 말로 바꾸어 쓰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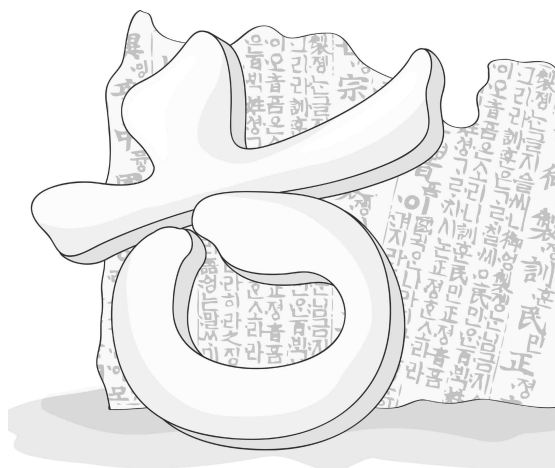
가지 않았다. 앞으로는 후자에 대해서는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또한 앞으로는 국어 순화를 어휘 차원에서 문장 차원으로 확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외국어 번역 투의 문장을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착각하여 일상적으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 방송·신문 언어의 실태와 개선 교육

정희창 I 동덕여자대학교





## 방송·신문 언어의 실태와 개선 교육

정희창(동덕여자대학교)  
grimmulgam@nate.com

### ○ 방송 언어

#### 1. 과장

백화점·여고 화장실 등서 수백차례 몰카 촬영한 40대 덜미[제목]

-지금까지 모두 113차례 걸쳐 대구 시내 백화점과 지하철역, 여고 화장실에서 몰래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기자]

☞ ‘수백 차례’가 113 차례

경기가 어려우니까 이사도 가지를 않습니다[앵커]

...이사비용도 부담스럽지만 새로 직장을 얻어 타지로 떠나는 경우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기자]

☞ 이사 비용이 없어 이사를 못 간다?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편중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은 올 상반기에 수도권으로 들어온 사람이 나간 사람보다 7만 2천명이나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기자]

☞ 취재의 결과?

종업원들은 CCTV와 비상벨 등이 갖추어져 있어도 갑작스러운 범행에는 속수무책이라고 털어놨습니다[기자]

☞ 취재의 결과?

충북 음성, ‘벼락’으로 잣더미[제목],

보셨듯이 이번 폭우는 비 자체보다도 오히려 벼락이 더 무서웠습니다. 집이며, 축사며 잣더미로 변해버린 동네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앵커]

중국에서 반일시위가 확산되면서 중국 내 일본인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테러가 두려워서 외부 출입도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앵커]

오는 2008학년도 대학입시에서 내신 성적이 결정적인 변수가 되면서 요즘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눈빛이 달라졌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성적이다. 학교 수업분위기가 진지해진 것은 물론이고 학교시험을 잘 보게 해준다는 학원 까지 등장했습니다.[앵커]

☞ 이미 있는 내용을 전혀 새로운 것처럼 과장

혹시나 하는 3차 오일 쇼크, 이제 정말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고유가가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에서 사태는 더욱 심각한데요 [앵커]

☞ ‘혹시나’가 ‘눈앞의 현실’?

보유세가 무서워서 부동산을 팔아야하는지, 아니면 양도세가 두려워서 계속 보유해야하는지, 부동산 시장에 일대 태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기자]

☞ 무섭고 두려운 세금

## 2. 일방적인 견해

떡값이니 후원금이니 해서 직접적인 대가성은 없을지 모르지만 권력기관 종사자에 대한 우리 사회의 비뚤어진 관리문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앵커]

☞ ‘대가성이 없는 돈’

행락객들이 버린 쓰레기와 생활하수가 북한강 상류 1급수인 상수원까지 오염시켰습니다[기자]

☞ 행락객은 환경 오염의 주범?

전문가들은 호수 주변에서 민물과 함께 흘러들어간 축산 분뇨나 비료가 플랑크톤의 먹이인 인을 공급해 대량증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

기자: 또 무더위 속에 여름철 피서객들이 버린 각종 쓰레기와 오물도 호수 오염에 한몫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하영 소장: 정수장이 생긴 이래 금년도에 처음 발생한 사례로서 금년도에는 댐의 방류량도 적었고, 유난히 기온이 높았기 때문에... [기자]

먼 미래의 일이었던 평화체제 수립문제가 어느새 현안으로 등장했습니다. [기자]

☞ 먼 미래의 일?

이런 가운데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해외휴식시간 확대 등을 요구하며 내일부터 조종사 50여 명이 참가한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직 사측과 교섭중이지만 협상 결렬시 전면파업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기자]

☞ 협상이 결렬되면 파업을 하겠다는 것이 강경한 입장?

대서양 건너 프랑스 파리에서도 이에 동조하는 촛불시위를 벌이기로 해 한 어머니의 외침은 이제 전세계가 주목하는 이라크 반전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기자]

☞ 이라크에서 사망한 미국 병사

### 3. 상투적인 표현, 감정적인 표현

이번 사건들이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스폰서문화 등을 극복하고 투명사회를 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기자]

☞ 상투적인 표현

한 남자가 고급 승용차 주위를 분주히 오가고 있습니다. 태연하게 승용차 번호판을 떼어낸 뒤 다른 번호판으로 갈아끼고 있습니다. 훔친 차를 중고차로 둔갑시켜 되팔기 위해 대낮 길가에서 버젓이 위조한 임시번호판을 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기자]

☞ 감정적인 표현

색깔 없는 축구와 전술부재 등 그 동안 감독에게 쏟아지던 비난여론은 이제는 마지막 남은 인내심마저 잃고 급기야 감독 경질론으로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기자]

답답하고 짜증났던 어젯밤 사우디전 패배에 대한 축구팬들의 분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본프레레 감독을 바꾸라는 압력도 커지고 있습니다.[앵커] 이미 경기 전부터 우리는 졌습니다. 감독은 상대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된 상태였습니다[기자]

철도청의 유전사업 의혹을 둘러싼 여야의 대결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진실과 관계없이 또 공방으로 가는가 답답합니다. [앵커]

지난 주말 베트남 호치민에 나타났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호텔에 약 20시간 정도 머무르다 떠났습니다. 김 전 회장은 베트남을 수시로 드나든다고 합니다.[앵커]

☞ ‘수시로’의 근거는 무엇?

검찰이 국정원을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는 배경에는 이미 확보한 수백개의 도청 테이프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정원의 기를 꺾어보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많습니다. [앵커]

☞ 검찰의 수사가 국정원의 기를 꺾기 위한 것?

대구의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믹서에 쓰이는 것으로 보이는 칼날이 나왔습니다. 벌써 석 달 전의 일인데, 학부모들은 이런 문제 투성이의 급식에 몇년째 냉가슴만 앓아왔다고 합니다.

[앵커], 급식 문제는 몇년동안 계속 제기됐지만 학부모들은 자식을 맡긴 죄로 입을 다물어야 했습니다 [기자]

☞ 학교 급식이 몇 년째 어떤 문제를 일으켰는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음

[기타]

-오래된 한옥은 무너져 내린 채 초라한 속을 드러냅니다.

-산속에 지어진 조립식 건물은 폭격을 당한 듯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제 설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유통업체와 택배회사들의 설 선물 배달 경쟁도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같은 끔찍한 사연을 알 리 없는 아기는 8달 만에 친아버지의 품에 다시 안겼습니다.

-암매장 장소를 찾은 범인이 승용차 트렁크에서 시신을 꺼내 야산 비탈길로 굴러보냅니다. 땅 속에 묶여진 시신을 삽으로 쳐보기까지 합니다.

-오늘 오전 시신이 발견된 야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유 씨는 내내 고개를 든 채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여기서도 유 씨는 거리낌없이 당시 상황을 재연했습니다.

-11살난 소녀가 태연하게 살인을 저지르는데 대해 일본 내에서는 니다.

-정 씨는 아기를 낳아 내버린 뒤 태연하게 남자친구와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자살을 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소녀들의 표정은 태연하기만 했습니다.

#### 4. 부정확한 내용

재정부는 150만명에 이르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정확한 보유 현황 파악에 들어갔습니다.

정부와 여당간 협의에서 너무 당쪽 목소리만 나온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당정은 네티즌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31일 최종 대책을 확정 발표합니다.[기자]

☞ 네티즌이 부동산 정책의 최종 결정자?

기상청은 특히 서울, 경기와 강원 영서지방은 내일 새벽에, 충청과 남부지방은 내일 낮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겠고 지역적으로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돌풍이 불겠다고 예보하고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앵커]

☞ 어느 지역에서 대비해야 할까?

눈냉방시스템을 개발한 홋카이도 무르랑 공업대학은 전 일본에서 이같은 눈냉방 시설을 갖춘다면 전체 냉방에너지의 8%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연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기자]

☞ ‘전 일본’은 불가능

한나라당은 장관을 비롯해 국회에서 위증한 것으로 판단되는 전·현직 공직자들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기자]

☞ 위증을 했는지 판단이 내려진 것이 아님.

이 어린이는 얼마 전 상가 놀이방에 있던 텀플링 놀이기구를 타다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오른쪽팔이 부러졌고 지금도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기자]

☞ 사고 발생의 원인은?

우리나라에 단 한 곳 뿐인 서울의 몽골학교. 지방 학생들을 위해서는 기숙사가 절실한데요. 간신히 건물은 구했지만 덩그러니 깎뎀기뿐, 공사비가 없어서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 테마기획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

☞ 보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딸기 한 꾸러미에 7천원, 자그마한 수박 한개에 만육천원, 사과 세 개에 8

천원, 발길이 가기는 아무래도 어렵습니다.

-지난 96년 발생한 산불로 여의도 면적의 10배가 넘는 숲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한 강원도 고성군 일대.

-오늘 하루 전국적으로 일어난 산불은 모두 40여 건, 현재까지 파악된 것만 여의도 면적의 4분의 1이 넘는 임야가 소실됐고

## 5. 무의미하고 비객관적인 내용

천둥 번개와 함께 갑자기 쏟아지는 폭우, 전에 없던 날씨인데 어제 오후 벼락이 떨어져서 중부지방에서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앵커]

서울 한 과학 고등학교 학생회장이 아파트에서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성적 하락을 비판한 것이 아닌가,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앵커]

강남구와 서초구의 명문 고교

명문대 출신 30대 여인이 숨진 채 발견

서울 강남에서 우등생으로 소문난 김○○ 학생

비교적 교육환경이 좋다고 평가받는 서울 목동지역 학생들에게도 강남은 여전히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 양성 불평등
  - 미혼모 ⇨ 미혼부
  - 미망인, 복부인, 여류작가, 여대생, 여의사
  - 학부형 → 학부모
- 신체 장애
  - 병어리 냉가슴
  - 절름발이식(예: 절름발이식 행정)
- 인종 차별
  - 유색인, 유색인종
  - 코시안(<코리아+아시안), 하프코리안
- 지역 관련
  - 서울에서 내려온, 서울로 올라와
  - 여의도 면적의 5배에 해당하는 지역

- 정보의 객관성, 공정성
  - 일류 대학 ↔ 군소 대학
  - 정부의 고위 당국자
  - 강남 지역의 명문 고교
  - 양심적 병역 거부 →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
- 과장되고 자극적인 표현
  - 초박빙의 혼전
  - 초특급 호텔, 초일류 스타, 초대형 소송
  - 히딩크사단, 아주리군단, 브라질용병, 대표팀의 비밀병기
- 감정적인 표현
  - 우울한 경기 전망, 초라한 성적표, 무섭게 떨어지는 환율
  - 어이없는 편파 판정

## ○ 방송 언어와 문법

### [한글 맞춤법에 대한 오해]

- 한글 맞춤법이 어렵다.
- 한글 맞춤법은 자주 바뀐다.
- ☞ knife ‘k’ 가 하는 일은?  
ghoti 어떻게 읽어야 할까?
- ☞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 1988년 한글 맞춤법 → 2014년?

### [한글 맞춤법의 원리]

- 불다 → 붙이다  
↗ 부치다
- ☞ 소매를 건어붙이다/건어부치다, 경례를 올려붙이다/올려부치다  
따귀를 올려붙이다/올려부치다
- 일찍이/\*일찌기, 반드시/반듯이  
일찍이/\*일찌기 문명을 꽃 피운 나라  
오늘은 반드시 일을 끝내자.  
종이에 글을 반듯이 그어라.(←반듯하다)  
눈을 지그시 감았다.  
나이가 지긋이 들어 보인다.(←지긋하다)
- 얹히고설키다/얹히고섹히다/엮이고설키다
- 빌어먹을/배라먹을

### [정어법 사용]

- 석굴암·첨성대...어떻게 만드셨을까(만들었을까)
- 꿈의 항암제 개발? “한국서 판단해주오”
- 최유라 씨랑 같은 세대신네(cf. 세대네)  
김종훈 대표께서 한 말씀을 좀 해 주시죠(cf. 김종훈 대표님이...)
- 야채 가지러들 어디까지 가신나그래? 아니 파도 직접 기르신나? 이  
거 보통 번거로운 일이 아닐 텐데? <KBS, VJ특공대>
- 오늘부터 세일인가요? 손님, 내일부터 세일이실니다.
- 이제 당신이 황제요(황제예요)

[기원 표현]

- 굳세어라 금순아! → ?굳세져라 금순아!
-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대범하세요, ?용감하세요  
\*건강한다/행복한다, ?건강하자/행복하자
- \*허약하세요, \*불행하세요, \*소심하세요, \*비겁하세요

[인용과 명령]

- K씨는 초고속 인터넷 해지를 위해 지난 4월27일 이 회사에 전화를 했다. “왜 바꾸냐. 어디로 바꾸냐. 낮춰주겠다. 경쟁사도 비싸기는 마찬가지다. 3개월간 유예기간을 줄테니 바꾸지 말고 일단 써보라.” 는 등 한 시간 넘게 시간을 끌었다. K씨는 “2시간여 통화하면서 정작 신통한 대답은 못 듣고 시간은 물론 체력까지 소진됐다.”  
며 “이럴 수가 있느냐.” 고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6/22>
- 의협 회장은 그러면서, 이런 접대 내역까지 일일이 보고해야 되느냐며 반문합니다. <MBC 9시 뉴스>
- 쇼를 하라!(광고 문구)
- 대학입시, 대학자율로 치르게 하라
- 국민 대통합 말하는데 ‘범여권’ 한정 짓지 말라
-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 ‘수요기획 - 프랑스 여인처럼 먹어라’ (KBS1)
- 구본무 LG회장 “지식 넘어 지혜를 배워라”

[띄어쓰기]

- 어떻게 하는지/하는 V 지 모르겠어.  
- 하는걸, 하는데, 하는가 / 한 V 것, 한 V 일  
- 했는걸, 했는데, 했는가 / \*했는 V 것, \*했는 V 일
- \*어떻게 한 V 지 모르겠어 / 어떻게 했는 지 모르겠어.
- \*먹었는 V 것, \*먹겠는 V 것, 먹었는데/\*먹었는 V 데(먹은 V 데), 먹었는 걸/\*먹었는 V 걸(먹은 V 걸), 먹었는지/\*먹었는 V 지(먹은 V 지)...
- ☞ ‘었, 겠’ 의 생성, 18세기
- 알은척하다 [[알-은][척]하다], 아는 V 척하다 [[[알-는][척]하다]
- 사과가 먹음직하다(먹음직스럽다) / \*사과가 먹었음직하다
- 사과를 먹음 V 직하다(\*먹음직스럽다) / 사과를 먹었음 V 직하다

[접속부사]

- \*뿐만 ∨ 아니라, 그뿐만 ∨ 아니라, 그럴 ∨ 뿐만 ∨ 아니라, %뿐만아니라
- \*그리고 ∨ 나서, 그리고 ∨ 나서, %그리고나서

## [어미]

- 만들므로/\*만드므로/만듭으로(만드는 것으로)
- 정성을 다해 만들면/\*만드면

## [사이시옷]

- 하루 만에/\*하룻만에  
    닷새 만에/\*닷셋 만에, 하룻날/닷셋날
- 고깃배/고기배, 나뭇집/나무집, 불고기/물고기

## [준말]

- 가지다/가த்다, 가지고/가트고, 가져(←가지어)/\*가트아(←가트--+아)
- 머무르다/머물다, 머무르고/머물고, 머물러/\*머물어

## [국어와 역사]

- 및
  - 佛: 及大衆: ノミテ | (佛여 믹 大衆여 호리마다) <구역인왕경 구결 고려시대>
- 부터
  - 世間 萬法을 識境으로부터 보건댄 다 幻惑호야 그 實을 언디 못호려니 <법화경언해 1:64b>
  - 方便부터 學記에 니르리(방편품에서부터 학기품에 이르기까지) <법화경언해 1:15>
- 기념(紀念/記念)
  - 작년 가을 시장원을 신설한 뒤에 그대에게 공함을 다시 임명한 것은 내가 기념하는 뜻이니  
昨秋新設之後復授爾宮衙子所記念之意 《정조실록 9년 10월》

## [어휘]

- 통합민주당 ‘나홀로 행보’
- 한물간 F-15기론 제공권 장악 ‘글썸’?
- ‘서민 법률 도우미’ 이용 22% 늘었다.
- 국민 우습게 보는 범여의 ‘묻지마’ 출마
- 구첸바워 오스트리아 총리 ‘읍소’ “돈 아닌 열정으로 최선 다할 것”
-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로 거듭나기 위해 <sbs 뉴스>
- 대중의 감성을 발빠르게 읽어 내 바로 문화 상품으로 만들어 내는<sbs 뉴스>

- 거침없는 쏟소리는 앞으로 대선정국에서의 <mbc 뉴스>
- 이렇게 경제대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국은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의 시장만은 아닙니다. <sbs 뉴스>

## [문법]

### • 은/는, 이/가

- 옛날 어떤 마을에 놀부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부가 심술궂은 사람이었습니다.
- 옛날 어떤 마을에 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놀부는 심술궂은 사람이었습니다.
- 나는 처음에 이것을 “꽃은 피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러고 며칠 있다가 담배를 한 갑 피면서 고민 고민 끝에 “꽃이 피었다” 라고 고쳐냈어요. 그러면 ‘꽃은 피었다’와 ‘꽃이 피었다’는 어떻게 다른가. 이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습니다. ‘꽃이 피었다’는 꽃이 핀 물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진술한 언어입니다. ‘꽃은 피었다’는 꽃이 피었다는 객관적 사실에 그것을 들여다보는 자의 주관적 정서를 섞어 넣은 것이죠. ‘꽃이 피었다’는 사실의 세계를 진술한 언어이고 ‘꽃은 피었다’는 의견과 정서의 세계를 진술한 언어입니다.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면 나의 문장과 소설은 몽매해집니다. 문장 하나하나마다 의미의 세계와 사실의 세계를 구별해서 끌고 나가는 그런 전략이 있어야만 내가 원하고자 하는 문장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김훈, 『바다의 기별』 「회상」 중)

### • 주격 조사 ‘이/가’ 중에 기본형은 무엇일까?

- 문제 제기: 주격 조사 ‘이/가’ 중에서 기본형을 선정하는 것이 가능할까?
- 분석 및 해결:

### • ‘누구예요’ 인가 ‘누구예요’ 인가?

- 현상: ‘누구예요’ 라고 하기도 하고 ‘누구예요’ 라고 하기도 한다.
- 문제 제기: ‘누구예요’와 ‘누구예요’는 모두 가능한 형태이다.
- 분석: 모두 ‘누구이에요’에서 온 말이다.

누구-이예요 → ‘이’ 탈락 →누구예요

누구-이예요 → ‘이’ 축약 →누구예요

### • 국어사전 이용하기

더불다 「동」 【…과】 【…으로】 (‘더불어’ 꼴로만 쓰여) 「1」 둘 이상의 사람이 함께하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세상/친구들과 {더불어} 산에 올랐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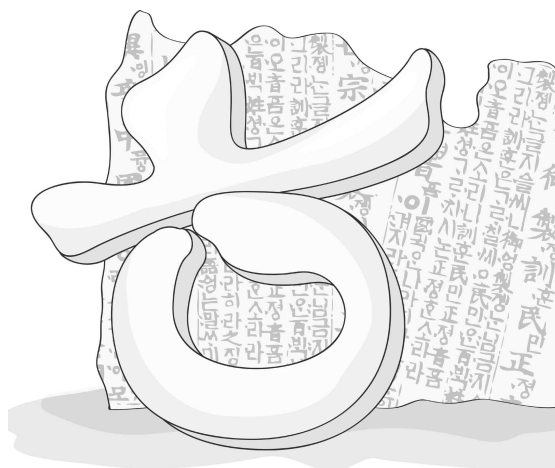
여간(如干) 「부」 (주로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여) 그 상태가 보통으로 보아 넘길 만한 것임을 나타내는 말. ㉡여자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뜰에 핀 꽃이 {여간} 탐스럽지 않았다.~





# 표준언어예절 및 청소년 언어 개선 강의 연구 자료 공유

박주화 I 국립국어원





## 표준 언어 예절 및 청소년 언어 개선 강의 연구 자료 공유

박주화(국립국어원)

### 1. 표준 언어 예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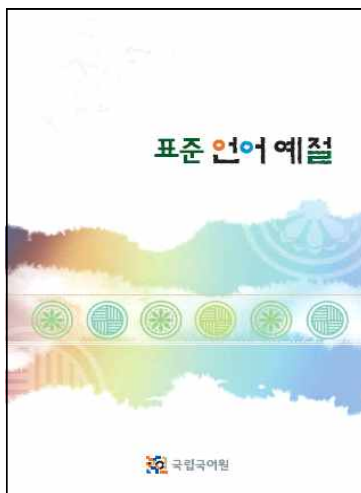
#### 1.1. 발간 배경

일상생활에서 겪는 호칭, 지칭, 경어법에 대한 혼란을 덜고자 1992년 ‘표준 화법 해설’이 발간되었다. 약 20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의 언어 환경과 언어사용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가족에 대한 의식이 바뀌었고 직장 내 존중과 배려의 태도가 확산되었으며 잘못된 경어 표현도 쉽게 접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변화를 알아보고자 2010년 국민을 대상으로 ‘표준 화법에 관한 국민의 국어사용 실태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서는 가정과 사회에서의 호칭·지칭뿐만 아니라 ‘봉투 값은 오십 원이됩니다.’와 같은 잘못된 표현에 대한 수용성도 함께 다루었다. 이를 바탕으로 2011년 ‘표준 화법 해설’ 보완 사업이 추진되었다. 국어학자와 언론계 인사로 표준 화법 보완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11차례에 걸친 회의를 통해 ‘표준 화법 해설’을 수정·보완하였다. 공개 토론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어심의회 보고를 거쳐 ‘표준 언어 예절’이 새롭게 발간되었다. ‘표준 언어 예절’은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표준안으로서 지속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 1.2. 주요 개정 내용

‘표준 화법 해설’과 달라진 주요 내용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가정에서의 호칭·지칭에 조부모, 손주, 사촌에 대한 호칭과 지칭을 추가하였다. 최근 조부모의 육아가 증가함에 따라 조부모와 손주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있으며 자녀의 수가 줄어들어 따라 사촌 간에 형제처럼 지내는 경우도 많아 조부모, 손주, 사촌에 대한 바른 호칭, 지칭을 안내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 ② 직장에서 동료나 아래 직원에게는 ‘-시-’를 넣지 않고 말하도록 했던 것을 직급에 관계없이 ‘-시-’를 넣어 존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는 직장 내에서 서로 존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이 모여 기존의 언어 예절의 내용을 현실

정에 맞게 새롭게 수정하였다.

- ③ 최근 ‘주문하신 커피 나오셨습니다.’, ‘이 상품은 품질이 좋습니다.’ 처럼 사물을 높이는 ‘-시-’의 사용이 빈번한데 이러한 표현이 잘못임을 지적하고 바른 표현을 제시하여 경어 표현의 내용을 새롭게 마련하였다.

### 1.3. 활용

‘표준 언어 예절’은 가정 및 사회에서의 호칭, 지칭과 경어법을 담고 있어 전체 내용을 강의에 반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따른다. 교육 대상과 목적에 맞게 내용을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2013년 ‘표준 언어 예절’의 활용을 높이고자 경어법 혼란 개선을 위한 동영상 2편을 개발한 바 있다. 두 편 모두 만화로 제작하여 친근함을 더했고 상황을 제시하여 이해를 도왔다. 다. 사물을 높이는 ‘-시-’ 편은 높임의 대상이 된 구두, 커피 등을 과장하여 보여줌으로써 “커피 나오셨습니다.” 처럼 사물을 높이는 ‘-시-’가 잘못된 표현임을 알린다.



[경어법 혼란 개선을 위한 동영상-사물을 높이는 ‘-시-’ 편]

또한 부적절한 호응 ‘-실게요’ 편은 “받으실게요.” 처럼 행동의 주체를 높이는 ‘-시-’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라 약속하는 ‘-(으)르게’를 함께 쓸 수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두 편의 동영상 자료는 백화점에서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고객 응대 교육에 활용된 바 있다. 이 자료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경어법 혼란 개선을 위한 동영상-부적절한 호응 ‘-실게요’ 편]

## 2.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평소에 욕설이나 비속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청소년은 전체의 4%에 불과했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상대를 비하하기 위해 욕설을 사용하지만 이를 무감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욕설을 쓰면서도 정작 그 말이 욕설인 줄 모르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에 국립국어원은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다섯 차례에 걸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연속 토론회’를 통해 청소년 욕설 남용 실태와 원인,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수 있었다. 매 회 교사와 학부모, 학생들이 참석하여 각 분야 전문가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토론회에 참여하여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에 대한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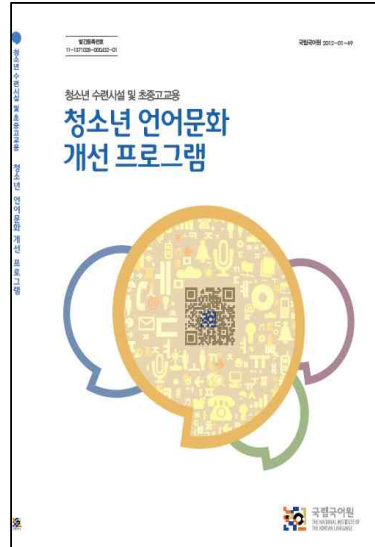
이와 함께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의 필요성을 알리고 개선 의지를 도모하고자 교사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공모전 수상작은 ‘오염된 언어 이렇게 개선했어요’로 되어 각급 학교와 유관기관에 배포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학교,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운영할 수 있는 언어문화 개선 활동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보급하고 한글날 특집 청소년 언어 다큐멘터리 ‘쉴! 욕 없는 교실 만들기’를 제작하여 KBS 1텔레비전에 방영한 바 있다. 2013년에는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공익광고 줄거리 공모전’을 개최하여 스토리보드와 시나리오를 공모하였고 11편의 수상작 중 3편은 실제 공익광고로 제작하여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홍보하였다.

## 2.1. 청소년 수련시설 및 초중고교용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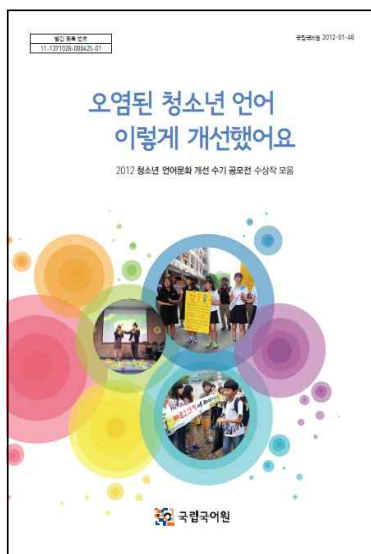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교, 청소년 단체, 청소년 기관에서는 언어문화 개선 활동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참고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 어려움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국립국어원은 표현예술치료학, 미디어교육, 심리학, 청소년지도학 전공자로 개발진을 구성하여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청소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 지도사, 교사를 자문위원으로 한 워크숍을 통해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 또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시안을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시범적으로 운영하여 실제 현장에 맞도록 보완하였다.

청소년 수련시설 및 초중고교용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저학년용, 고학년용 각 6차시, 중학생용, 고등학생용 각 8차시로 개발되었다. 전체 차시를 순차적으로 운영하거나 한 차시 활동을 선택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다. 또한 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교구 자료, 교사를 위한 진행 대본 등이 안내되어 있어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부록에는 각급 학교에서 운영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정리하여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제시하였다.



## 2.2. 오염된 청소년 언어, 이렇게 개선했어요



2012년 9월, 국립국어원은 청소년의 욕설 남발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일상화된 욕설 사용의 개선과 건전한 언어 생활 확립을 위하여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였다. 초·중·고등학교, 청소년 관련 시설 등에서 실시한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활동의 성공, 실패 사례를 공모하였다. 그 결과 학교 안팎에서 청소년 언어문화를 개선하고자 활동을 펼친 교사와 자발적으로 언어문화 개선 활동한 학생들의 수기 153편이 모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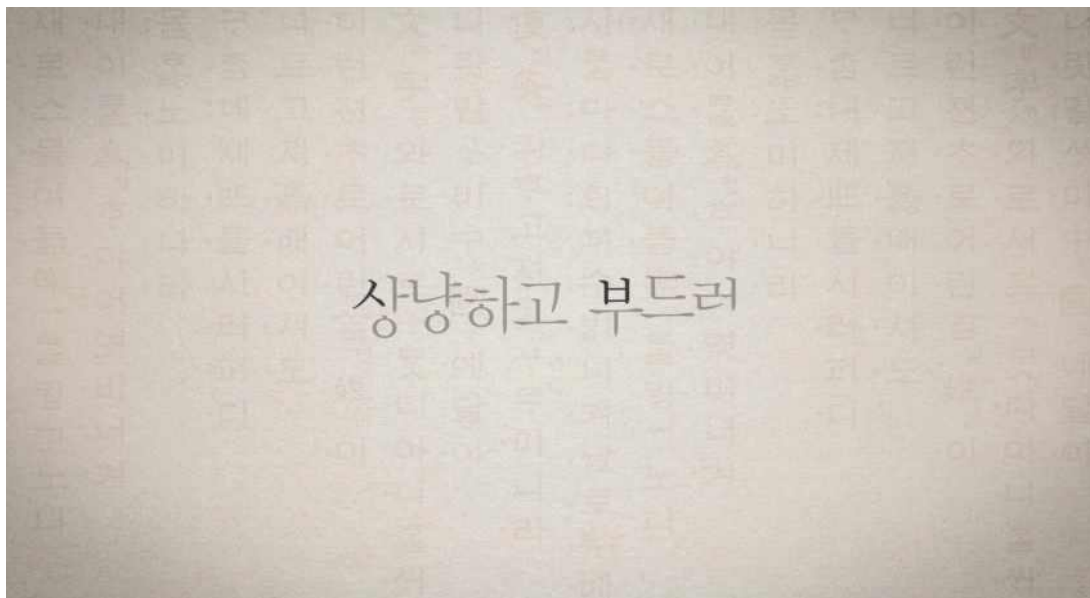
부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담임을 맡은 학급 내에서 학생들이 서로 존댓말을 쓰도록 지도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욕설이 사라졌음은 물론이고 존중·배려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전교생이 존댓말 사용 운동에 참여할 만큼 효과적이었다고 전했다. 특별한 교구나 짜임새 있는 프로그램 없이 존댓말

을 쓰는 습관만으로 기대 이상의 효과를 얻은 이 사례는 수기 공모전 교사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하였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주축으로 선플(착한 댓글) 달기 운동을 펼치다가 하면 상처와 희망이라는 주제로 선플 콘서트를 열어 말로 인해 상처받은 사연을 소개하고 치유하는 노래를 부르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언어생활을 개선하고 가꾸어 나가고 있었다.

### 2.3.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공익광고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을 위한 두 번째 공모전은 공익광고 개발을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공익광고 시나리오 및 스토리보드를 공모하여 수상작 중 일부는 실제 공익광고로 제작하여 배포하기로 하였다. 총 683편의 줄거리(시나리오 및 스토리보드)가 모였고, 11편의 수상작 중 3편을 공익광고로 제작하였다.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공익광고-우리 사이 조금 더 채워 볼까요?]

대상 수상작인 ‘우리 사이 조금 더 채워 볼까요?’는 화면 속에 제시된 초성을 보고 떠오르는 표현을 통해 평소 자신의 언어생활을 가볍게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 일반인 부문 우수상인 ‘당신의 언어습관을 기록합니다.’는 평소 습관처럼 사용하는 욕설과 비속어가 조금씩 자신의 얼굴을 바꾸고 있다는 내용으로 청소년의 그릇된 언어습관을 험악한 입모양으로 표현한 점이 특징이다.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공익광고-당신의 언어습관을 기록합니다.]

청소년 부문 장려상인 ‘파괴되는 우리말’은 일제 강점기 우리의 말과 글을 자유롭게 쓸 수 없었던 당시 상황과 함께 욕설, 비속어로 물든 현재의 언어 사용을 보여줌으로써 현재의 언어습관을 반성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소년 언어문화 개선 공익광고-파괴되는 우리말]

국립국어원에서 개발한 다양한 자료는 국립국어원 누리집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발간된 책자는 ‘국립국어원 누리집(www.korean.go.kr)-자료실’에서 피디에프(PDF) 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고, 영상 자료는 ‘국립국어원 누리집-홍보 영상’ 또는 ‘국립국어원 유튜브’에서 다시 볼 수 있다.

㉠기획·편집: 최태경(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 과장)  
박미영(국립국어원 국어능력발전과 학예연구사)

집필: <차례순>

1. 말 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 방안-국회 의회 화법을 중심으로(권순희 | 전주교육대학교)
2. 범국민언어문화개선운동 추진 계획(김선철 | 국립국어원)
3. 국립국어원 연구·교육 자료 사업 소개(박미영 | 국립국어원)
4. 우리말 다듬기 강의의 이론과 실제(이대성 | 국립국어원)
5. 다듬어야 할 우리말의 모습(박용찬 | 대구대학교)
6. 방송·신문 언어의 실태와 개선 교육(정희창 | 동덕여자대학교)
7. 표준언어예절 및 청소년 언어 개선 강의 연구 자료 공유(박주화 |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2014-03-02

## 국어문화학교 강사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제9회 강사연수회 자료집**

2014년 1월 29일 인쇄  
2014년 2월 4일 발행

발행인: 민 현 식  
발행처: 국립국어원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방화 3동 827)  
<http://www.korean.go.kr>  
전화: (02) 2669-9733